현대불교

제 81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음력 10월 12일 · 불기 2554년 · 주간)





안팎 균형이뤄야 인류진화

세계종교지도자 공동선언 채택…한마음선원서 회향

G20서울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과 공생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세계평화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시크교 일본신도 등 세계종교지도자 34명은 '지구촌 평화를 위한 G20 세계종교지도자포럼'를 11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연 데 이어 12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개최했다.

이틀에 걸쳐 두 곳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종교지도자들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경제계의 동참 방법,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발표 내용 3면, DMZ포럼 9면)

종교지도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했다. 혜원 스님이 낭독한 공동선언문에서 종교지도자들은 ▷더 포괄적인 정책으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 평등한 혜택을 주는 것 ▷경제발전을 이끌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 ▷한정된 지구 안에서 무한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지도자들은 또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세계지도자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일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면서 "발전모델이란 지구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것이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지구의 힘을 보호하고, 지구의 상호의존성과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구촌 평화를 위한 G20 세계종교지도자 회의'가 11일 동국대 정각원, 12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한마음선원의 개회식 모습.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종교지도자들은 이어 "우리는 물질과 영혼의 성장에 균형을 맞추고, 안과 밖이 고루 발전하는 것이 인류의 올바른 진화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튿날 회의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삶의 터전인 지구를 치유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기"라며 "이 자리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물질 · 정신 양면에서 함께 고루 발전해 인간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나갈 길을 모색하려는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음선원은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 하나가 되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누구에게나 마음은 있다. 이 마음이라는 불씨는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 지구의 문제, 나아가서는 온 우주도 살릴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며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뜻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세계종교지도자회의를 주최한 세계평화여성지도자회(GPIW) 디나 메리엄 의장(힌두교 명상수행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쟁 · 이해관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가 되려면 '과연 번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할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종교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포럼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개회사,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정각원장 법타 스님의 축사에 이어 발표 ·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ail.net

"청규 쉬운 것부터 차근히 실천"

선원청규 편찬위원장 의정 스님…"제방 의견 수렴했다"

"옛 청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청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간화선 수행 풍토에 맞는 청규는 조계종 〈선원청규〉뿐입니다."

선원청규편찬위원회 위원장 의정 스님(양평 상원사 선원장 · 사진)은 11월 10일 봉정법회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님은 "편찬 과정에서 종정 예하 및 원로스님, 수좌스님들의 의견을 구했다. 봉정법회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스님은 "보름마다 진행되는 포살법회에서 소규모 선원의 경우 〈선원청규〉 독송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도 검토 중이다. 정착이 쉬운 부분부터 차근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스님은 〈선원청규〉 편찬사에서 "사부대중을 계도할 수 있는 수행자상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야 할 중차 대한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묵조선 수행을 중심으로 쓰인 중국 청규의 보급으로 한국불교에는 좌선 중심의 수행 풍토가 굳어져 있다"며 "좌선 위주로 변해버린 수행풍토를 동선(動禪)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특징인 간화선은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등 생활이 곧 수행인 역동적인 선수행이라 좌선 중심의 묵조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의정 스님은 "〈선원청규〉가 실질적인 승가 생활규범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종헌 · 종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편찬 과정부터 종단과 긴밀히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정 스님은 종단과 종회 관계자가 참석한 선원청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수좌회의 안과 총무원이 수시로 조정을 거쳤다.

스님은 "〈선원청규〉는 종헌 · 종법의 연장선에서 수행자의 정신 · 사상을 강조한 것"이라며 "특히 율장 부분 기술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계율 · 율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설우 스님(창원 진불선원 선원장)은 "〈선원청규〉는 스님답게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출가자라면 반드시 생활규범으로 지키게 끔 종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증오방지법 도입하자"

조계종, 성공회에 제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불교폄훼 영상 제작 건으로 김근상 대한성공회 주교가 사과 방문한 자리에서 혐오범죄금지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번 김 주교의 사과방문은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불교폄훼 및 템플스테이 예산 저지 영상이 성공회 대구교회 조 모 신부가 제작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 자승 스님은 종교간 상호존중과 이웃종교 폄훼, 비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의 '증오범죄처벌법'을 들며 종교지도자들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주교는 이에 "좋은 생각이다. 기독교 내부에서고 교리 등의 차이로 서로 적대시 하는 부분이 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상을 제작한 조 모 신부는 성공회에서 11월 15일까지 공식사과문을 총무원에 제출하고 직접 동화사에 사과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om



정찬주의 행복한 禪 여행 ②

눈앞의 진리도 깨닫는 자의 것이리라

마경대

비구름이 비안개로 바뀌어 얼굴을 적신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우산을 펴지 않는다. 허공에서 떨어지는 한 점의 빗방울도 느끼는 자의 것이라 했다. 순례자는 무정(無情)의 비 한 방울도 인연으로 받아들이기에 법우(法雨)가 된다. 그렇다. 눈앞에 한가득 펼쳐진 진리도 깨달아 받아들이는 자의 것일 터이다.

마경대(磨鏡臺) 가는 산길은 물보라 피어오르는 강의 발원지 같다. 비구름이 은빛의 물보라이듯 산길을 그윽하게 채우고 있다. 산길을 거슬러 오르는 순례자들의 걸음걸이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활발발하다. 형산에 올라 남악탑을 참배한 뒤부터 이미 세속의 잡사(雜事)는 잊어버렸다.

순례자들의 눈은 선정의 고요가 가득하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다. 마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한전에서 외출한 아라한들이 형산의 산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눈의 고요와 입가의 미소는 엇비슷하지만 살아온 인생의 빛깔은 다 다르다. 순례자 일행 중 최고령자 여래지 보살은 젊은 시절 여배우로 활동했고, 정진 길에 들어선 삼십대 보현심 보살은 최연소자다. 스님, 시인, 교수, 학자, 사업가, 가정주부 등 여러 계층이 어우러져 오케스트라 연주자와 같은 자기 개성이 분명한 순례자들이다. 마경대에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감격스런 목소리로 소리친다.

"마경대가 여기 있습니다!" ▶19면에 계속

대각국사 909주기

천태종 · 조불련 합동다례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 조불련)은 11월 10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1055~1101) 열반 제909주기 합동 다례재를 봉행했다.

사회부장 경천 스님, 교무부 경필 · 설궁 스님 등 남측 7명과 조불련 송춘일 스님, 영통사 주지 혜명 스님, 영통사 정각 스님 등 북측 5명이 참석한 다례재 자리에서는 2차 대북 수해지원으로 햅쌀 10톤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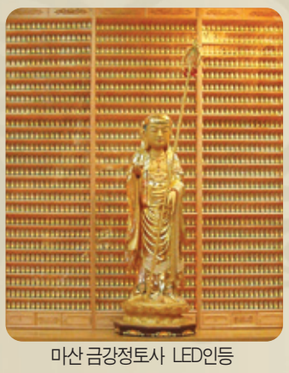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선거법 반드시 개정하겠다”

재임된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11월 9일, 제14대 후반기 의장에 이어 제15대 중앙종회 의장에 선출된 보선 스님(사진)이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4대 종회에서 개정하고 싶었으나 처리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다. 제15대 종회 전반기에는 이들 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겠다”며 전반기 종회운영 기조를 밝혔다.

보선 스님은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종회의원스님들의 상임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을 장려해 종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총무원을 견제 · 비판하는데 충실히 하겠다”고도 밝혔다.

여건상 회의를 자주 열기 어려운 종회 본회의를 대신해 각각의 의원들이 그룹을 이뤄 안건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스님은 “종회의원 대부분 각 교구별 혹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분들이다. 종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뜻을 받드는 역할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종도와 사찰의 민심이 더 크게 종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책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종회 부의장에 선출된 모 스님 등 종회의원의 자격시비에 관련해 보



선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된 이상 중앙종회의원이다. 선관위, 총무부, 호법부 등 관련기관의 처리를 지켜보겠다. 다만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4대 종회에서 일부 의원스님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종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던 것에 대해 스님은 웃음과 함께 “대중공사 하던 풍토가 본회의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선 스님은 “당사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받은 이상, 앞으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회의 진행을 할 것이다. 재발시 종회운영 규칙에 따라 엄정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대해 스님은 “그런대로 잘 치러졌다. 이만하면 깔끔하게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종단과 사부대중 법익증진 서원”

제15대 중앙종회 개원·종회의장단·상임위 등 구성

제15대 중앙종회가 11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종회의원들은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것을 삼보 전에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중앙종회는 이 날 제185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중앙종회는 79명 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전반기 종회의장으로 제14대 후반기 종회의장을 역임한 보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 종회부의장에는 정묵 스님, 차석 종회부의장에는 정문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사무처장은 성효 스님이 선출됐다. 이어 각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3년 만에 종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종정감사 특위를 구성했다. 지현 스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185회 본회의는 종정감사로 16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불기2555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원로의원 선출의 건 △법규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 20개 안건이 다룰 예정이다.

〈상임분과위원 명단〉

●총무분과위 주경(위원장) 운성 일관 무관 혜일 오심 제정 성우 월공 범해 심우 법정 원조 덕문 일운 스님

●교육분과위 법안(위원장) 청원 성행 영배 도정 정인 일진 계환 상덕 스님

●포교분과위 정범(위원장) 원정 지원 장윤 원혜 지성 정운 스님

●사회분과위 대오(위원장) 지홍 종선 정오 본해 일문 정문 장명 지홍(비구니) 스님

●재정분과위 성직(위원장) 토진 법광 종성 종민 자현 원범 현조 향적 정도 보연 적천 혜용 탁연 스님

●호법분과위 초격(위원장) 영관 태관 종호 정산 덕수 혜오 원경 경성 혜림 삼혜 법보 활중 각림 진화 스님

●법제분과위 무애(위원장) 정묵 견진 성효 지현 태연 구과 현근 스님

노덕현 기자

종책모임 법화회 출범

화엄회 초·재선 14명 참가

조계종 종책연구모임 법화회가 창립했다.

법화회(회장 정념 · 前 낙산사 주지)는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출범을 알렸다.

법화회는 제15대 중앙종회에서 최대 의석(28석)을 확보한 화엄회에서 분리 · 출범한 종책연구모임이다. 화엄회 소속 혜오 성효 덕문 초격 정인 견진 덕수 법정 종민 각림 월공 정오 스님 등 초 · 재선 중앙종회의원 14명이 참여했다.

회장 정념 스님은 “종단 안정 · 화합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비판하고, 화엄회는 물론 보림 · 무량 · 무차회 등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7일 화엄회(회장 성직)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법화회 창립을 승인했다. 이날 화엄회스님들은 법화회 창립에 대체로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6년만의 결실 실천협 구성키로

“고급승용차 사용 금지”… ‘선원청규’ 봉정법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급 · 외제 승용차의 사용을 금하고 수행자의 격에 맞는 차량을 사용한다.”

“수행자는 주식, 펀드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투기나 사행성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한 게임이나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

“사형제 폐지운동 ·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고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선원청규〉가 6년 여의 작업 끝에 발간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대원 · 현산)는 11월 10일 서울 조계사에서 〈선원청규〉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선원청규〉 제정을 위해 걸어온 굳은 확신과 원력이 실천수행을 통해 빛을 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찬위원장 의정 스님은 편찬사에서 “선원청규 제정 발의 후 6년, 편찬위원회가 발족한 지 4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제 어떻게 선원청규를 실천해 수행풍토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선원청규〉는 전국선원수좌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선원청규편찬위원회를 주축으로 6년 동안 23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선원청규편찬위원회는 〈선원청규〉 편찬을 위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정신과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전통과 대안을 편찬 원칙으로 삼아 중국 고 청규 11편 중 6편, 일본 고 청규 9편 중 1편을 참고했다. 현대판 청규인 대만 불광사 규칙과 프랑스 플럼빌리지 비구계 개정판, 가톨릭 베네딕트 수도원 규약 등까지도 참고해 수차례의 연찬을 거쳤다. 〈선원청규〉를 직접 생활에서 적용할 선원대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세미나도 실시했다. 집필은 중국 송대 · 원대의 〈선원청규〉(1103년)와 〈칙수백장청규〉(1338년)를 근간으로 이뤄졌다.

〈선원청규〉는 찬술 의의와 찬술 방향을 다룬 서론과 조계종 종지와 역사, 소의 율장 등을 다룬 1부, 선원 수행 생활 전반과 장례의 및 생명살림 등을 다룬 2부로 나뉘어 기술됐다.

1부에서는 조계종 〈선원청규〉의 정체성과 조계종 종지 · 역사 · 소의율장 · 법계 · 승가교육 등을 기술했다.

2부에서는 선원의 구성과 체제를 기본선원과 전문선원으로 나눠 편찬했다. 기본선원은 일반 · 총림 · 특별 · 시민선원으로 나눠 그 정의와 자격, 직제와 운영, 의무에 대해 상세히 정리했다.

특히 숲가꾸기, 환경교육 등 현대적 보청법, 차량 및 전자용품 등 소유문제를 풀어놓은 수행 생활, 승려복지대책에 대해 기술한 수행복지, 장기 · 시신 기증을 권한 생명살림 등 현대 수행에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수좌회는 〈선원청규〉의 정착을 위해 전국 선원장스님들이 참여하는 ‘전국선원 선원청규 실천협의회’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선원장 스님들은 실천협의회 활동을 통해 전국 선원에 〈선원청규〉 보급 · 시행을 장려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선원청규〉를 보완해 가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자승 총무원장 상대 당선무효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11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성호 스님(진안 금당사, 속명: 정한영)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성호 스님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재판부가 자승 총무원장의 승적 내용은 다루지 않고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고만 판단했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인공 총무원장 전횡”

사정원 ‘해임무효’ 판결-총무원 ‘판결무효’

지난 9월 총무원장 불신임안 부결과 총무원장의 원융화합을 골자로 한 담화문 발표로 해소 기미를 보이던 태고종 내 갈등이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인사전횡과 직권남용 의혹으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태고종 중앙선관위원장 월운 스님과 강원교구종무원장 백운 스님은 11월 12일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 총무원장을 성토했다.

월운 스님은 “인공 총무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면직시켰다. 중앙사정원에 행정소원을 제출해 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총무원장이 수용하지 않으며 전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 스님도 “총무원장이 지방종회를 통해 선출되는 강원교구종무원장을 면직시킨 것은 월권행위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숨가빴던 7일

명진 스님, 직영전환 번복하다 봉암사로 떠나



11월 7 · 8일 명진 스님이 일요법회에서 직영 전환 수용 입장을 번복하고 자승 총무원장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봉은사 신도회는 총무원 청사를 찾아 직영전환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치달았던 총무원과 봉은사간 긴장은 명진 스님이 9일 걸망 하나만 멘 채 문경 봉암사로 떠나며 소강국면을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의 직영전환을 시행하고 후임 주지로 부주지였던 진화 스님(사진) 임명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직영전환은 확정됐지만 진화 스님이 부주지로 임명되면서 신도회는 시위를 그쳤다.

명진 스님을 반발케 했던 진화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사퇴에 대해 총무원은 또 한번 양보했다. 화쟁위의 겸직을 금하자는 권고가 있었지만 진화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사표 없이 봉은사의 재산관리인에 임명됐다.

지난 3월 직영전환 지정 후 8개월 만에 봉은사 사태가 끝났다.

하지만 명진 스님이 “직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과제로 두자.” “새 주지 진화 스님을 나를 대하듯 따라 달라”고 한 말을 두고는 이견이 많다. 조동섭 기자

戒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대법회 行

귀의삼보하옵고!
본종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범망경의 계율을 수지하며 불굴의 승단이 되고져 바라제 목차를 존중하며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함을 제방에 고합니다.

본증계대화상 초대종정(승황) 멸공滅空 大宗師.
본전계화상(三師) 해동율맥 수진율사. 慧運율사. 正安율사
본증아사리(七證) 용운. 향적. 법천. 법가. 법장. 원명. 정수
법계인례사(十證) 법경. 우암. 홍인. 법륭. 법호. 지원. 용현. 법인. 원현 .법도

봉행위원장 법장. 법계위원장 법가. 봉행위원 (원로위원. 종회의원. 각원위원)
집 행 위 원 (총무원 부장. 국장. 전간부) 홍보대사 (전국사암 680개 말사 주지스님)

■ 행사일자 : 2010년 11월 25일(목) (음. 10. 20) ■ 법회장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88번지 위봉사
■ 문 의 : 총무원 ☎ 055)338-0089 / 국장 010-3801-8197 ※ 전종도 각 15교구원 별로 문의 및 접수 바랍니다.

계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니 마땅히 구족정계를 가지면 능히 여래께서 찬탄하시도다. 승가단체는 율을 행하여 도덕을 지키며 세상의 참 지도자가 됩시다.

종교법인 한국불교재단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

세계종교지도자 포럼 발표 내용

“모든 중생 한몸이므로 공심·공체다”

〈共心 · 共體〉

한 사람의 실천이 세상 바꾼다

현각 스님(미국/독일 화계사)

캐서린 햅번(1907~2003)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었다. 캐서린 햅번은 인터뷰도 절대 안하고 파티도 안 나갔다. 싸인회도 안했고 대중들과 만나지도 않았다. 언젠가 웬일인지 인터뷰 요청을 수락한 적이 있었다. 새벽 5시였다.

한 여기자가 캐서린 햅번을 인터뷰하기 위해 따라가 질문을 던졌을 때, 파도가 몰아치며 모래 속에 묻혔던 조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말없이 조개를 집어서 바다로 던질 뿐이었다.

화가 난 여기자가 따져 물었다. 그러자 캐서린은 “나는 이 조개를 돕고 있어요.”

“백사장의 많은 조개들 가운데 몇 개를 주워 던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여기자가 반문했다.

캐서린은 “그래도 내가 집은 이 하나의 조개에 생명이 달렸다”고 답했다.

그렇다. 한 사람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가 아닌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탐진치 극복이 자아를 깨닫는 길

청고 스님(한국 한마음선원 국제문화원)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 가운데 멋진 구절이 있다. 모든 중생이 한 마음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苦)의 길을 걷나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탐 · 진 · 치 때문에 우리의 참 자아를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신(神)의 이름은 몇 개가 될까? 하나뿐이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변한다는 건 어렵다. 그러나 ‘나’라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불성을 말한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성 · 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주전체, 모든 생명체 어떠한 것 모두 불성으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나를 버리고 그 진리에 연결됨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다.

영적 빈곤 선결이 물질적 빈곤 해법

사무엘 리 교수(한국 유네스코 前 대표)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 G20이 열리는 동안 언론매체에서는 한국이 짧은 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원조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불균형도 같이 초래했다. 현재 한국은 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토지 70%를 전체 인구의 30%만이 소유하고 있다. 10대 재벌기업이 전체 GNP의 71%를 생산한다. 3급 고위공무원의 40%가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명문대 출신인 것이 그 예다.

한국의 극심한 경쟁사회는 심리적인 압박과 비인간화, 인간성의 왜곡을 야기했다. 늘어나는 자살률과 줄고 있는 출생률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물질적 빈곤을 넘어서려면 영적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영적 빈곤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현각 스님


청고 스님


사무엘 리 교수


웨렌 스톤 랍비


짱콴 스님


정현경 교수

소비·생산 그치고 영적인 것에 주목해야

웨렌 스톤 랍비(미국 엠마뉴엘 템플)

미국의 차 가운데 ‘허머’(hummer)는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 반면에 하이브리드카의 대명사인 도요타 프리우스는 적은 연료를 소비한다. 국제적으로 소비 지향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소비성향이 파멸을 불러오고 있음이 곳곳에서 경고되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들은 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의 하나이다.

경제학자 폴홉킨스는 “우리는 미래의 것을 훔쳐서 팔고 있다. 그것을 GNP라 부른다. 우리는 미래를 치유해야지 훔치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나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유대교에서는 6일은 물질세계에 살면서 소비 · 생산하고 마지막 7일에는 ‘모든 사람의 평화가’라는 노래를 하며 지낸다. 소비하지 않는 시간(안식일,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정해 영적인 부분과 닿으려는 시도는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진정한 부는 열린 마음에 있어

짱콴 스님(대만 불고산 상가교육처 감독)

성엄 선사는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이 낫다. 하지만 마음 · 머리 속에는 돈을 두지 말라”고 말했다. 세상은 원래 단순한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다. 우리에겐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필요하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져도 우리의 욕구는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물질적 부는 편안함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고난과 집착도 함께 가져온다.

중국속담에 “배고프고 추우면 사람들이 도둑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그 예다.

부의 안락은 욕망을 부추긴다. 물질적 부의 성장은 사람들의 지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오염을 증가시킨다. 사치스러운 삶의 스타일과 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온다. 인간의 삶의 행복과 건강은 반드시 물질적 부와 동일하지 않다.

진정한 부는 열린 마음의 자세에 있다. 모든 중생을 우리가 자비로 대할 때 모든 중생의 부가 우리의 부가 된다. 우주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

종교지도자 역할은 다리 놓는 일

정현경 교수(미국 유니온 신학대학 교수)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면 누구도 평화로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숭산 스님이 가르쳐준 것은 “내가 먼저 평화로워 진다면 그 때 평화로워질 것이다”였다.

불교와 개신교 동 · 서와 남 · 북 그 서로 다름에 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것이 대행 스님이 가르침이기도 하다. 불교학자들은 현재 문제가 탐 · 진 · 치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오늘날 인간의 욕심은 신자유주의 · 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무지가 군대와 폭력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군수산업처럼 무지와 분노와 욕심을 부추기는 산업은 없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생명평화의 길 운동은 고무적이다. 나눔 존중 상생 공존을 추구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평화의 토대가 된다. 명심하라.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다.

정리=이나은 기자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⑥

목표는 수치로 구체화해야

‘전법도생(傳法度生)의 원리’란 전법(傳法)을 통하여 양적으로 성장하고, 도생(度生)을 통하여 질적으로 성장하는 사찰이 성장한다는 원리이다.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린 법회를 봉행해야 한다. 사찰 안의 사람들 위주에서 사찰 밖의 사람들 위주로 법회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수행과 기도하는 사찰을 만들어야 한다. 사찰성장은 종교적 성숙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종교적 성숙은 수행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사찰경영의 원리’란 사찰을 조직체로 이해하고 사찰을 발전시키도록 경영을 할 때 사찰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찰의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찰을 운영해야 한다. 조직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과 목표설정이다. 기획하는 사찰은 기획하지 않는 사찰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 현대조직에 있어서 기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기획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획은 비전을 낳고 비전은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목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요구한다. 목표설정과 사찰성장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좋은 목표를 설정해서 성취하는 것은 사찰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목표는 사찰의 목적과 필요에 구체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숫자나 결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마치겠다는 기한성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사찰경영을 위해서는 기획 · 목표설정과 함께 재정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찰 성장 위해서는 신도 수행 필요
기획·목표 세우고 인력 관리 잘해야
비전은 ‘왜?’ 사명은 ‘무엇?’에 해당

이러한 조직 시스템과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 시설과 설비이다.

주지 리더십의 원리, 신도참여의 원리, 법회역동의 원리, 전법도생의 원리, 사찰경영의 원리 등 다섯 가지의 사찰성장 원리를 철저히 고민하게 되면 그 원리를 구성하는 네 가지 개념이 살아나게 된다. 즉 가치(values)와 사명(mission)과 비전(vision)과 전략(strategy)이라는 사찰경영의 근본 개념이 떠오를 수 있다.

가치란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 신념이다. 내가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가치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없다면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치 있다고 믿으면 다름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행동하게 된다. 사찰성장에 가치를 두는 주지는 사찰성장을 소원하고 행동하고 자신을 희생할 것이다. 가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을 주관하는 원동력이다.

사명이란 가치를 느껴 행동하는 내용 그 자체이다. 부처님의 전도부촉이라는 가치 때문에 사찰을 창건한다면, 그 사찰이 할 일, 예를 들어 전법과 포교가 바로 그 사찰의 사명이다. 사명은 모든 목표와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반적이며,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가치가 왜 하느냐에 대해 대답해준다면, 사명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답해 준다.

비전이란 사명이 이루어진 모습이다. 비전이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사명의 미래 모습으로서 명확하고 도전적인 청사진이다.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청사진이기 때문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명이 일반적이라면, 비전은 구체적이다. 사명이 행하는 것이라면 비전은 보는 것이다.

전략이란 가치에 의해 주어진 사명과 사명에 의해 그려진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요 과정이다. 사명과 비전이 없이도 전략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없는 마차에 불과하다. 전략이란 도구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치가 왜(why)에, 사명이 무엇(what)에, 비전이 어디에(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전략은 어떻게(how)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일 주 문



법산 스님 송광사 금강산림법회

보조사성연구원 원장 법산 스님은 11월 29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리는 2010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문한다. (061)755-0108



갑사 영규대사 추모재

공주 갑사 주지 태진 스님은 10월 30일 영규 대사 및 800여 의승의 넋을 기리는 추모재를 봉행했다.



'만해사상과 중생복지' 특강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 성운 스님은 11월 5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한나라당 강원 당직자 워크숍에서 '만해사상과 중생복지'를 주제로 특강했다.



길상사 독거어르신 돕기 김장

서울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은 12월 1일 길상사에서 독거어르신 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한다.



삼보조계종 구족계 금강계단 봉행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1월 25일 위봉사에서 해동 스님을 율사로 구족계 금강계단을 봉행한다. (010)3801-8197



포교사단 지도자연수회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11월 20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포교사단 지도자연수 및 대의원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산업공학회 회장에 조성구 교수

동국대학교 조성구 교수(산업시스템공학과)는 제19대 대한산업공학회장에 당선됐다. 회장 임기는 2011년 1월부터 2년간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초빙
24일까지, HK 불교학 전공 관련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인문한국지원사업(HK) 불교학 전공 관련 연구교수 2명을 초빙한다.

해당 전공분야는 인도불교(유식 · 중관)와 동아시아불교다.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2011년 2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가능)로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사업 HK연구교수 초빙기준을 충족하고, 대학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외국어(영어 · 불어 · 중어 · 일어 등) 능통자 우대. 접수기간은 2010년 11월 24일까지로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41) 731-3614

도법 스님, 불교평론 논문상 수상

생명 위기에 문제의식 갖고 생명평화운동 실천해와

계간 〈불교평론〉(편집위원장 박경준)은 '2010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이 쓴 '생명평화운동과 대승불교 수행'을 선정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도법 스님의 논문이 현대문명과 신자유주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연 생태적 재앙, 극단적 양극화 사회, 인간 소외 등으로 말미암은 '생명 위기, 평화 위기, 삶의 위기'에 대해 투철한 문제의식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법 스님은 연구논문에서 생명에 대한 지극한 외경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대승보살도의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 구현하고자 실천 모델로 △생명평화경 △생명평화무늬 △생명평화 100대 서원 △공동체 마을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실제로 도법 스님은 논문의 내용을 직접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04~2008



년 5년에 걸친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 탁발순례'와 생태적 지역공동체 운동이 그 예다.

심사위원회는 "도법 스님은 단순한 선언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직접 실천에 옮기고 있어 더욱 생명력이 느껴진다"며 "비록 본격적인 학술논문이 아니고 논증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 해도 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안과 필자의 고민이 반영돼 있으며 향후 불교운동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덧붙였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지성화를 일구기 위한 원력으로 마련된 불교평론 마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신났다"며 "불교평론마당이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실천되는 참된 불교와 수행의 길인 새로운 대승불교와 현대불교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국불교에 던져진 화두를 풀어내는 큰 마당으로 빛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은 〈불교평론〉을 비롯한 국내 불교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심사해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4회를 맞았다.

한편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 17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이나은 기자

"의궤 반환에는 일본의 과거사 인정 담겨"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 펼쳐온 김의정 회장, 혜문 스님



11월 8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법당에서 김의정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공동대표(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운동본부 혜문 스님.

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궤 등 반출된 우리 문화재 1205점을 돌려주겠다고 11월 8일 밝힌데 대해,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김의정 공동대표(조계종 중앙신도회장)와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처장 혜문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의정 공동대표와 혜문 스님은 4년여를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해 진력한 당사자이다.

김의정 공동대표는 "이번 의궤 반환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담겨 한국으로 돌아오는 형태"라며 "과거사에 대한 지적 없이 2006년 기증 형식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과는 분명히 다른 진전이다"라고 평가했다.

혜문 스님은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민간 차원의 문화재 반환운동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 예"라며 "조선왕실의궤가 반환 사실도 기쁜 일이지만, 그동안 반환을 위해 마음을 보태준 한국 · 일본인들의 노력도 함께 조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한일 양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남북 불교계 등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 혜문 스님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반환 의사를 밝힌 조선왕실의궤는 이명박 대통령과 칸 나오토 총리가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입장을 재확인한 뒤, 협정(조약)을 만들어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는 이들 문화재 반환은 사실상 어렵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2일 일본 에지마 고도(江島孝導 · 교토 류간지龍岸寺 주지)가 16세기에 조성된 보물급 대형 불화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 불화와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가 되돌아와도 일본에는 6만 여점의 우리 문화재가 더 남아있다.

조동섭 기자

"4대강 복원하는 날 올 것"

낙동강 사진전 연 지율 스님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11월 8일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낙동강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었다.

낙동강 제1 비경으로 꼽히는 경천대가 주제다. 경천대는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곳으로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구간에 포함돼 있다.

"이젠 천성산 때보다 더 많은 생명이 죽어가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에 훨씬 무감각해졌어요."

스님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록과 매체의 힘이다. 스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의 귀함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전을 여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스님 뜻에 공감한 이상엽, 최항영, 김흥구, 최형락 등 전문 사진가 10여 명과 시민들이 1년간 힘을 보탰다. 이번 사진전 외에도 현재 지율 스님의 웹사이트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시민 사진작가들이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공사구간의 사진을 올리고 있다. 스님은 올 연말 전문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중심으로 책을 펴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민들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외쳐도 결국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이 사업은 언젠가 재검토되고 재평가 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4대강이 복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신문 창간 50주년 리셉션



불교신문(사장 혜자)이 11월 9일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창간 5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불교신문 발행인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기념사에서 "1960년 창간된 불교신문은 종단을 대변하는 종교계 최고 언론으로 발전해 왔다"며 "세상과 소통하는 불교, 사회의 목탁, 불교의 등불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는 정론직필의 길을 계속 걸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교신문은 1960년 1월 1일 '대한불교'를 제호로 창간된 국내 최초 불교 전문신문이다. 1979년 신군부에 의한 10 · 27법난 발생 후 강제 폐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980년 12월 '불교신문'을 제호로 복간됐다. 불교신문은 창간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와 행적을 정리한 〈불교신문 50년사(史)〉를 발간했다.

한편, 조계종은 안국선원 수불 스님을 혜자 스님 후임 불교신문 사장으로 내정했다.

조동섭 기자

진흥원, 군종교구 1억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1월 10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군종교구(교구장 자광)에 군포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전달식에서 "최근 연무대 군법당 불사 기금 모금이 예상 외로 잘 돼 육군훈련소 신법당은 총 건립비용 100억 중 45억원이 모금됐다"며 "군법당이 완성되면 한 번에 3500명이 법회에 참석하고, 연 10만 장병이 수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최근 연무대 군법당에는 매주 법회에 4000명이 법당을 찾을 정도로 청년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군포교의 근황을 설명했다.

민병천 이사장은 이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화답하고 조직사회에 대한 포교,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병천 이사장은 "사회에 나가 가정을 꾸린 후에도 가족이 모두 불법에 귀의한다고 본다면 군포교의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언 기자



2011학년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불교	차문화컨텐츠	불교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전 공	불교학, 선학	다도 · 제다	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모집인원	00명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0. 11. 8(월) ~ 26(금)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형일 및 장소	2010. 12. 4(토) 10:0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지원자격

석사과정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1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각 불교 종단의 스님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특 전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4학기수료) 수료자는 총장명의의 상제례사 인증 응시자격 부여 및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본 대학교 출신자 진학 시 입학금 면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TEL 02-2260-3096, 3097 •FAX 02-2260-8627 •http://gsbs.dongguk.edu

三華寺 淸墨 美術院 文化講座 案內

본 삼화사 청묵미술원에서 전통문화의 인재발굴과 함께 지역 정서문화 보급에 기여코져 아래와 같이 서예, 사군자, 전각 및 古典講讀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 목	강 사	시 간	비 고
서 예	圓學스님 (본미술원장)	매일 오전10시~오후8시	楷,行,草,隸,篆書 를 古碑帖에 의하여 지도함
四君子	圓學스님 (본미술원장)	매일 오전10시~오후8시	梅, 蘭, 菊, 竹 外 전통 山水畵 지도
文房四友	閑步金宗九先生 (화가, 전각전공)	격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종이, 붓, 먹, 벼루의 종류와 역사를 고전에 의하여 공부함.
篆刻實技	閑步金宗九先生 (화가, 전각전공)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印篆에 의하여 刻法을 체계적으로 지도함.
東茶頌	圓學스님 (본미술원장)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	초의선사 동다송을 고전강독으로 공부함.
특 강	頂宇스님(통도사주지), 宗光스님(기림사주지), 여연스님(강진백련사주지), 김양식(시인, 한인문화연구회장)		

※ 특강은 매월 1회 초청함. 수강료는 무료이며 회원 상조회비 매월 오만원. 3개월분 완납하여야 함.

■ 개강일시 : 2010년 11월 28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문의전화 및 원서교부 : 053)853-9777 / 853-5587

주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1리 249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사 청묵미술원

취임 2년차 보폭 커진 자승 총무원장

안정 기반 다지고 도약대 올랐다

"종책모임 심부름 말라" 국장들 경고… 개신교 불교폄훼 난제

최근 개신교의 불교폄훼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도를 높여가며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불교계의 지혜로운 대응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큰 시점이다.

이 같은 대외적인 환경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난제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2일 성공회 김근상 주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가칭) '증오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증오방지법' 은 미국의 증오범죄처벌법과 혐오범죄방지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 · 제정하자는 법이다. 종교적 갈등을 범불교도대회 개최 등 그간의 해법이 아닌 법제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제33대 집행부의 전략을 드러낸 발언이기도 하다.

제32대 집행부에서 총무부장을 지낸 원학 스님은 "개신교의 불교폄훼가 심상치 않다"며 "종단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교갈등을 '증오방지법' 이라는 법제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은 자칫 소극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종단구성원에게 자승 총무원장이 정부와 국회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15대 중앙종회 선거로 자승 총무원장이 종단 내 구성원의 역량을 모으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많다.

자승 총무원장의 권력기반인 종책모임 화엄회는 제15대 중앙종회에서 전체 81석 중 28석을 차지하며 거대 종책모임으로 급부상했다.

거대 종책모임 화엄회의 탄생은 보림회 무차회 무량회 등 계파간 연대와는 별도로 자승 총무원장에게 강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 자명하다. 이를 통해 취임 2주년에는 승가노후복지, 승가교육개혁, 종단 재정확충 등 종단 현안들이 진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기반 강화는 자승 총무원장의 리더십까지 강화시키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은 집권 2년차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총무원장 스님은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한국불교 세계화와 종단 재정 확충 의지를 표명했다. 종단 소임자에게는 공심(公心)을 거듭 강조했다.



김근상 대한성공회 주교는 11월 12일 대구불교총연합회 불교폄훼 영상을 제작한 성공회 대구 교회 조 모 신부를 대신해 사과방문했다. 김 주교는 사과와 상호존중의 의미로 성공회 미사에 사용되는 성친구를 자승 스님에게 선물했다.

이날 자승 총무원장은 "개신교의 불교폄훼가 위험스러운 부분까지 온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한국불교는 우물 안 개구리 정도가 아니라 큰 산의 조그만 샘에서 물이 흐르는 정도였다. 해외사찰의 포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등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미국 방문시 개최의사를 밝혔던 '2013 세계종교지도자 포럼' 을 언급할 때는 "개최키로 마음을 굳혔다"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특히 총무원 국장들을 상대로는 공심을 거듭 강조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종책모임의 심부름을 해서는 안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최우선으로 종단의 이익을 강조하며, "(공심이 실현되는 종무행정을 위해서라면) 일반직 종무원을 국장으로 발탁하거나 국장의 공채를 검토하겠다"고까지 밝혔다.

달라진 자승 총무원장의 행보가 지난 1년간 안정의 기반을 닦은 조계종을 도약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10 · 27 법난 시효소멸 없다"

손해배상 승소 이끌어낸 위대영 변호사

10 · 27 법난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성격규정이 되었지만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난의 대표적인 희생자로 알려진 혜성 스님(도선사 회주)의 소송대리인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위대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번 판결은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스님들이 더욱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난과 같은 국가차원의 반인도주의적 불법행위는 시효소멸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재판에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10 · 27 법난 보고서를 발표한 2007년 10월 25일에서 3년이 경과한 지난 10월 25일로 법난 피해배상 청구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이 행복을 향유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는 국가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근거와 의의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위 변호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자료제출을 꺼리는 등 두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위 변호사는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조사기록을 구하는데 나라기록관에서 보내준 자료가 부실해 부장판사의 지시를 통해 겨우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이것조차 혜성 스님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 것으로 실명 등은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 수행자가 개인 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편견과 과거사를 들추기 꺼려하는 피해 스님들이 입장을 바꾸는 일이었다.

위 변호사는 "스님들이 나서지 않아 안타깝다. 혜성 스님의 경우 금전적인 것보다 법난으로 피해 입은 스님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나서셨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는 이번 재판에 앞서 언론 등을 통해 소송에 나서 달라고 했지만 참여가 저조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 변호사는 시효소멸이 없다고 판결한 만큼 스님들이 더욱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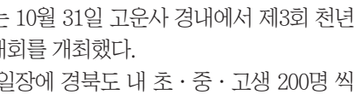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100자 뉴스

진각종 진기 64년도 수계관정불사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11월 8~9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과 대구 남산3동 희락심인당에 개설된 삼매야계단에서 진기 64년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관정불사에서는 서울계단 141명과 대구계단 174명 등 315명이 보살십선계를 받았다. 조동섭 기자

원학스님 미술원 개원 지역민 문화강좌



조계종 前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경산 삼화사 청묵미술원을 개원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원학 스님은 청묵미술원에서 서예, 사군자, 동다송을 직접 강의 지도하며, 화가 김종구 선생은 문방사보, 전각을 강의한다. 또 매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기림사 주지 종광 스님, 강진 백련사 주지 여연스님, 김양식 한인문화연구회장의 특강도 마련됐다. 첫 강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원학 스님은 국전 초대작가로 남종화의 전통을 계승 하고 있다. 2009년에는 불교중앙박물관 내 갤러리에서 수행삼아 그려온 56점의 산수화와 십군자, 화조, 서예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053)853-9777

이상언 기자

고경사 낙성식 및 접안법회 봉행

영월 대불교조계종 고경사(주지 고경)는 11월 5일 고경사 대법당에서 낙성식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해 스님을 비롯해 종단 임원 및 고경사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청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비의 마음으로 불자들을 바르게 이끄는 도량이 되자"고 당부했다. (033)373-7833 노덕현 기자

고운사 천년솔향학생 백인장 및 사생대회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10월 31일 고운사 경내에서 제3회 천년솔향 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사생대회와 백일장에 경북도 내 초 · 중 · 고생 200명 씩 총 400명이 참석했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백일장 등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미적 사고와 정서의 균형 있는 발달시키고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전통 한지등(燈) 공모전 결과 발표

봉축위원회는 "제11회 전통 한지등(燈) 공모전 결과 '상생의 울림' 등 3작품이 공동 금상을 수상했다"고 11월 10일 발표했다.

금상에는 '상생의 울림' (장유나) '영원에 대한 갈망' (이기범), '원(圓)' (이은동, 박석희) 작품이 선정됐으며 은상, 동상, 특선, 입선 등 18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봉축위는 "심사를 벌인 결과 대상작품은 없었지만 금상을 3점 선정했다. 입선작도 늘려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과 작가발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나이 40이 되어도 이렇다 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 『논어』 자한편(子罕篇)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100년 동안 세상에 출판된 불교서적은 무슨 책들이 있을까?

시공을 초월하여 독자의 마음에 길이 남아 있는 책은 드물 것이다.
이 책에 선정된 책은 불멸의 명저도 있고, 베스트 셀러, 논쟁이 되었던 책, 화제의 책, 뛰어난 번역서, 출판역사상 특필해야할 책 등 소중한 자료들로 구성 되었다.

윤창화 저
신국판 / 양장제본 / 404쪽 / 값 18,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 이메일: minjoksa@chol.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민족사

圓覺經

완전한 깨달음



이제열 강의
신국판 / 318쪽
값 12,000원

금생에 해야 될 가장 큰일이 있다면 마음을 깨닫는 일이다.
중생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보살과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허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끊고 불성을 드러내어 진실하고 뚜렷한 완전한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주민쉼터 세운 자비 바이러스

신녕포교당, 릴레이 동참으로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개관



신녕포교당은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아 11월 7일 영천 신녕면 완전리에 청소년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했다.

한 스님이 이웃에 펼친 자비행을 시작으로 지역민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아 지역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세웠다.

신녕포교당(주지 혜담)은 11월 7일 영천 신녕면 완전리에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개관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죽림사 주지 법의 스님과 지역기관장, 후원자, 주민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개관한 청소년문화복지센터는 스님이 1년 여를 병수발한 이웃 할머니가 "부처님께 시주하겠다"며 마음을 내 마련된 부지 760㎡(230평)에 세워졌다.

할머니가 장성조 · 장재복 · 장종복 등 세 딸을 통해 부지를 기증하고 나자, 한미산업 신용범 대표, 진주수지 권영미 대표 등이 마음을 내 건축비와 시설물을 후원했다. 이들 지역 기업가들은 포교당을 찾았다가 혜담 스님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자비심이 발동했다.

혜담 스님은 "한 분이 (지역청소년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내니 그 주변 분들 가운데 하나, 둘씩 마음을 내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게이트볼 운동기구는 서울지검 이재홍 판사가, 밴드부 악기는 영천중앙택시 권윤식 대표가 후원했다. 어린이 골프클럽 리츠건설 이호경 대표와 삼원주유소 · 휴게소 손두희 대표가, 어른 골프클럽세트는 은해사 부주지 태관 스님이 기증했다. 청소년문화복지센터 마당에 심어질 묘목은 하양새마을금고 전병근 전무가 어린이 도서는 신중 · 이상헌 · 박종기씨가 후원했다.

혜담 스님은 신녕포교당 주지로 부임한 2004년부터 지역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돌봐왔다.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방생법회 등을 하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 불우한 지역 청소년들의 급식비 지원 등 장학금도 정기적으로 전달해 왔다.

주지 혜담 스님에게 시작된 자비 바이러스는 농지를 청소년문화복지센터로 탈바꿈 시켰다.

청소년문화복지센터에 갖춰진 도서관, 세면장, 화장실, 조리실, 음악실, 골프연습실, 게이트볼장 등은 스님의 자비행이 이웃에 퍼지며 장엄된 것들이다.

청소년문화복지센터는 주말에는 어린이 청소년 위주 공간으로 활용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주중 일과시간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다도, 사군자, 게이트볼, 골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혜담 스님은 "수행자로서 살기 좋은 미래사회를 향해 작지만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을 실천해 왔다. 지역주민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비행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빨간 김치, 마음도 후끈"

3개 종단대표 등 '행복나눔' 김장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와 SK텔레콤은 11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종성 목사, 대한성공회 관구장 김근상 주교 등 3개 종단 대표와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을 포함해 김형근 수도권마케팅본부장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담근 5만 4700포기의 김장김치는 5000여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하나의 먹을거리인 오늘 담그는 김치가 소외계층 가정에서 추운겨울을 따듯하게 나는 복으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추운 날씨에도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자비의 김장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서는 이웃을 위한 따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정만원 SKT 사장이 담근 김치를 맛보며 밝게 웃고 있다.

자비의 배추나눔과 김장템플스테이

27~28일, 공주 마곡사서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는 11월 27~28일 경내에서 '자비의 배추나눔행사'와 '김장담그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자비의 배추나눔 행사에는 친환경 생태농장에서 길러진 5000여 포기의 배추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전달한다. 십시일반 나눔 통장을 통해 모인 금액으로 김장용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김장을 담가 무의탁 어르신, 소년 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에 보시할 예정이다.

또, 김장담그기 템플스테이는 가족단위로 참가해 김장을 담그는 자리이다. 참가비는 전액 어려운 이웃의 김장을 지원하는 곳에 사용된다. 4인 기준 10만원. (041)841-6221

조동섭기자

승가대서 4년째 통성기도

한국 경범죄 처벌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신교계의 불교폄훼 행위에 실질적인 처벌수단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중앙승가대학 기숙사 뒤편에서 4년째 통성기도를 올린 한 목사는 경찰에 3만원 범칙금만을 받았을 뿐이다. 특히 이 목사는 승가대 학생회와 약속한 공개사과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당 세신 감리교회 김병훈 목사가 중앙승가대학 학생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은 10월 20일 새벽 4시. 이 목사는 승가대 뒤편 산에서 4년 동안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통성기도를 올려왔다.

중앙승가대 학생회 기획 · 재무담당 지상 스님은 "5월에는 한 달 동안 매일 기도를 진행했다. 승가대학 뒷산은 승가대 사유지지만 등산로와 정자는 시 소유로 개방돼있다. 김포시청에서 종교행위를 금한다는 표지를 붙였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신고를 50회 가량했는데 경찰에서는 단속한다고 해놓고 교회 측에 자제해달라는 얘기만을 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훈방 조치에도 기도가 계속되자 스님들이 직접 나섰다. 학인 스님들은 10월 20일 목사의 기도소리에 직접 현장에 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소음공해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을 뿐이었다.

처벌법 및 방지법의 부재로 현재 전국에서는 불교폄훼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노덕현 기자

"다문화 역행하는 동화주의는 가라"

대중결사, 진오 스님 '이주민 포교' 강연

11월 8일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아카데미에서는 이주외국인을 위한 활동에 대한 고민의 자리가 펼쳐졌다. 이날 이주외국인 포교를 주제로 발표한 진오 스님은 "외국인과 결혼이주민이 섞여 살고, 한국어를 배우고 잘한다고 해서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화정책은 절대 다문화가 아니다. 사회통합이수제(법무부가 2008년 6월 외국 이주민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적응을 돕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주의에 무게중심이 있다. 해외의 실패한 동화주의 정책을 본보기 삼아야 한다. 과연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민과 의식수준이 있는가?"라며 "다른 나라 문화가 공유될 때, 그들의 문화가 수용될 때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카데미에 참가한 스님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스님을 활용하라는 제안에 적극 동의했다. 진오 스님은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 불교권에서 스님을 초청하고 활용하면 이주민 복지에 더 큰 효과가 있다. 이주민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데, 자국출신 스님에 대한 존경과 정서적 친숙함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미 개신교계에는 몽골, 캄보디아, 중국인 전용 교회가 운영된 지 오래됐다"며 "종단 사회부가 공식적으로 각 국가 스님들을 초청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움직임은 더디다. 불쌍하다는 개념으로 돕는 이들도 있다. 때론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한국전통문화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 국가 프랑스는 이주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유는 프랑스 이주민 정책인 동화정책에 있다. 의식주는 변할 수 있지만 저변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이나 감정, 미묘한 생활태도는 동화정책으로써도 동화시키지 못한다. 이주민 지원은 왜 해야하는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때다.

이상언 기자 kemichino@gmail.com

아름다운동행 기금 마련展

동국불교미술인회, 30일까지 나무갤러리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김의식)가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 기금 마련 전시회를 연다.

11월 17일 오후 5시 개막, 30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와 나무갤러리.

곽동해 김광현 김영희 박갑용 박찬수 서칠교 허길량씨 등 28명의 회원들은 회화, 공예, 사진, 조각 등 53점의 작품을 내놓았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동국대가 후원한다.

김의식 회장은 "나눔의 문화는 이웃들과 함께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95년에도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마련전을 열어 8천만 원을 동국대에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12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12월 2일 매주 (목)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광수련원 043)905-827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88번지〉

문닫지 않으려면 '문화법회' 열어라

김응철 교수, 선리연구원 '사찰경영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서 제안

신도가 없거나 시주금이 격감해 운영이 힘든 사찰이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문 닫는 사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찰경영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주최로 11월 9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가 '법회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기룡 연구교수가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발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두 발표자는 '문화 · 복지'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법회 운영과 관련해 "여법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성과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법회동참자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종교성의 변화를 고려한 법회 운영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문화법회'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문화법회를 ▷법회에 문화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과 ▷문화행사 과정에서 법회의식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법회의식에 찬불가, 불교무용 등의 활용 및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문화행사



사찰이 불교콘텐츠를 갖고 지역축제를 여는 것은 문화포교의 좋은 예다. 사진은 해인사에서 주최한 팔만대장경축제에 참가한 어린이가 체험행사에서 목판에 글씨를 새기는 방법을 배우는 모습.

시 불교문화콘텐츠의 적절한 배치가 요청된다고 밝힌 김 교수는 "문화법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찰의 신도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수준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룡 연구교수는 "타 종교인 혹은 무종교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면으로 전하는 직접 포교는 때로는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와 문화행사가 우선된 간접적인 불교와의 만남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면서 사찰경영의 키워드로 문화 · 복지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전체 불교계 복지시설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 · 인천 · 경기 · 영남에 집중돼 있다"며 "충청 · 호남 · 제주 지역에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계 복지시설이 전체에 69% 차지한다"며 "여성복지, 부랑인 · 노숙자 복지시설 증설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대표적 불교문화행사인 산사음악회에 대해 "불교계에서 지명도 높은 몇몇 유명가수들의 고정무대가 됐다. 개별 사찰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관내 학교의 동아리, 이웃 종교의 찬조 출연 등을 적극 유도해 사찰이 단순한 불교인만의 수행처가 아니라 열린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지역의 문화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하동 '야생차 축제', 해인사 '팔만대장경축제'와 같이 사찰이 불교적 콘텐츠를 갖고 지역축제에 참여하거나 축제를 개최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불교가 한국의 전통종교인데다 많은 문화 콘텐츠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찰의 장점을 살려 지역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지역 내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고 우호적 정서를 확산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최동진 · 이강식 기자(금강신문)는 '사찰의 지역 특화상품 사업 현황과 발전방안'에서 특화상품을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찰을 소개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최연식 교수, 청송학술상

'대승사론현의기' 교감 · 간행 공로



최연식 교수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대승사론현의기 (불광출판사 刊)

최연식 목포대 교수가 〈대승사론현의기〉 교감 · 간행 공로를 인정받아 제4회 청송학술상을 수상했다.

청송장학회(회장 소광희)는 11월 6일 대학로 함춘회관에서 제4회 청송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연식 교수는 한국불교사상의 기반을 형성한 최고(最古) 불교사상서로 알려진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를 교감해 원효 · 의상의 사상은 (중국이 아니라) 백제의 삼론학으로부터 영향 받았음을 밝혀, 한국불교사상이 중국불교의 모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전해왔음을 증명했다.

최연식 교수는 화엄과 선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사상의 전개과정을 주변 국가의 불교계 동향과 관련해 검토해 왔다. 동시에 그는 한국 고대와 중세의 고문서 및 금석문에 대한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청송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최연식 교수가 교감한 〈대승사론현의기〉(불광출판사 刊)는 백제 승려 혜균(慧均)의 삼론학 저술을 판본 대조를 통해 복원한 것으로 한국불교사상사의 기술이 일부 수정돼야 할 정도로 의미 깊은 성과를 산출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중생은 이미 완성된 부처"

불광연구원 광덕 스님 선사상 조명

불광(佛光), 불일(佛日)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경전에 등장하고 있다. 광덕 스님 또한 불광이라는 말을 사용해 세상의 빛이 되고자 했다.

불광연구원은 13일 불광사 교육원에서 제5차 학술연찬회 '진리의 빛, 수행의 향기'를 열고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과 선사상을 조명했다.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가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을, 황금연 박사(동국대 선학과 강사)가 '광덕 스님의 선사상과 수행론'을 발표했으며,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자유주제로 '이차돈의 가계와 신라의 불교수용'을 발표했다.

이종수 연구교수는 "광덕 스님은 전법의 명칭으로 '불광(佛光)'을 사용했다. 부처님의 광명이 이 세상에 온전히 비추어지는 세상, 즉 불국토를 꿈꾸며 '불광'이라는 이름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교수는 "반야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반야바라밀 염송과 보현행원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 법을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금연 박사는 "광덕 스님은 중생을 '닦아야할 중생'이 아닌 '이미 완성된 부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본각이란 본래 깨달아 있어 다시 더 수행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당대 조사선자(祖師禪者)들의 '본래무사(本來無事)'를 표방한 '무수지수(無修之修)'를 말한다"며 "광덕 스님은 당대 조사선이 가진 측면을 그의 간화선 수행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스님의 강론에는 '깨닫기 위한'과 '깨달은'이란 말이 공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이어 "광덕 스님의 '깨달은 수행'은 성철 스님이 '출가하여 화두를 받아 오매일여의 경지를 거쳐 확철대오하지 않으면 아무도 깨쳤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며 "'확철대오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깨달아야함을 명백히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사섭법 실천이 상생의 삶"

'생명과 화쟁' 불자 · 기독교수 공동학술대회

"현실 외면한 전일성 추구는 또다른 폭력"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갈애와 취착이 괴로움 · 갈등 · 대립의 원인이다.", "인간 개개인에게는 관심을 소홀히 한 채, 전체 생명체들의 조화와 상생만을 강조하는 것은 각자가 처한 절망과 좌절을 매몰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이정배)가 11월 5일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오늘의 한국적 상황에서 본 생명과 화쟁'을 주제로 개최한 제5차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종교 간 이견의 폭을 좁히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등 종교학자들은 뭇생명들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상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폈다.

각성 스님(동국대 정각원 법사)은 주제발표 '초기 불교의 수행 관점에서 본 생명과 상생'에서 "사섭법(四攝法)을 통해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초기불교에서의 상생은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의식 전환에 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환경 등의 관계는 행위자와 감각대상세계들과의 관계다"며 "이러한 관계에서의 갈등과 대립, 폭력과 파괴 등의 문제는 감각대상세계를 바라보는 행위주체자에게 있는 것이지 외부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사섭법을 언급하면서 "삶의 연기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생들은 현상에 취착(就捉)하고 괴로움을 낳는다. 윤회전생의 근원이며 모든 갈등의 요인이 되는 무명과 갈애를 소멸하기 위해 팔정도 수행으로 열반 · 해탈을 체득하는 것이 고통을 여의는 궁극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섭법은 부처님이 네 가지 섭수(攝受,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거둬 들임)를 말하는 것으로 △베푸는 삶[布施] △사랑스런 말[愛語] △이로움을 증장 시키는 행위[利行]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함[同事]을 일컫는다.

박일준 교수(감리신학대)는 '근원적 동일성으로서 생명과 진리의 침노사건으로서 생명'에서 "가난한 자의 저항과 탈주를 도외시한 채 전체로서의 조화가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생명 이해는 언제나 체제를 위한 정치담론의 역할밖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생명을 유기적 혹은 우주적 의식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개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실적 토대를 외면한 채, 초월적 전체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부당한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 '생명의 전일성에 대한 깨달음'은 기존 체제의 부정의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폭력 담론으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동 교수(성균관대)는 '유학의 세 요소와 한국 유학의 상생철학'을 주제로, 김도동 교수(원광대)는 '불교적 생명원리에서 본 화쟁과 그 실천 윤리'를, 이재돈 교수는 '가톨릭교회에서 보는 생명과 화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나은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총장님을 모십니다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서, 교직원과 동문 및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를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제출기간
2010.11.24(수)~2010.11.25(목) 17시까지

■ 문의사항
TEL. 02)2260-3005~7/FAX. 02)2260-8973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총장님을 모십니다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경주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경주캠퍼스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서, 교직원과 동문 및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를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제출기간
2010.11.24(수)~2010.11.25(목) 17시까지

■ 문의사항
TEL. 02)2260-3005~7/FAX. 02)2260-8973
홈페이지(http://web.dongguk.ac.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진짜 부처님 가르침 들으러 가요”

맹호부대 호국연호사, 초청강연·대화의 장으로 군포교 앞장

희망법당 탐방
맹호부대 호국연호사



호국연호사는 11월 7일 방속작가 노희경(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씨를 초청, ‘노희경이 들려주는 연애, 가족, 봉사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마당을 열었다. 행사 후 노씨와 군장병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장병들에게 군법당은 고된 몸을 재워주고 고픈 배를 채워주는 곳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불교교리 강의는 자장가로 들리며, 단잠을 자고나면 먹을거리를 주니 말이다. 군포교사들은 군포교 환경이 열악해 잠이라도 자게 두고, 간식이라도 손에 쥐어줘야 잠재적인 미래의 거사불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중적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스님과 연예인 등 유명인을 초청해 장병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면 어떨까. 경기도 가평 맹호부대 호국연호사(주지 무상)가 그런 곳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영화배우 김여진, 방송작가 노희경씨 등이 호국연호사를 다녀갔다. 유명인사의 강연을 들으며 자신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나눈 장병들은 어느새 진짜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고 있었다.

“제가 처음 이곳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왔을 때 법당은 무척 썰렁했습니다. 20~30명이 모여 앉아 법회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법당에 가면 재미있고, 마음도 편해지고, 연예인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내무반에 알려지면서 많은 장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군법당은 초코파이나 먹으러 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러 가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11월 7일 ‘노희경이 들려주는 연애, 가족, 봉사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한 대화마당에 참가한 정덕기 상병의 소감이다. ‘그들이 사는 세상’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로 이름을 알린 노희경 작가는 이날 자신이 20대 시절에 겪었던 방황과 고민을 들려주며 군장병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었다. 안개가 낀 스산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병사들은 군법당을 가득 메워 노희경 작가의 강연을 경청하며 훈훈한 열기를 채웠다.

유명인 초청강연으로 군불자 증가

호국연호사는 1976년 부여단장 관사를 보수해 법당을 마련했다. 1977년에는 신축법당을 완공했고, 역대 군법사들의 땀과 정성을 보태 2003년 법망 정윤성 법사의 불사 중창으로 현재의 108평 규모의 대웅전을 갖게 됐다. 대웅전 외에도 병사식당, 요사채를 갖춰 여타 군법당보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250명을 수용하는 큰 규모의 대웅전을 갖고 있는 군법당임에도 불구하고 호국연호사에는 올 초까지 30여 명의 병사들만이 법회에 참여했다. 그러다 지난 7월 법륜 스님을 초청해 장병들과 함께 즉문즉설 법회를 시작했다. 이어 김여진, 노희경씨의 강연이 마련되면서 현재는 평균 130명의 장병들이 참여하고 있다.

초청강연을 준비한 군종병 이준길 병장은 “병사들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여러 저명인사들을 초청하니 법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법회 시간은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생활이 여러가지로 힘들었지만, 내가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지면 불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법륜 스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생활이 행복합니다.”(백창현 일병)

이렇듯 초청강연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으며 병사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병장은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회에서 질문한 병사의 군생활이 180도 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입대 전 6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해 부대 일과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병사가 스님의 답변을 듣고 열심히 부대 생활에 임하게 되면서 여단장님의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귀띔했다.

‘마음나누기’ 사단본부에서도 관심

호국연호사는 지난 8월부터는 각 대대별로 모여앉아 군종병의 안내로 ‘마음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 마음나누기는 법회 후 소감과 일주일 동안의 내무생활 중 느꼈던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다.

이 병장은 “요즘 선임이 갈구어서 힘들다, 말 안 듣는 후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내일 훈련인데 걱정된다 등 병사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는 서로에게 공감의 장이 되고, 힘든 군생활의 무거움을 내려놓는 해소의 장이 되고 있다”며 “사단본부의 간부들이 마음나누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영상매체를 접하며 자란 세대다. 호국연호사는 법상에 앉아 법문을 들려주는 것만으로 병사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난 5월부터 포교영상물을 제작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8분짜리 ‘부처님의 일생’을 CG영상으로 제작했으며, 7월에는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을 녹화해 100분짜리 DVD ‘행복한 군생활을 위한 마음수행법’으로 만들었다. 이밖에 3D캐릭터를 활용해 ‘법당 기초예절 안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장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영상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준길 병장은 “법륜 스님의 DVD는 군승수련회를 통해 보급했는데 군법사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현재는 ‘수계의 의미’를 병사들에게 안내해주는 10분짜리 CG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상물 제작은 병사 개인 역량에 의지해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 병장은 “12월에는 불서 독후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천도서 5가지를 정해 병사들에게 읽게 하고 독후감을 써낸 병사들에게 포상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중”이라며 “불서를 지원해준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국연호사 주지 무상 스님은 “병사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법회와 프로그램 등 감동이 있는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군대에서 경험한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이들을 평생 불교와 인연 맺어 살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한다. 군법당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부부싸움 후 충동구매 뭘 샀는지도 모릅니다
범종을 왜 33번 치나요?…지옥중생 고통 소멸

Q 50살 주부입니다. 충동구매를 막을 길이 없어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3남 1녀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지만 아버지는 바람을 피웠고, 어머니는 집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큰오빠가 무서워 집안에서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결혼 후부터 남편과 싸우고 나면 충동구매를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구매를 하고서도 무엇을 샀는지도 모릅니다.

A 어린 시절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무척 힘들어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오빠가 무서워서 집 안에서도 도망을 다닐 정도였다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어릴 때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를 채울 기회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새로운 버릇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오순도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싸움을 하게 되면 그 불만과 실망감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뒤로 미루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며 따뜻한 가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에 대해 생각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지요. 어릴 때 받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지금 내 아이들에게 쏟으면 자연스럽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지금 일자리가 좋고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조건도 좋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 오기까지는 해고와 구직을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일하는 곳에 계약직으로 채용은 됐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올해 재채용이 됐는데, 매년 공채 기간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올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편안하게 일하고 믿음을 갖게 될까요?

A 계약직으로 지내는 것이 많이 불안하지요. 채용공고가 뜰 때마다 떨리기도 하구요. 이왕이면 정규직이 돼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장단이 있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기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인디언의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분명히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할지라도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자신의 자원이 돼 어디서든지 쓰일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마음에는 밝은 기운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Q 불교에서 범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불공 30분 전에 33번을 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외에 종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33번을 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당에 있는 작은 종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A 범(梵)이란 우주만물이며 진리란 뜻입니다. 범종은 절의 종루에 걸어놓은 것으로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 큰 의식이나 행사 때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때를 알리기 위해서 칩니다.

종소리로 지하의 모든 지옥 중생에게까지 불법을 들려줘 고통을 소멸시키고, 하늘에 있는 이들에게는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 칩니다. 이 종이 울리면 예불을 올리는 시간으로 지옥고를 잠시라도 쉬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을 28번 치는 것은 마하가섭부터 육조혜능까지 28대 조사를 의미하고, 저녁에 33번 치는 것은 천상의 세계가 33천이기 때문입니다. 법당 안에 작은 종은 예불이나 의식 중간에 사용합니다.

제공 : 불교상담개발원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이 땅에 평화를”…세계종교지도자 DMZ 선언

G20 정상회의 맞아 정신적 번영 기원

바벨 와텐버그 독일 루터교 교회 주교
“한반도가 분단된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단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도우도우 디엔 전 유네스코 세네갈 대표
“아프리카도 내전이 심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의 아픔이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전 세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자즈 아크람 파키스탄 라호르대 교수
“비무장지대(DMZ)의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 이면에 남북의 갈등 또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학자 150여 명이 11월 8일 한반도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이날 종교지도자들은 중부전선 최전방인 강원 철원군 DMZ평화전망대에서 직접 남북 분단의 현장을 목격하며 두 손을 모았다.

이날 모인 종교인들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현각 스님, 태고종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등 한국대표를 비롯해 바벨 와텐버그 독일 루터교 교회 주교, 사라다루 라나드 인도 힌두교 학자, 도우도우 디엔 전 유네스코 세네갈 대표, 산트 벨비르 신 시츠왈 인도 시크교 대표, 히로시 마츠모토 일본 ITRI대표 등 종교, 국적, 인종을 초월해 다양했다. 이들은 G20정상회의를 맞아 한국에서 영적 포럼을 열고 있는 세계평화여성지도자회(GPIW)와 불교여성개발원이 초청한 인사들이다.

이처럼 전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DMZ일대를 방문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초청된 인사들은 분쟁 지역이거나 분쟁이 해결된 지역의 종교지도자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의 분단 현실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함께 자국의 갈등 해결과 지구촌 평화를 함께 모색했다.

매서운 칼바람에도 이들은 평화전망대 입구에서 전망대까지 걸어가는 ‘침묵의 행진’을 봉행했다.

“이곳은 이른바 ‘철의 삼각지’로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일명 ‘피의 능선’에서는 UN군 1만 5000여명, 중공군 3만 여명 등 무려 4만 5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최근 남북 경색 국면으로 북한군이 북방한계선의 남측한계까지 초소를 내린 상황입니다.”

김철호 평화전망대 소장의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종교지도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브리핑 이후 이들은 종교별로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의식인 ‘평화를 위한 기도’, ‘화합을 위한 정화의식’을 진행했다. 각자의 종교의식이 다르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종교의식 이후 세계종교지도자들은 ‘DMZ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남북한은 자원과 성지, 종교적 유산, 언어와 역사적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수많은 공통점에 비할 때 남북한의 차이점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며 “G20 정상들의 노력이 한반도에 더 큰 통합과 조화를 가져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물질적 추구와 정신적 포부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는 일이 인류의 존속을 위한 우선 과제임을 알고 있다”며 “인류의 문제를 자비롭게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지구촌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불자로 알려진 디나 메리암 GPIW 회장은 행사 이후 “북한과 대치한 이 지역에서 행사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디나 메리암 회장은 “이번 행사는 선진국들의 번영을 논의하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신적 번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한국의 분단현실을 비롯한 수많은 아픔이 많다.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이 열의가 북한의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고종 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시연으로 DMZ행사를 마친 종교지도자들은 서울 진관사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진관사의 사찰음식은 각국 종교지도자들에게서 감탄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세계평화여성지도자회(GPIW)는?

세계평화여성지도자회(GPIW)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단체다. GPIW는 2000년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린 ‘밀레니엄 세계평화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설립됐으며 현재 세계 종교지도자들의 국제 네트워크로 종파와 성(性), 국경을 초월해 활동하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고지에 자리한 철원 DMZ평화전망대에 부는 영하의 차가운 바람도 한반도와 지구촌 평화를 바라는 각국 종교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순 없었다.


각국 종교지도자들이 이웃종교의 종교의식을 지켜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

세계종교지도자회의 DMZ 공동선언문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남한과 북한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종교지도자들 역시 해결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구촌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됐고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 곳곳의 종교 및 영적 지도자들을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치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립니다.

예로부터 남한과 북한은 세계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통과 역사가 빛나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은 자원과 성지, 종교적 유산, 언어와 역사적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공통점에 비할 때 남북한의 차이점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G20 정상들이 모여 세계경제의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적 평등과 균형을 이룩할 방안을 모색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런 노력들이 한반도에 더욱 큰 통합과 조화를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가족임을 깊이 인지하고 각 나라의 차이를 특성으로서 존중하며 우리는 인류의 공동번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합시다.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물질적 추구와 정신적 포부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는 일이 인류의 존속을 위한 우선과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G20정상회의와 나란히 서울에서 모인 이유도 새로운 차원에서 번영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약합시다. 모든 이의 필요에 자비롭게 부응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과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구조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창조적 성찰에 함께 할 것을 서약합시다.

우리 다 같이 서약합시다. 모든 이의 필요에 자비롭게 부응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과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구조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창조적 성찰에 함께 할 것을 서약합시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서약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대한민국 DMZ에서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비구니스님 손길 간절해요”

이주여성 지원 해뜨는다문화센터의 두 스님



광주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장 정선 스님(왼쪽)과 총괄국장 동원 스님이 활짝 웃고 있다.

“다문화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비구니 스님들의 동참이 간절합니다.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은 이주여성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광주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장 정선 스님과 총괄국장 동원 스님은 이주민들이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 것이 안타깝다.

“이들은 가정에서 폭력과 천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고 한국 생활이 낯서니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빨리 습득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는 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주여성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섬세한 배려,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센터에서는 이번 겨울 ‘악기와 동요가 함께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음악과 어울리면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현장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조선대병원과 이웃한 대광사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2009년 4월 문을 열었으니 1년이 조금 넘었다. 센터에는 생기가 돈다. 임대한 2개 층에는 놀이방과 공부방, 식당 등이 갖춰져 있다. 시설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이곳에서는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가을나들이, 김장김치나누기, 다문화가족 큰잔치, 빛고을 사랑 운동, 전통악기 배우기, 일자리창출, 한국요리수업, 생활상담 등 많은 활동이 진행된다.

지난 10월는 센터 소속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경연대회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출전한 전통악기팀은 가야금과 해금을 연주했다. 또 다문화가정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태국 · 베트남 여성들은 전통춤을 선보였다. 경연대회는 아리랑TV를 통해 180여 나라에 방송됐다. 1년 남짓한 새내기 팀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줬다.

센터에 오는 60여 가구의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전통악기 연주이다. 정선 스님과 동원 스님은 “다문화가족들과 전통음악으로 소통하면 더욱 좋아요”라며 전통음악을 활용한 활동을 적극 추천했다.

몇 해 전 정선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대광사에 조선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과 이주여성들이 방문했다. 스님은 가난한 유학생활의 힘든 점을 알게 됐고,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스님이 그들에게 도움주면서 이주민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정선 스님은 이들을 더욱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있다. 동원 스님도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했다.

두 스님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하지만 센터 운영이 쉽지만은 않다. “재정문제가 어려움입니다. 이주민 엄마와 아이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스님은 이런 고민을 누군가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상담학을 따로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기관에서도 이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집행과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참불자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통도사서 수계

부산불교봉사연합과 부산시 지체장애인협회는 11월 7일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에서 ‘제2회 휠체어 장애인 산사 수계대법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을 위한 수계법회에는 부산 · 양산 휠체어 장애인 및 가족, 봉사회원, 신도, 학생자원봉사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사단은 휠체어를 탄 60여 장애인들이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또 통도사는 장애인들을 위해 법당까지 마당에서 법당까지 나무 다리를 임시로 설치해 편의를 제공했다.

정우 스님은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장애인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탁상에서 법문을 했다. 또 스님은 “앞으로 통도사는 장애인들이 통도사 경내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신설되는 건물에는 문턱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수계식을 통해 참 불자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jj9818kr@yahoo.co.kr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11월 7일 양산 통도사에서 수계를 받고 있다.

광주博,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도갑사 성보박물관 체험행사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 마지막 코스로 불교 성보박물관을 관람한다.

가족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은 11월 27일 도갑사 성보박물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도기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도갑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 제50호 해탈문과 국보 제144호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89호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134호 문수 · 보현보살 · 코끼리 대형석조상, 도선수미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조각, 회화, 공예, 서지, 전적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김새롬 씨는 “사찰 성보박물관은 자연 속에서 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탐방은 전문 큐레이터의 해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가족문화탐방 프로그램이다.

접수는 11월 11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선착순 40명. (062) 570-705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눌수록 더해지는 HAPPY’

2010 서원한마당

금산사복지원이 위탁 운영하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관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11월 18~19일 서원복지관에서 지역주민, 어르신,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10 서원한마당’을 개최한다.

18일은 어르신 작품, 아이들이 바라본 할아버지 · 할머니 그림 전시, 센스만점 오행시, 어울림한마당, 장기바둑대회가 열린다. 19일에는 복지관, 경로당, 서원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작품발표회와 함께 바자회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원행 스님은 “작품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성을 이해는 장이자,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한 어르신들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복지관은 작년에 이어 소외계층 어르신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바자회가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백양사 단풍축제 ‘추야몽’



백양사는 11월 6~7일 단풍축제 ‘쌍계루의 추야몽’을 열었다. 어린이들의 문화공연 모습.

전남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11월 6~7일 백암산 백양사 단풍축제 ‘쌍계루의 추야몽’을 개최했다.

가을단풍이 한창인 백양사 단풍축제 및 산사음악회에는 등산객과 신도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호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6일 수석박물관에서 네잎클로버 300만 잎 전시와 한국불교 미술사를 알 수 있는 전시회, 수석으로 만나는 부처, 달마, 나한상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이어 야단법석에는 조계종 前 교육원장 암도 스님의 ‘멋지게 잘 사는 길’이라는 법문과 순천 대승사 ‘아하 풍물단 문화 공연 등 이어졌다.

7일에는 인기가수 박현빈, 도신스님과 색즉시공, 현진우, 정정아, 퓨전국악 아이리아의 공연이 이어졌다.

시몽 스님은 “백암산 백학봉과 어우러지는 백양사는 최고의 관광지이자 수행처이다”며 “관광과 함께 마음을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행사와 별도로 쌍계루 주변에서는 불교계 구호단체 JTS 북녘돕기 캠페인과, 단주 만들기 체험, 페이스 페인팅, 솜사탕 만들기 등이 함께 진행돼 단풍철을 맞아 사찰을 찾은 이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인기’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와 본지가 함께 진행 중인 빛고을아카데미 경전강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월 27일부터 광주 KT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강좌에는 매회 600여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5년 동안 강좌에 참여한 이미령(51, 여)씨는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됐다. 특히 큰 스님들의 법문을 광주에서 직접 만나게 돼 너무 기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 강좌는 지안 스님 〈금강경〉 각묵 스님 〈아함경〉 통광 스님〈유마경〉 도법 스님 〈화엄경〉 무비 스님 〈법화경〉 강의로 각 경전에 대한 이해와 경전이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성오 스님은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통해 광주불교가 한 단계 발전해 나아가며, 사부대중 공동의 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062) 376-32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

부산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1월 17일 동의의료원 강당에서 환자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함께나누는 시간, 사랑의 차와 떡 나누기에 이어 성우원 합주부, 불자성악가회, 예림 어린이 병창단, 음악세상의 음악공연이 진행됐다.

원범 스님은 “투병생활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우리 사회의 온기 넘치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해, 입원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선사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화엄사 네팔 만다라전

네팔 만다라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11월 25일까지 전남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보제루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극락정토로 가는 영혼의 수레바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만다라 작품 및 불상을 통해 네팔 불교의 특색 있는 종교관을 엿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네팔 최고작가로 꼽히는 노루브 라마 등이 그린 칼라차크라 만다라 35점과 네팔 장인들이 손으로 제작한 불상 30여점이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가을 50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모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로 네팔 난민촌 초등학교에 컴퓨터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길상사 삼계선원 개원 2주년 기념 법회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만제) 개원 2주년 기념 법회가 11월 6일 봉행됐다.

법회에서는 상단 후불탱화 점안식과 더불어 땅 한 평 사기 300일 기도 입재식이 함께 봉행됐다.

길상사는 경남 김해 신도시인 삼계동의 도심 포교당으로, 2008년 처음 선원 문을 연 후로 불교대학 개설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체험 행사,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 등을 펼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그 신비한 힘을 !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에서 자손들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성공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세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 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 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 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여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치우천왕 검색

신비한 힘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터지는 치우천왕 조상천도 도자기 출현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가격 : 250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치우천왕 도자기는 상품번호 제 40-0812033호 이므로 무단 복제시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황금의 불탑 미얀마!!!

미얀마를 알고 계십니까?
걱정 마세요. 미얀마 성지순례는 안전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성지순례!!!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⑫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1)

소임자 임무는 수행 뒷바라지

선원총림(선종사원)의 조직과 직제는 당송 시기 조정의 직제와 율장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조정)의 직제와 조직을 많이 모방했는데, 그것은 총림의 중요한 소임인 6지사와 6두수를 동서(東序)·서서(西序), 또는 동반(東班)·서반(西班)이라고 한 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선종사원의 최고 통솔자, 최고 책임자는 주지 곧 방장이다. 주지는 총림의 운영에서부터 수행승들에 대한 참선 지도 등 교육까지 모두 담당한다. 주지 밑에는 12개의 중요한 소임이 있는데, 이것이 6지사(六知事, 일을 아는 6명)와 6두수(六頭首, 6명의 우두머리)이다. 6지사의 수장은 도사(都寺, 감원)이고 6두수의 수장은 수좌인데 이들이 주지를 보필하여 선원을 운영, 관리하고 수행승들을 통솔한다.

6지사는 여섯 명의 지사로서, 도사(都寺, 감원)·감사(監事)·부사(副寺)·유나(維那)·전좌(典座)·직세(直歲)이다. 6두수는 수좌(首座)·서기(書記, 書狀)·지장(知藏, 藏主)·지객(知客)·지욕(知浴, 浴主)·지전(知殿)이다. 어느 곳에는 지전 대신 고두(庫頭)를 말하기도 하나 〈칙수백장청규〉 양서장에는 지전이 들어가 있다. 고두는 사무, 행정 쪽 소임으로 후대에는 부사라고 했는데, 한 때 6두수에 포함되기도 했다.

조정 직제·율장 바탕해 조직 구성

지사(知事)는 주사(主事)·집사(執事)와 같은 말로서 본래 그 명칭은 당송시대 중앙 관아의 우두머리 다음 가는 벼슬인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등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벼슬들을 줄여서 흔히 '지사(知事)'라고 했는데, 선원 총림의 중요한 직책인 지사도 여기서 따온 말이다. 그리고 두수(頭首)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6지사를 동서(東序)·동반(東班)이라고 불렀고, 6두수를 서서(西序)·서반(西班)이라고 불렀는데, 이 호칭도 당시 정부조직의 두 축인 양반(兩班) 즉 동반(東班, 東序)과 서반(西班, 西序)에서 차용한 말이다. 동반은 문반(文班)이고 서반은 무반(武班)인데, 문반이 무반보다는 상위였다. 후대에는 동반과 서반을 가리키는 양반(兩班)이라는 말이 신분 구분을 뜻하는 양반과 상놈의 말로 변천하였다. 개념이나 역할상에서 조정의 동서(동반, 문반,) 서서(서반, 무반)와 총림의 동서, 서서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6지사와 6두수 밑에는 다시 이들의 업무를 돕는 종두(鐘頭)·수두(水頭)·화두(火頭)·채두(菜頭) 등 소임이 있는데, 이들을 소두수(小頭首) 또는 소직(小職)이라고 했다. 소두수 밑에는 사미승과 행자(동행)가 있고 또 정인(淨人)이라고 하여 부목(負木) 등 일꾼들이 있었다.

> 선종사원이 신설되던 초기 백장선사 시대에는 모든 소임자는 임기가 끝나면 승당으로 되돌아와서 대중과 함께 생활했다.

중국의 선원총림의 직제는 조정의 문무 양반제를 모방하여 지사와 두수의 양서(兩序, 동서와 서서)·양반제(兩班制)를 실시한 것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총림의 조직은 하나의 소(小)정부라고 할 수 있다.

주지(방장)를 보좌하여 총림을 운영, 관리하는 요직으로서 6지사와 6두수 제도가 정형화 된 것은 송대 중기 즉 남송 무렵(1127년부터 남송이 시작됨)이다. 남송 이전 북송 시대에는 6지사가 아닌 4지사 제도로서 감원(監院)·유나(維那)·전좌(典座)·직세(直歲)만 있었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총림의 업무와 기구가 비대해 지고 특히 감원의 업무가 증대하자 이 소임을 도사(都寺)·감사(監事)·부사(副寺)로 분할한 것이다. 송대 초기 무렵에 편찬된(1103년)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4지사만 열거되어 있는 반면, 원대 후기에 편찬(1338)된 〈칙수백장청규〉에는 6지사가 열거되고 있다.

선원총림에서 도사(감원)·유나 등 6지사는 주사(主事), 행정직으로서 선원의 사무 일체와 살림을 총괄하는 소임이고. 수좌·서기 등 6두수는 수행, 교육을 총괄하는 소임인데, 이 가운데서도 도사(감원)와 수좌가 6지사, 6두수의 우두머리이다. 지사와 두수는 흔히 우리나라 사찰에서 말하는 사판(6지사)·이판(6두수)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고 6지사가 좌선·참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당에서 거의 대중들과 똑같이 참선했으므로 우리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

6지사와 6두수는 승당(선당) 내에서도 앉는 자리 즉 좌선하는 자리가 각각 다르다. 대혜선사(1089-1163)가 주지로 있던 항주 경산사 대승당인 해회당(海會堂) 내부도를 보면, 우선 주지는 승당의 전당(前堂, 승당 내에서도 입구쪽을 전당이라고 하고 안쪽을 후당이라고 함. 그리고 이 전체를 내당이라고 함) 통로 우측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서 좌선한다. 정식 자리인 장련상(좌선, 취침상)에는 배정된 자리가 없다. 주지는 직무상 출입이 용이한 쪽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6두수 가운데 수좌·서기(서장)·장주(藏主, 지장)는 내당 오른쪽 장련상에 앉아서 좌선하고, 지객·지욕·지전은 승당의 외당 좌측에서, 그리고 도사·감사·유나·부사·전좌·직세 등 6지사와 방장시자 등은 승당의 외당 우측에서 좌선한다. 6지사와 6두수 등 소임을 맡은 사람들은 주로 입구 쪽이고 수행승들은 안쪽에서 좌선한다.

또 법당 내에서 법문을 들을 때도 서는 자리가 각각 다르다. 6지사는 동서(東序, 東班)이므로 동쪽(좌측)에 도열하고, 6두수는 서서(西序, 서반)이므로 서쪽(우측)에 도열하여 설법을 듣는다. 불전에서 예불할 때도 동서로 구분하고, 법회나 기타 행사 때에도 동서로 구분하여 앉는다. 이 역시 조정에서 조회(朝會) 때 동반은 동쪽(왼쪽), 서반은 서쪽에 서서 조회했는데, 그대로 본 딴 것이다.

방장이 6지사·6두수 임명

지난 여름 중국 천동사에 갔을 때에 승당 이래에 있는 재당(齋堂, 식당)을 보게 되었는데, 동서(東序)·서서(西序)라는 글씨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식당에서도 구분했으며, 이런 구분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지사와 6두수의 임명권자는 물론 총림의 최고 어른인 주지(방장)이다. 그러나 주지라고 해서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임자들의 추천을 받은 뒤에 반드시 대중들에게 적부(適否) 여부, 찬반 여부를 세 번 물은 다음 이의가 없으면 비로소 임명한다. 대체로 이의 없이 통과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절차를 규정화 한 것은 항상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했던 것이다.

〈선원청규〉 2권 청지사(請知事, 지사와 두수 임명) 장에는 "주지는 지사와 두수를 임용할 때는 미리 대중을 모아 놓고 지사와 두수 후보에 대하여 적부(適否) 여부를 세 차례 물은 다음, 이의가 없으면 비로소 이를 임용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사와 두수 소임을 맡게 되면 해당 소임자들은 모두 함께 방장에 나아가 주지화상에게 삼배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승당에 가서 대중들에게 인사하고 각자 "비구 00는 이번에 00직을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고한다. 물론 이 자리는 6지사와 6두수가 대중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이므로 소임자들은 특별히 대중들에게 차를 공양한다. 그리고 또 별도로 각 소임자들이 내는 차(茶)도 있다. 이것을 "00특위다탕(00特爲茶湯)"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소임자들이 한턱 내는 것인데, 이것은 대중과의 화합을 위해서다. 주지 이하 중요 소임자들은 대중들을 위하여 자주 차를 공양했는데, 차를 마시면서 담소함으로서 총림은 화기애애하게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사와 두수 아래의 소직(小職)은 각 지사와 두수가 제청하면 임명했는데, 주지를 제외한 모든 소임의 임기는 1년 단위다. 소임을 맡은 지 1년이 되면 6지사와 6두수 등 요직 소임자는 저녁 때(6지사는 저녁 때)나 아침 공양 전(6두수는 공양 전)에 방장실로 들어가서 사임을 고하고 삼배(三拜)를 하고 물러간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후임 소임자에 대한 천거 등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임하는 것을 하(下)지사, 하(下)두수라고 한다. 지사·두수직에서 내려온다는 뜻이다.

▶ 선원총림의 직제

주지(방장)	
동서(東序)·6지사(六知事)	서서(西序)·6두수(六頭首)
도사(都寺, 감원, 서무)	수좌(首座, 교육지도)
감사(監寺, 업무감독)	서기(書記, 문서·문한)
부사(副寺, 재무·회계)	지장(知藏, 장주, 장경각)
유나(維那, 규율)	지객(知客, 손님접빈)
전좌(典座, 주방·창고)	지욕(知浴, 욕실 관리)
직세(直歲, 건물관리)	지전(知殿, 대웅전 관리)



2008년 동안거에 맞춰 개원한 월정사 만월선원 용상방.

세번 물어 이의없어야 소임자 임명

이판–사판 때론 알력관계… 임기는 1년
방장 보필해 6지사·6두수가 선원 운영

용상방 우측에 이판, 좌측에 사판

소임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역할은 대중들이 편안하게 좌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중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이지 목에 힘을 주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요직을 빙자하여 함부로 전횡하지 못하게 했다.

6지사와 6두수는 총림(선종사원)의 요직이다. 남송 이전 선원의 직제가 4지사 6두수였던 때에는 감원과 수좌가 각각 주지 다음의 제2인자였다. 그리고 6지사로 정형화 된 남송 이후에는 도사(都寺)·감사(監寺)·부사(副寺)·유나, 그리고 수좌·장주(지장)·지전·직세·지객 등 중요 직책을 맡은 이는 대부분 거쳐하는 당우나 방이 따로 있었는데, 수좌료(首座寮)·유나료(維那寮)·직세료·지객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사와 두수의 경우 좌선은 승당에서 대중들과 같이 했으나, 생활은 각 요사에서 따로 했다.

전임자들에 대한 예우도 있었는데, 지사와 두수 가운데서도 감원·도사·수좌 등 상위직을 역임한 이들은 따로 당우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부사(副寺) 이하의 지사 소임과 하위 두수직을 세 번 이상 맡았던 이는 전자료(前資寮)라는 당우에 독방을 배정하여 예우했다. 그러나 선종사원이 신설되던 초기 백장선사 시대에는 모든 소임자는 임기가 끝나면 승당으로 되돌아와서 대중과 함께 생활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6지사와 6두수는 때로는 알력 관계에 있기도 했다. 어느 쪽이 더 상위직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때론 총림 운영 문제를 놓고 동서(지사)와 서서(두수) 사이에 이견이 팽팽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또 수행(두수)이 더 중요한가? 사무와 행정(지사)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도 대두되었을 것이다.

지사는 행정 쪽이고 두수는 수행 쪽이었는데, 외형적으로는 수좌를 비롯한 두수 쪽이 중심이지만 선원의 운영은 감원·서기 등 지사 쪽이 중심이었다. 외빈이나 지방 관아의 관리가 찾아 왔을 때는 감원이 주지를 대신하여 맞이했다.

그러나 주지 즉 방장이 부재중 일 때는 수좌가 주지를 대신하여 법문을 하고 선원을 통괄한다. 주지(방장)가 입적 등으로 궐위(闕位)가 되었을 때는 6지사와 6두수 그리고 대중들이 회의하여 주지를 선출했는데, 감원보다는 수좌가 선출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경우는 권력보다는 법력이 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백장선사 시대 즉 초기 선원총림이 만들어질 때 소임의 숫자는 20여개에 불과했으나 후대로 가면서 점점 소임이 신설되었는데 특히 5산 10찰 제도가 생긴 남송(1127년) 이후에는 4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만치 후대로 갈수록 선종사원의 조직이 비대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명청대에는 다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결재 때가 되면 소임을 확정하여 큰 방 벽에다가 방(榜)을 붙인다. 이것을 결제방 혹은 용상방(龍象榜)이라고 하는데, 이 방(용상방)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들은 모두 용상(龍象) 같은 이들이라는 뜻이다. 용상방을 쓸 때는 우측에는 방장·조실·수좌 ·선덕·지객 등 이판 소임자들의 이름을 쓰고, 좌측에는 주지·삼직 등 사판 소임자들의 이름을 써서 붙인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금산사 미륵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륵전. 밖에서 볼 땐 3층이지만 내부는 통층으로 짜여져 있다.

진표율사 중건한 미륵신앙 으뜸 사찰

모악산 금산사

산은 수많은 생명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뿐이겠습니까. 미물도 산이 거두는 생명입니다. 사람도 산이 기르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집합체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많은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산의 크기에 따라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생의 숫자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산은 어머니와 같이 생명을 길러내는 무한한 자비의 터전입니다.

전주에는 모악산이 있고, 그 산에 금산사가 있습니다. 모악(母岳)이라는 말은 큰 산이라는 뜻으로 엄뫼, 큼뫼에서 유래합니다. 김제지역의 낮은 평야를 생각해본다면 모악산이 큰 산으로써 신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성한 산 아래 금산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산사의 시작은 삼국시대 백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왕 때인 599년에 창건되었으니 14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백제 왕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사찰로써 창건 당시에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통일신라기 진표율사에 의해 대가람의 규모를 갖추면서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종의 근본도량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정유재란 때에 금강문을 빼고 모두 불타버리는 참혹함을 겪었습니다. 전쟁 후 조선 선조 34년부터 재건을 시작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금산사의 큰 틀은 이때 조성된 것입니다.

금산사는 통일신라 말 진표율사에 의해 미륵불을 주불신앙으로 하는 법상종이 발현된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제는 무왕 때에 미륵사를 창건하는 등 미륵신앙을 주요 신앙으로 여겨온 전통이 있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기에는 백제의 미륵신앙이 오히려 중흥되었는데, 금산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찰이라 할 것입니다. 이곳 금산사는 보은 법주사, 금강산에 있었다는 발연사와 더불어 한국 미륵 3사로 불리는데,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으뜸 사찰입니다. 백제의 미륵신앙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미륵신앙의 절정, 미륵전

금산사의 미륵신앙은 3층의 미륵전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륵전은 금산사의 중심 전각으로 3층으로 이루어진 목조 건축물입니다. 내부는 통층으로 되어있어 흡사 1층인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각 층의 현판이 제각기 다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곳 미륵전을 참배하면서는 3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륵이 이 땅에 하생하여 3번의 설법으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미륵하생신앙에 근거하여 3존불 조성, 3층 건축물, 3회 설법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금산사의 미륵전 1층 현판은 대자보전으로 대자비를 말하는데, 이는 미륵을 자씨(慈氏)보살이라고 한데서 연유합니다. 2층은 용화지회(龍華之會)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화는 미륵의 국토이름이며 회는 법을 설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니 곧 미륵법회도량을 의미합니다. 3층은 미륵전으로 미륵불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륵하생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불상을 서 있는 모습(立佛)으로 만드는 특징을 지니기도 합니다. 입불상의 모습도 미륵하생신앙의 표현법으로 정형화되어 전해오고 있으니, 야외에 서있는 불상은 대부분이 미륵불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입상인 미륵불의 발아래 좌대는 돌에 연꽃문양을 새겨 만들거나 아예 만들지 않고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산사의 미륵불의 발아래는 철로 된 솥 모양이어서 아주 독특합니다. 택리지와 전설에 의하면, 미륵전이 있는 곳이 원래 연못이었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숯을 사용하였다 합니다. 숯 위에 돌로 된 연화대를 올리니 숯은 불(火)의 성격이라 돌(土)이 떠내려 가버려서 숯(火)의 성질을 감안해서 쇠(金)로 된 좌대를 올려서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전해옵니다.

원래 솥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신성한 물건이었으며, 고대왕권의 상징으로써 중국에서는 구정(九鼎)을 둘러싼 쟁탈전이 있었을 정도로 신성물 또는 절대권력의 상징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미륵불은 다른 부처님과 달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국토에 도래할 신성자입니다. 그렇기에 신권의 상징물인 솥을 조성해놓은 것도 단지 실용성만을 위한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주사와 논산 개태사에 전해지는 큰 무쇠솥도 이러한 배경에 연유한다면 미륵신앙지에 반드시 조성하는 또 하나의 신성물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미륵국토 염원하는 방등계단

금산사 경내의 송대(松臺)라고 불렸던 곳에 5층 석탑과 나란히 종모양의 부도가 있습니다. 꽤 넓은 2층 기단 위에 사각형의 돌이 놓이고 그 위에 탑과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각형(방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사리탑이 있어 방등 적멸보궁으로 불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를 받는 곳으로 사용된 곳이어서 방등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륵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계를 받는 곳이므로 혹자는 이곳을 미륵상생신앙의 증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륵님이 하생하는 이 국토에 태어나길 염원하는 의미로 계를 수지한다고 보면 미륵상생신앙으로 해설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미륵하생신앙으로 보는 것이 당시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의 맥과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진표율사가 당시 행했던 미륵하생신앙의 실천수행법인 점찰참회계법이었음을 생각해본다면 이 계단은 미륵하생신앙의 실질적인 수행법을 전했던 곳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미륵전과 방등계단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장전 용마루 위에 보주 흔적

대장전(大藏殿)이란 불경을 봉안해 놓은 전각을 말합니다. 전각 안에는 목판으로 된 인쇄용 경판이 있습니다. 진표율사가 미륵전을 중창할 당시 건립했다고 합니다. 지붕의 용마루 가운데 목탑 흔적인 복발과 보주가 남아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단층 목조 건축물에 복발과 보주를 남기는 경우는 아주 드문 예입니다. 영광 불갑사, 밀양 표충사에서 목탑 형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글 · 사진 한지유
한국생활문화연구소 소장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문화재 강사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한!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수제 카페트

◇ 원산 · 제조 : 한국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등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 삼베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中) (大)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1>

삼라만상은 본래 한가하다

학승이 물었다.

" '만법(萬法)은 본래 한가하다. 사람이 스스로 시끄럽게 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오면 죽는다."

問 萬法本閑而人自鬧 是什麼人語
師云 出來便死

여기서 만법(萬法)은 '모든 것' 으로 번역할 수 있다. 불교는 만물을 생성시키고 기르고 멸망하게 하는 것을 法(법칙)이라고 부른다. 근원에서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와 동시에 법(法)이 나와서 만물이 벌어졌다. 그래서 만물을 법, 즉 만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만법은 물질적인 것만 이르는 말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과 어떤 의미까지 다 포함해 만법이라고 지칭한다.

삼라만상 유정무정은 본래 한가하다. 본래 고요하다. 수많은 일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고요한 호수에서 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 세상이 시끄럽고, 슬프고, 복잡하고,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시끄러워서 그렇다. 정말 그렇다. 마음이 동요하고 있으면 시끄럽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항상 고요하다.

그런데 '만법이 본래 한가하다' 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 스승의 스승을 계속 추적해 가보면 결국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는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다. 만일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뭐라고 설명하면 그는 이미 죽어버린다. 설명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데 누가 감히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학승이 물었다.

"부처가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라는 말은 단견(斷見)입니다. 어떤 것이 부단견(不斷見)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問 不是佛不是物不是衆生 這箇是斷語 如何是不斷語
師云 天上天下唯我獨尊

단견은 부정적인 시각이다. 모든 것은 부정하는 견해이다. 그것은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것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단견이다. 그 반대, 그대는 부처이다. 저것은 물건이다. 그대는 중생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향수가 좋다. 짜다, 싱겁다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부단견이다.

불교는 단견과 부단견 양쪽을 주장하지 않는다. 양자(兩者)는 다 바른 견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는 양자를 주장하지 않는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조주 스님이 견해를 보였다. 바로 '천상천하 무여불' 하고 외친 것이다. 조주 선사는 어떤 사람이 단견을 주장하면 부단견을 보이고, 부단견을 주장하면 단견을 보여서 양자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모두 허망한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들이기 때문에 양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양자를 떠나면, 부처의 삶을 가게 된다. 그대에게 무엇이든 찾아오면 거부하지 않는다.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막지 않는다. 부귀의 삶도 거부하지 않는다. 가난한 삶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세를 맡겨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대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흘러간다. 이것이 부처의 삶이다.

부처의 삶은 양자에 집착 않는 것
성인과 범인이 없을 때 불국토 이뤄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의 원상(圓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어려서부터 출가한 이래 안화(眼花)를 본 적이 없어."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사람을 위하지 않으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원컨대 그대가 오랫동안 비로자나불의 원상 보기를 원하노라."

問 如何是毗盧圓相
師云 老僧 自小出家 不曾眼花
學云 和尚還爲人也無
師云 願你長見毗盧圓相

비로자나불은 삼신불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부처이다. 일명 법성신(法性身)으로 부르기도 한다. 실제 비로자나불은 전생에 수없이 수행해 우주의 근원인 법성과 같아진 부처이다. 원상은 부처의 뒤에 있는 둥근 일원상(一圓相)이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인자한 빛이 일원상이다.

안화(眼花)는 눈병이 났을 때 있지도 않는 꽃들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다. 실제 안화를 보려면 눈을 약간만 심하게 눌렀다 떼면 된다. 그러면 금방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안화를 보게 될 것이다. 안화는 사실이 아니다. 눈병이 났을 때 생긴 허망한 현상이다. 사람이 아직 깨어나지 않으면 원상이 보인다.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원상이 보일 리 없다. 다만 선사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중생을 위해 원상의 신비를 말해주면서 "그대가 반드시 눈을 떠서 부처님의 원상과 같은 자비한 빛을 내거라" 하고 독려할 뿐이다.

그런데 이 문답의 말미를 젊은 선사들이 본다면 반드시 지적 받아 마땅할 것이다. 100세가 넘은 조주 화상이 망령이 났다고 일갈을 할 만하다. 중생을 위해 해주는 말이 되레 중생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주 스님의 잘못을 알아챈 납자들에게 묻겠다. 말미를 뭐라고 해야 중생을 위하는 말이 되겠는가? 만일 본 납자라면 "나는 지금 사람을 위하고 있어" 하고 말할 것이다. 그 저의를 알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성인(聖人)과 범인(凡人)이 다 없어졌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원컨대 그대여, 대덕이 되어라. 노승은 불조의 장애나 되는 자이다."

問 凡聖俱盡時如何
願你作大德 老僧是障佛祖漢

여기서 범인(凡人)은 어리석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성인의 반대 개념이다. 불교는 양자(兩者)로 갈라진 것이 도리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반야심경〉과 〈신심명〉의 대표적 사상이 바로 상대적인 양변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과 범인이 없는 세상이 된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사악함과 어리석음이 없다면 지혜나 인자함은 따로 필요 없다. 범인과 성인이 없다면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만 남는다. 그렇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전쟁도 없고 따로 평화라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지상낙원이요, 불국토이다.

범성은 없어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돼야 한다. 방할과 격외구를 구사하는 선사는 필요 없다. 이미 옛 조사들이 꿈꾸던 세계가 건설된 것이다. 선사는 조사들의 뜻에 반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가장 큰 덕을 갖춘 사람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㉒
벽암록(碧巖錄)

공안 100칙 해설… 종문제일서

〈宗門第一書〉

〈벽암록〉 10권은 본래 〈불과원오선사벽암록(佛果圓悟禪師壁巖錄)〉으로 달리 〈벽암집(碧巖集)〉이라고도 불린다. 저자는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 및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이다.

송대 초기에 활동했던 운문종의 조사로서 설두중현의 자는 은지(隱之)이다. 그 법계는 운문문언 - 향림징원 - 지문광조 - 설두중현이다. 설두는 선장이면서도 시가 및 문장에 뛰어났다. 설두는 그의 나이 40세 무렵에 〈경덕전등록〉 30권에서 고인의 공안 100칙을 선별하고, 그 각각의 내용을 운문 형태로 표현해 〈설두송고(雪竇頌古)〉 100칙을 짓고, 이것을 그 제자 원진(遠塵)이 편집했다.



설두중현

설두가 입적한 11년 후에 사천성 성도에서 원오극근이 출생했다. 원오는 임제종의 제11세이면서 양기파의 제4세로서 〈설두송고〉를 애독해 고향이었던 사천의 성도, 호남의 협산, 상서의 도림 등의 세 곳에서 강독하면서 제자들의 구도심을 제고했다. 이후 호남 예주의 협산 영천원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제창하여 필록했는데 그가 주석했던 벽암(碧巖)이라는 당호의 이름을 따서 〈벽암록〉 혹은 〈벽암집〉이라 했다.

〈벽암록〉의 저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촉본(蜀本): 원오가 성도에서 제창하고 필록한 것으로 선화 7년(1125)에 무당(無党)이 붙인 서문이 있다. ② 복본(福本) : 협산에서 제창하고 필록한 것으로 건염 2년(1128)에 보조(普照)가 붙인 서문이 있다. ③ 일야본(一夜本) : 도림에서 제창하고 필록한 것인데 〈불과벽암파관격절(佛果壁巖破關擊節)〉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본이다. ④ 기타 촉본을 저본으로 하고 복본과 일야본을 참조해 중간(重刊)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포본으로 불린다.

〈벽암록〉 100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① 100가지 각각의 본칙에 원오극근이 붙인 수시(垂示) 혹은 시중(示衆) ② 설두중현이 찬술한 송고 100가지 고칙(古則) 혹은 본칙(本則) ③ 100가지 고칙에 설두 자신이 붙인 100가지 송(頌) ④ 100가지 본칙과 100가지 송의 각각 장구(章句)마다 원오극근이 붙인 착어(著語) ⑤ 100가지 본칙과 100가지 송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붙인 평창(評唱)

여기에서 ②와 ③의 부분은 설두중현의 기록에 해당하고, 기타 ①과 ④와 ⑤의 부분은 원오가 제창한 것이다. 곧 수시 혹은 시중은 각각의 본칙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대의로서 일종의 서문에 해당한다. 본칙 혹은 고칙은 〈경덕전등록〉에서 선별한 고인의 일화로서 〈벽암록〉의 중심내용이다. 송은 본칙의 내용을 문문시의 형태로 압축한 것으로 상징성이 뛰어나다. 착어는 각 문장과 구절마다 간략하게 붙인 촌주(寸註)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평창은 본칙과 송에 대해 자세한 배경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본칙과 송을 파악하기 위한 자세한 해설이다. 이와 같이 〈벽암록〉은 공안집의 성격을 지닌 책으로 제1칙 달마확연(達磨廓然)부터 제100칙 파릉취모(巴陵吹毛)까지 그 구조가 동일하다.

〈벽암록〉에 대해 특히 임제종 계통에서는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일컬어 질만큼 참선학도들에게는 중요하게 간주됐다. 공안집은 공안을 집대성한 책으로서 이후 이와 같은 구성과 특징을 지닌 형태가 지속적으로 출현됐다. 선문답의 집대성인 공안집은 점차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연지 찍고 곤지 찍으면서 정형화된 작품으로 만들어 갔다. 그것은 선문답을 깨침에 나아가는 수단 내지 도구화시켜 많은 선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은 이전의 어떤 선문답을 각각의 기준에 비추어 선별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붙이기도 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의 어떤 선문답을 본칙(本則) 혹은 고칙(古則)이라 한다. 그 고칙에 대해 편자가 자신의 견해를 게송으로 붙이기도 하고, 산문으로 붙이기도 한다. 고칙에 대해 게송으로 나타내는 것을 송(頌)이라 하는데 이 경우 고칙과 송을 합해 송고(頌古)라 한다. 곧 고칙에 송을 붙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칙에 대해 산문으로 나타내는 것을 염(拈)이라 하는데 이 경우 고칙과 염을 합해 염고(拈古)라 한다.

이 송고와 염고에 대해 후대인이 다시 주석을 가하기도 했다. 이 경우 송고나 염고에 대해 전체적인 의미를 송고나 염고 앞에 제시한 짤막한 산문을 시중(示衆) 혹은 수시(垂示)이라 한다. 그리고 송고나 염고의 각 어구마다 아주 짤막한 촌주를 붙였는데 이것을 착어(著語)라 한다. 송고나 염고를 들고 전체적으로 그에 얽힌 일화나 그에 관련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으로 풀어낸 것을 평창(評唱)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설두중현에게는 달리 〈설두염고(雪竇拈古)〉 100칙이 있다. 이에 대해 원오극근이 착어와 촌평을 가해 필록한 것이 소위 2권으로 구성된 〈불과원오격절록(佛果圓悟擊節錄)〉 100칙이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대 각 사
불교명상대학 2기생 모집

불교명상 위빠사나 전문수행처에서 참나를 찾는
처방전 금강경(저자직강)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자유인이 되십시오

❖ 입 학 식 : 2010년 12월 12일(일) 10:00
매주 화, 목요일 (12월 16일 첫강의)
오전반 : 오전 10:30 – 12:30
저녁반 : 오후 7:30 – 9:30
정 원 : 30명(선착순)
장 소 : 대각사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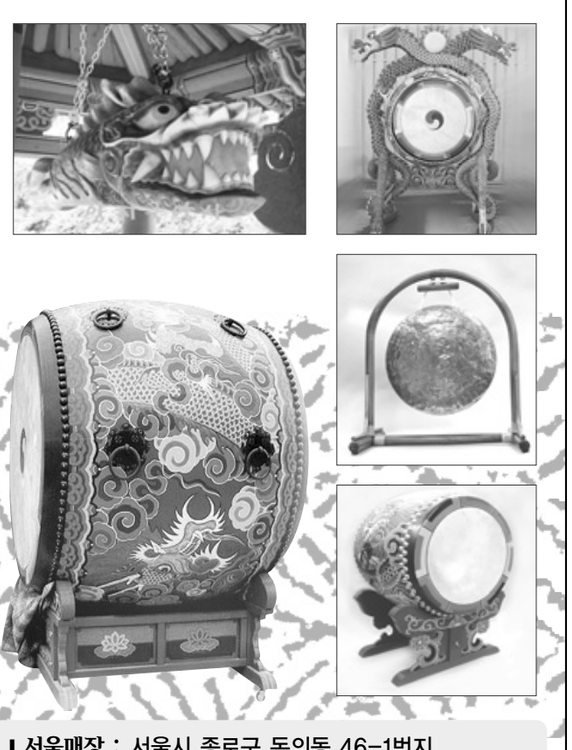
❖ 교 과 목
화요참선 : 위빠사나 참선, 마음챙김 요가
목요강좌 : 깨달음으로 가는 金剛經 (베스트셀러)
매주 첫 일요일 : 108참회순례 (3회)

❖ 등 록 비 : 100,000원 (3개월 과정)
입금계좌 : 농협 301-0055-8505-71 대각사

❖ 문의전화 : 053)6565-108
※ 등록자에 한해서 수행교재 교부함

大 覺 寺
불교명상대학장 합장
대구 남구 대명3동 336-1(앞산네거리 현충로역 3번출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길 열어두면 걸어갈 사람 온다

만기사 주지 원경 스님

‘박헌영의 아들’ 불편한 주목 받을수록 수행에 매진
뒷사람 공부하는 도량 만들고자 만기사 사격 ‘일신’

들판이 비었다. 창해(蒼海)같던 여름도, 금란가사(金襴袈裟)를 펼쳐 둔 것 같던 가을도 지나가 버리고 들판은 비었다. 빈들이 베풀어주는 황량감이 제행무상을 설법 하는 것이라면, 그 설법에서 얻어들을 진리 하나는 가슴에 채워야 할 터. 만추의 들길을 지나가며 객기(客氣)로 내뱉는 독백이 그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려, 들판이 비었으니 누군가의 곳간은 찼겠지….”

그렇게 심심풀이 망상을 즐기는 동안 어느새 차는 무봉산(舞鳳山) 자락으로 접어들었다. 한 20년 됐나? 그때 우연히 들렀던 만기사(萬奇寺)는 참으로 소박한 절이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567호)의 맵시가 하도 단아하여 자꾸만 쳐다보았던 기억이 새롭다.

야트막한 산일지라도 가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이제 겨울에게 자리를 비켜 주고 있다. 나뭇잎 바삭거리는 소리에 부처님 귀가 간지러울 것 같다.

“와, 이럴 수가….”

큰길에서 절 쪽으로 접어들자마자 웅장한 도량이 떡 버티고 섰다. 기억속의 만기사는 소담한 옛 절집일 뿐이었는데. 그 사이 얼마나 큰 원력으로 불사를 진행했는지 한 눈에 알 것 같았다. 누각형식으로 지어진 명부전 아래를 통해 안마당에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놀라야 했다. 오른쪽 구석에서 선홍빛 단풍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붉은 기운을 뿜어내고, 돌계단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대웅전은 세간에서 짊어지고 온 죄의 보따리와 함께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게 했다.

도둑질하러 온 사람처럼 조용히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 석가여래께 삼배를 올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휴~ 이것도 제행무상이려니….

법당에서 나오니 절집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앞마당 채소밭 가에서 엔진톱 소리가 들렸다. 두툼한 잠바를 입은 처사님들이 겨울땔감을 준비하는지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다가가도 모른 채 일만하는 처사님들. 아니, 그 뒤편에 스님 한 분이 쭈그리고 앉아서 전기톱을 움직이며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원경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스님 어디 계시는지요?”

“……”

“주지 스님을 뵈러 왔다니까요?”

엔진소리 때문에 질문이 안 들리는 듯해서 큰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말이 없던 스님이 천천히 일어섰다. 오래 앉아 있었던지 바지에 수북 묻은 톱밥을 털면서 “현대불교에서 오셨나? 에이그,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시는 게 아닌가? “아이고, 스님이시군요? 못 알아 뵈어 죄송합니다.” 몸 둘 바를 모른 채 인사를 드려도 먼 산만 바라보면서 “얼굴 봤으니 이제 돌아가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할 뿐이었다.

원경(圓鏡 · 70) 스님. 인천 용화사 조실 송담(松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지 50년이 된 원경 스님은 여주 신륵사 등 큰 절 주지도 역임했지만, ‘박헌영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주목 받았다. 그러나 수행자에게 그런 주목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고 불편한 만큼 자신을 더 철저한 수행자로 단련시키게 했다.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였으며 당대 최고의 공산주의 사상가였던 박헌영. 남로당을 창당했지만 남한에서 정착하지 못했고 북으로 올라가 조선노동당부위원장으로서 김일성과 어깨를 견주었지만 창창(蒼蒼)하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던 인물.

아직도 역사 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다분한 선친(先親)에 대한 원경 스님의 마음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그 하나의 이유가 남모를 눈물과 남다른 비장함으로 세상을 견디도록 했을 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혈연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을 참이었다. ‘돌아가라’던 스님이 다시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흰 강아지와 함께 졸졸 따라가니 “추운데 들어가라”며 무봉선원 맨 끝 방의 미닫이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스님은 장작을 한 소쿠리 가지고 들어와 방구석에 있는 나무난로에 불을 붙였다. 그다지 크지 않은 난로지만 보일러 기능이 있어 선원 건물 전체를 덥혀 준다고 했다.

천천히 걸어와 천천히 방문을 열어주고, 천천히 장작을 안고와 천천히 난로를 피우고, 천천히 다관을 씻어 와 천천히 차를 우려내고, 다시 천천히 찻잔을 내밀고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했다.

“나무가 아깝잖아. 요즘은 산마다 간벌한 것도 많고 불사하고 나온 폐목도 많으니 이렇게 나무를 때서 열을 얻는 거지. 물론 사람 사서 나무하고 어쩌고 하면 차라리 기름보일러가 타산이 맞지만, 절에서야 이렇게 나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폐목재 버리는 데도 다 돈이 들거든.”

물론 경제적인 타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한쪽에서는 나무가 썩어가고 한 쪽에선 비싼 기름을 태우는 부조리를 절집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일 게다. 먼저 불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터를 넓히고 다지기 위해 쏟아 부은 흙이 25톤 트럭으로 8000대나 된다고 했다.

“그래도 그게 다 한 가지 일입니다. 불보살님의 은혜 갚는 일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뜻이 모아지고 힘이 닿는 대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일주문 세우고 천왕문에 사천왕을 모시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일이란 게 시작을 하면 자꾸 커지게 마련이라서 망설이게 되고 인연이 더 익도록 기다리고 그러는 겁니다.”

은사인 송담 조실께서는 언제나 “참선 외에는 중생고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원경 스님은 “도량하나를 반듯하게 일궈 놓는 것도 내 몫에 벅찬 일이어서 계획한 불사는 다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달마대사의 ‘무공덕’ 화두를 설명하며 “그래도 길을 열고 안내하는 일은 누가해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절을 지어 놓고 선원을 만들어 두면 언젠가 어떤 인연으로든 이곳에 찾아와 정진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산속의 짐승들에게도 그들의 길이 있고 사람에게도 사람의 길이 있듯이 누군가 길을 열어 두면 반드시 그 길을 밟는 인연이 있을 것이기에 오늘의 만기사는 내일의 도량이 되는 겁니다.”

원경 스님은 잘 지어진 선원 건물의 지하방에서 기거한다.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굳이 지하방을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눈 푸른 운수들이 찾아와 성성하게 화두를 밝히고 정진할 도량을 지은 것이지 내가 편히 지낼 요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라 말하고는 천천히 책 한 권을 내밀었다. 두툼한 시집 한 권. 〈못다 부른 노래〉라는 제목의 이 시집은 지난여름 선친의 서거 55주기 기일(7월 19일)에 맞춰 출간한 원경 스님의 시집이다. 수행의 행간에 낙서를 하듯 써 두었던 글들을 모으니 500편 가까이 됐고 그 가운데 추리고 추려서 240여 편을 한 권에 묶었다. 스님이 스스로 자처한 일은 아니고, 황석영, 김지하, 이동순, 임헌영을 비롯한 문화계의 중진 원로들이 간행위원회를 꾸려서 뒷받침을 해 주어 성사된 불사다.

원경 스님은 이 시집의 서문을 대신하여 ‘나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성장기를 밝혔다. 등성등성 소개하면 이렇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며 혁명가인 이정(而丁) 박헌영이었으며 어머니는 정순년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난 나의 고달픈 운명은 미리 예견돼 있었다. 나는 백일이 안 되어 젖도 못

원경 스님은 …

1941년 충주에서 태어났다. 이정 박헌영의 아들로 태어나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어린 몸으로 견뎌야 했다. 10대 초반에 지리산에서 빨치산들과도 지냈고, 화엄사 청암사 등에서 행자생활을 하며 경전을 익혔다. 1960년 송담 스님을 은사로 정식 출가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이 수행자로서의 본분에만 몰두했다. 여주 신륵사 · 흥왕사(서래암) 등 주지를 역임했으며 1995년 이후 평택 만기사에서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의 건강지킴이! ‘휘나핫 반신욕기’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피가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칡.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호 발명의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다.

문의 : 02-875-0600
www.hwinahot.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뗀 채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비운아가 된 것이다. 〈중략〉 안개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는 아버지와의 만남은 6번 정도로 기억된다. 〈중략〉 한산 스님 손에 이끌려 열 살에 화엄사 주지 서동월 스님에게 가 머리를 깎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절과 처음 만나 청소를 하며 스님들 고무신도 닦아 주며 염불을 외우면서 살게 되었다. 또다시 한산 스님을 따라 연곡사로 가 잠시 머물다 피아골을 거쳐 지리산으로 올라가니 서울에서 아버지한테 놀러 갔을 때 보았던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현상 선생이었다. 〈중략〉 1953년까지 지리산에서 산사람들과 눈, 비, 바람을 이불삼아 무술과 행공을 연마하면서 모진 훈련 속에 나는 3년을 지냈는데, 이현상 선생이 '저 아이는 살리라' 고 한산 스님에게 부탁하여 스님은 나를 데리고 국군토벌대의 눈을 피해 지리산에서 하산하게 되었다. 한산 스님은 금릉 청암사로 나를 데리고 가서 4년간 강고봉 강백에게 사교까지 배우게 했다. 나는 새벽과 밤중엔 무술과 행공을 연마하면서 격동의 험한 시대를 살아오게 됐으며 그동안 사용한 이름만도 병삼, 유동, 세원, 현준, 일우, 명초, 성진, 혁, 원경 등을 더하여 14개의 이름을 쓰면서 살아오게 되었다. 〈중략〉 한산 스님은 송담 큰스님만이 너의 한 많은 생을 승화시켜 제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60년도에 송담 스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남다른 운명을 타고 태어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견뎌야 했던 아픔들이 담담하게 기록된 '나의 이야기'. 어쩌면 이 이야기는 원경 스님의 이야기이면서 아직 가족을 남과 북에 두고 가슴을 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못 다 부른 노래〉다.

"인생이란 게 누구나 그렇게, 못다 부르고 가는 노래 아니겠어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결코 간단하게 들리지 않았다. 스님의 삶을 이끌어준 한산 스님은 "저항적인 언구가 많으니 앞으로는 글 쓰는 것을 삼가라"며 스님이 시 쓰는 일을 못하게 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낙서하듯 메모하는 것을 좋아했고 백석의 시집을 품고 읽었던 스님이고 보면, 그렇게 말린다고 그만둘 일이 아니었다. 출가 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살 수 없는 여러 환경이 스스로 생각을 메모하고 한편한편 시로 정리해 나가도록 했을 것이다.

어디서 문학 이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를 통해 등단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이 삐쳐 나오듯 돋아나는 생각의 자투리들을 모으고 정제한 것이 스님의 수행이었던 것이다.

"수행의 과정에 건져 올린 생각들이니 이 시들이 곧 스님에게는 오도송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경 스님은 크게 손사래를 치며 '그저 낙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원경 스님의 시들은 '시(詩)'라는 한자어를 파자한 그대로다. 언어(言)의 도량(寺)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깨침의 편린들 말이다. 그래서 김지하 시인은 스님의 시집에 새로운 장르의 명칭을 붙여주었다.

"선재남류(善財南流) 직전 동자소(童子所)에서 문수사리가 동자, 동녀, 우바이, 우바새 오천에게 나누어준 화엄시집(華嚴詩集)"

'화엄시집'에서 시 한 편, '백일홍'을 함께 읽어보자.

남 먼저 살짝 핀 진달래꽃처럼
백일홍은 큰 인상이 없다 하리라
꽃 중의 꽃 목단 꽃처럼
백일홍은 화려하지 않고
너무 수수하다 하리라
그러나 봄에 피어 붉디붉고
긴 여름 한 철 붉디붉고
늦가을 찬 서리 바람
마지막 순간까지 붉디붉은 백일홍
너는 언제나 꽃이더라
나는 빌었네 꽃이라면
우리들 모두 백일홍이기를

글 · 사진=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만해용운(萬海龍雲1879-1944)③

이상과 현실에 걸림 없이 걷다

만해라는 대심(大心) 보살은 일찍이 〈유신론〉에서 불교의 이념적 지향점을 평등주의와 구세주의(救世主義)로 나눈 바 있다. 거기에서 구세주의를 설명하면서, "나는 마땅히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세계와 일체 악취(惡趣) 중에서 영원토록 일체의 고통을 받으리라.", "나는 마땅히 저 지옥 · 축생 · 염라왕의 처소에 이 몸으로써 인질을 삼아 모든 악취의 중생을 구속(救贖)하여 해탈을 얻게 하리라"는 〈화엄경〉의 구절을 인용해, 부처님 말씀이 한 게송도 구세의 일념에서 벗어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구세의 일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포교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곧, "조선불교가 유린된 원인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며,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승려는 불교의 세력을 키워 나도 구하고 나아가 중생을 제도함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길이 바로 '포교'이다"고 주장했다.



백담사의 만해 시 비.

오늘날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해의 승려취처론 역시 이 같은 포교의 중요성 강조라는 맥락에서 읽으면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다. 승려의 취처를 허용하자는 주장의 근거 넷 중에 두 가지를 각기 '포교'와 '교화'에 이롭지 못하다는 점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교와 교화를 통해서 세력을 키우고, 다시 그 세력이 자유를 보호하는 '신장(神將)'이 된다는, 〈유신론〉에 나타난 만해의 생각은 적자생존의 논리에 근거한 사회진화론적 사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다. 비록 적자생존의 논리에 기반하고는 있지만 불교의 지향점이 구세제민(救世濟民)에 있음을 끝끝내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은 1937년 '역경(譯經)의 급무(急務)'라는 논설에서도 초지일관 유지된다. 이 논설에서 만해는 "조선불교의 유신 이래 교육으로, 포교로, 기타 모든 방면으로 다소의 진보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역경에 있어서는 요요무문(寥寥無門)"이라 지적하면서, 조선의 낡은 불교가 그나마 명맥을 이었던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고대소설(古代小說)이고, 하나는 걸승(乞僧)이다.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 쓰여진 구소설(舊小說) 중에 불교신앙에 관련된 것이 태반인데, 압력 때문에 불교를 전할 수 없었던 불교도들이 고심참담 끝에 내놓은 포교방편이며, 덕분에 불교의 맥이 이어졌다는 것이 그 첫째이다. 둘째는 조선 승려의 걸식인데, 비록 그것이 청정걸식은 아니지만, 걸승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민가에 불교에 대한 관념이 이어졌고, 덕분에 염불이나 주문, 회심곡이라도 전해져 불교의 명맥을 잇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제시대보다 훨씬 더 압박받던 조선시대에도 한 가닥 숨길을 찾아 불교를 전도하길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고, 그 때에도 민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전도의 요체였다는 설명이다. 곧 역경을 통해 민중이 알아듣는 소리, 알아보는 문자로 전해야만 하는데, 아직도 한문으로 된 불전이 태반이라 구세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만해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救世)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승려로서 어느 누가 구세(救世)를 말하지 않겠는가마는, 그 구세를 실천하는 방법은 각기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해의 구세실천의 구체적 방법론은 포교를 통한 구세(救世), 그리고 그것의 효율적인 성취를 위한 포교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통치의 강압이 더해가던 시절, 불교계 내부의 좌절과 분열이 거듭되던 때, 집도 절도 없던 만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등지고 북향집을 짓는다. 심우장. 그 곳에서 만해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일제의 막바지, 이 민족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고만 있어야 했던 그는 봄날의 매화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스스로 돌이켜 묻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되새겨 묻는다.

"나는 왜 승이 되었나? 내가 태어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나를 승이 되지 아니치 못하게 하였던가. 또는 인간세계의 생사병고 같은 모든 괴로움이 나를 시켜 승방에 몰아넣고서 영생과 탈속을 속삭이게 하였던가. 대체 나는 왜 승이 되었나, 승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였나, 또 무엇을 얻었나, 그래서 인생과 사회와 시대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을 하여왔나."

우리도 이 말을 받아 곰곰 되새길 일이다. 우리는 왜 불자가 되었나? 시대를 새김질하지 못하면, 구세의 서원 또한 멀어질 것임에, 만해는 끝내 세상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현지사 소개 그 일곱번째 주제 - 관음태교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를 원하시나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인류의 사표가 될 성현을 원하시나요?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만현 큰스님

10개월의 태교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촉하신 관음태교법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방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 유대민족, 이들을 있게 한 하나의 소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못지않은 유대 어머니들의 자식사랑은 과학적 태아 교육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지극 정성은 영유아기를 거쳐 토라와 탈무드를 읽는 소년기의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태교를 포함한 유대의 체계적인 교육 전통이 인재의 보고(寶庫), 강한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칼 막스, 프로이드 등과 같은 세계적 석학들은 유대 나라와 같은 태교 문화권에서 성장한 인재들입니다.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도 유대의 모델을 차용한다면 지금의 한계를 넘어 선진국이 되어 세계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태교입니다. 이에 현지사 관음태교원에서는 기존의 태교와는 차원이 다른 '타력의 관음태교'를 통해 자녀 교육의 신기원을 열어 보이려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를 위하여 관세음보살님께 예배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일 딸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이니, 이들은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리라."

4년 전 깊은 삼매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정법명왕불)을 뵙고 이 경전상의 말씀이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고 말씀하시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관음태교를 널리 보급할 것을 여러차례 부촉(咐囑)하셨단 말입니다. 재능개발 위주의 기존 태교법에 비하여 관음태교법이 가지는 탁월한 차별점은 이 몸의 바탕이 되는 영혼체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 태아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타력태교라는 점입니다. 관음태교로 관세음보살님의 절대적 위신력을 입게 되어 영혼체가 깨끗이 씻어지게 되면 아이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직 육체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아이의 업으로 인해 불구가 될 운명마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병이 없이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외모가 반듯한 아이, 총명하고 복덕을 갖추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현의 성품을 타고 태어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의 동량이 되어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임신 전 태교'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관음태교를 시작하십시오. 이미 임신 중이라도 혹은 이미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헌신과 열정을 단 100분의 1만이라도 나누어 관음태교에 투자한다면 자녀의 성장기간 내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짧은 기간의 태교가 여러분 자녀의 평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예비 · 영유아 부모를 위한 "관음태교"
제1기 수강생 모집요강

2. 수강자격 : 관음태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남녀(특히 미혼 · 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
3. 교육기간 : 2010년 12월 5일(일) ~ 2011년 1월 9일(일) 6주간
4. 교육시간 : 일요일 3시간 강의
5.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내 영산불교대학(2층)
6. 원서접수 : 11월 1일부터 현지사 춘천본사 033) 243-1787 팩스 033) 243-4371
현지사 대전분원 042) 525-5325 팩스 042) 522-5326
현지사 부산분원 051) 554-5150 팩스 051) 556-5150
7. 강의 주제 및 강사 :

- 정 규 수 업 -

◆관세음보살 보문품 공부, 및 관음태교 실습 〈관음태교법 교재 제공〉
-도현스님, 남전스님
◆신불교 사상 (관세음보살님의 실존하심과 위대한 위신력을 포함)
-일도스님 (영산불교대학 교학처장)
◆관음태교 이론 (불교학과 태교과학의 조화)
-혜운법사 (영산불교대학 교수)

- 특 강 -

◆관음태교사례(관음태교로 아기를낳은 어머니들의 체험담)
◆교정원장 혜명스님 특강
◆덕산스님 특강(영산불교대학 학장, 전직 외교관,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으로부터 MBE훈장 받음)
◆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윤윤수(의학박사)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김병기(부산 동의대학교 생물학과교수)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원종식(대구 도솔천한의원 원장)
◆산모건강체조 -이영미(창원병원 재활치료 팀장)

◆ 문 의 : 현지사 대전분원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부설 관음태교원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번뇌가 여래의 씨앗이니 이곳이 바로 불국토”

제3강 ‘유마경’의 가르침 통광 스님

빛고을 광주에서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 중인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가 11월 10일 광주 KT정보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칠불암 회주 통광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유마경〉의 불이사상을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유마경〉은 원래 이름을 비말라키르티 수트라(Vimalakrti Sutra)라고 하며 〈반야경〉에 이어 나타난 초기 대승경전 중에 그 성립이 오래된 경전의 하나입니다. 〈유마경〉은 대장경의 방등부에 속합니다. 대승경전 가운데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전을 방등부에 놓습니다. 〈유마경〉은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금강경〉보다 차원이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유마경〉은 현존하는 범어 원본은 없으나 티베트, 한역 3본이 있고 이 가운데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유마힐(維摩詰)이란 비말라키르티의 음역으로서 바이샬리(비야리)의 부호 이름입니다. 그는 이 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재가의 신자로 불교의 정수를 체득하고,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불량한 자에게는 훈계를 주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가신자의 이상적인 인물이며, 이 유마힐을 모델로 하여 〈반야경〉에 서술된 공(空) 사상을 실천적으로 체득하려는 대승보살의 실천도를 강조하고, 세속에 있어서 불도를 실천하고 완성하게 됨을 설시(說示)하려는 것이 이 경의 내용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여 지느니라’는 말을 비롯해 종교적 영향이 많으며 특히 중국에서 널리 읽혔고 초기 선종에서 매우 중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유마경〉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유마경〉은 재가의 거사인 유마힐을 중심인물로 내세워 출가 중심주의의 형식적인 부파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진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세속에 있으면서도 대승의 보살도를 성취해 출가자와 동일한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마거사는 방편으로 병이 들었는데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설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갈 것을 명하였지만, 일찍이 유마거사로부터 힐난을 들은 적이 있는 제자들은 병문안 가는 것을 적극 사양했습니다. 유마거사는 비록 세속에 살고 있지만 대승의 가르침을 자각했기 때문에 쉽게 제자들과 보살들이 그를 상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명을 받아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유형의 상대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대화를 합니다. 유마거사는 기존의 출가중심의 불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비판,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마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마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현실의 국토가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불국토라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불국토라고 합니다.

둘째, 자비정신의 실천입니다. 문질품(問疾品)에서 “어리석음과 탐욕, 성내는 마음으로부터 내 병이 생겼습니다. 문수보살이 거사님의 병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어리석음과 탐욕, 성내는 마음으로부터 내 병이 생겼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병에 걸려 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만일 모든 중생들의 병이 나으면, 그 때 내 병도 나을 것입니다”라는 유마거사의 말은 중생과 고통을 함께하는 보살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에 쌓인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5무간죄, 지옥, 아귀, 축생의 3악도, 탐·진·치 3독에 몸을 던지면서 이에 속박됨이 없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셋째는 평등의 불이(不二)사상의 실천입니다. 출가·재가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 사상을 통해 절대 평등의 경지에 들어가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실상의 진리는 형상이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공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깨달음은 언어문자를 초월해서 있습니다.

넷째, 중생들에게 모두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유마거사는 현실의 인간이 비록 번뇌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체의 번뇌가 곧 여래의 종성이라고 하여 불법은 번뇌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존재는 차별적인 것이 아닌 평등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특징이자 〈유마경〉의 핵심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불이(不二), 둘이 아닌 도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고 현상계와 본체계가 둘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고,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둘이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칠불암 회주 통광 스님이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에 나서 〈유마경〉 강좌를 하고 있다. 통광 스님은 “유마거사는 출가 중심주의의 형식적인 부파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진의를 드러낸 보살”이라며 자기중심의 수행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생 교화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 진의 드러낸 경전
“세간을 버리고 따른 출세간을 찾지 말라”

〈유마경〉은 자기중심적인 수행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생 속에 뛰어들어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는데 그 본뜻이 들어 있습니다.

번뇌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

〈유마경〉에는 10대 제자 사리불존자가 유마거사에게 힐책을 당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사리불 존자에게 중도적 좌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유마힐에게 가서 문병하라 하니까, 사리불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내가 옛적에 숲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유마힐이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사리불이여 반드시 앉는 것만이 좌선이 아닙니다. 무릇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에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이 좌선이며, 일어나지 않고 모든 위의를 나타내는 것이 좌선이며, 도법을 버리지 않고 범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좌선이며, 마음을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밖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것이 좌선이며, 모든 견해에 동요가 되지 않고, 37조도품을 닦는 것 그것이 좌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입니다. 만일 능히 이와 같이 좌선하는 자만이 부처님이 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좌선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뭣고’ 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유마경〉에서는 좌선을 중도적 관점에서 제시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간화선을 위주로 수행을 하는데 간화선 지침서가 〈서장(書狀)〉이라는 책입니다. 〈서장〉에도 보면 선을 중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중창주이신 불일보조국사가 공부할 적에 마지막 깨침을 깨치는데 송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서장〉을 보다가 어느 구절을 보고 깨쳤습니다. 그 구절은 “선은 고요한데도 있지 않고 또한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일상 생활하는 인연처에도 있지 않고, 사량분별(思量分別)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과 인연에 응하는 곳과 사량분별하는 것을 버리지 말고 참구해야 한다. 참구해서 홀연히 눈이 열리면 비로소 우리가 일상생활 온갖 것들이 내 집안의 일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것도 〈유마경〉에서 사리불 존자가 유마거사에게 법문 들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늘 중도적인 이런 삶, 세간을 버리고 따로 출세간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훌라에게도 출가의 중도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난존자에게는 어떤 것을 불심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말하기를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가라하니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세존께서 몸에 조금 병이 있어서 병이 나으려면 우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난이 발우를 들고 대바라문에게 가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마거사가 말을 하기를 “어째서 이른 아침에 발우를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고 아난은 거사에게 답하기를 “세존께서 몸에 조금 병이 있어서 마땅히 우유를 써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우유 탁발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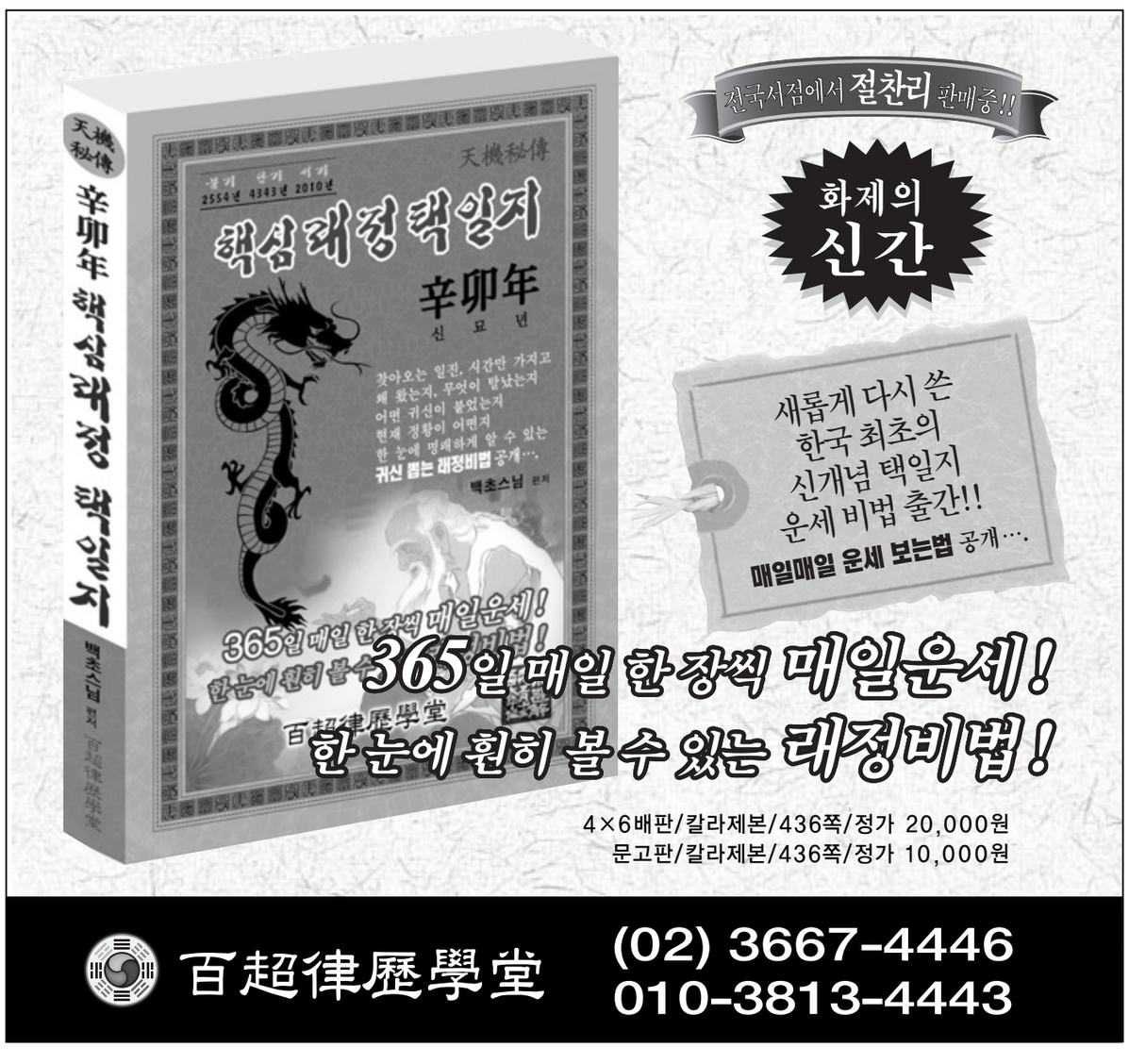
유마거사가 다시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아난존자여, 여래의 몸은 금강체라, 금강불괴심이라 모든 악을 끊고 온갖 선이 다 모여져 있는데 어찌 병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리하지 말고 어서 가십시오. 아난이여 여래를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추악한 말을 듣게 하지 말고 대위덕, 제천과 타방의 정토보살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선이 모였는데 어찌 병이 있겠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세상에 머물렀다가 떠났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금강불괴 이신데 생멸심이나 육안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유마거사의 어떤 것이 불이법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앉은 것, 그 경지에 들어가야 진짜 〈유마경〉의 종지를 알 수 있고, 유마의 본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道)는 언어도단言語道斷)하고 심행처멸(心行處滅)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행하는 길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으로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도단하고 심행처멸이라고 하는 것을 부사의(不思議)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말로 의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부사의입니다. 그리고 또 〈유마경〉 자체를 정명경이라고 하지만 부사의해탈경(不思議解脫經)이라고 합니다. 유마경의 대의를 잘 이해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빌면서 오늘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요절복통 여래네 집

#33. 유년일기②
〈아빠와 삐약이편〉



여래 아빠는 시골 태생으로 집에서 10분도 채 안걸리는 곳에 바다가 있었답니다,

그레서 동네에 수영못하는 애는 하나도 없었지.
우와. 좋았겠다.
엄마는 아직도 수영못하지?
왜 가만히 있는 엄마를 끌어들이고 그러니?

하지만 마을사람 대부분의 생업은 어업이 아닌 농업이었대요,

농번기엔 집안일을 거들라고 학교도 며칠씩 쉬었어.
그것도 좋았겠다.
좋았겠다.
좋기는, 공부도 지겹지만 집안일 거드는 것도 지겹긴 매일반이었어.
에그, 어디 저게 애들 앞에서 할소리야.
헉!
헉헉헉!!

오늘은 그랬던 아빠의 국민학교(그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불렀대요) 때 얘기입니다,

아, 심심해.
엄마, 아빠는 일나가고 할머니는 동생 데리고 마실가시고….

숙제도 다 했고 형아들도 오려면 아직 멀었고 뭐 재미난 일 없을까?
부엌에 가서 긁어놓은 누룽지 같은 거라도 없나 찾아봐야겠다.

부엌으로 발길을 옮기려던 아빠의 눈에 마당가에서 서성이는 병아리가 한마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웬 병아리지? 우리집엔 병아리가 없는데.
삐약 - 삐약
귀엽다. 삐약아 이리온.

아빠가 다가가자 병아리가 깜짝 놀라 달아났습니다,

놀라게 하려는게 아니었는데….
삐약 삐약
후다닥
어?

울타리의 벌어진 틈으로 해서 병아리가 닭장안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아빠는 당황했습니다,

안 돼! 거기는 사나운 수탉이 있단말야.
쏙!

아니나 다를까 사나운 수탉이 병아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어린 놈이 남의 집에 노크도 없이!
하지마, 하지마!
콧콕!!
삐약 삐약

아빠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말라니까!
꼭 꼭 꼭!!!
삐약 삐약

그러다가 병아리가 안으로 통하게 뚫어놓은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다닥!
쏙!
옳지, 이때다.

아빠는 재빨리 구멍을 막고 앉았어요,

꼬꼬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녀석도 더 이상 어떻게는 못하겠지?
옛날 시골 닭장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잠자는 곳
손톱로 모이 먹는곳
나도 몰랐네.
요즘엔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앉아 있다보니 졸음이 쏟아지지 뭐예요,

잠들면 안되는데….
꾸벅!
꾸벅!
쿨!

저녁시간에 맞춰 돌아온 할머니께서 잠들어 있는 아빠를 발견하곤 방으로 안아서 옮겼어요,

얘가 워쩌다 달구장에서 잠들었다?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졌네.
꼬꼬꼬~!
아이고, 왜 이렇게 가렵지?
간질 간질!!

할머니가 찬물로 씻겨주며 말했어요,

닭니 옮았나보다. 닭니는 그저 찬물로 씻는게 최고여.
싹-아!
박박!
으, 춰!
할머니, 그런데 병아리는 어떻게 됐어?
병아리라니? 글쎄….

옳아. 선재가 병아리를 지켜주려다 거기서 잠들었나 보구나.
그거 아래집 동식이가 지네집 병아리라고 데려갔다.

아빠는 병아리가 무사하다는 말에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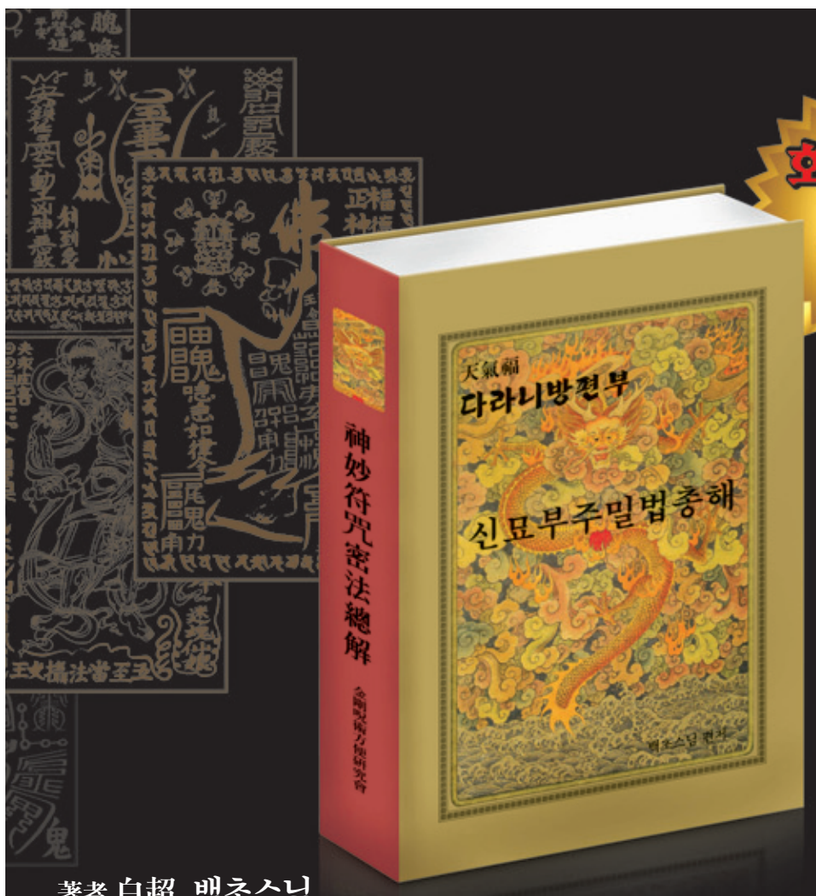
선재야. 선재야.
아웅, 누구야?
아, 삐약아.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과연 그럴까?
나야, 나 낮에 그 병아리.
하지마, 하지마….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안움직이지.
꼬꼬꼬!!!
삐약
쯧, 저녁에 윗몸일으키기를 그렇게 무리해서 기를 쓰고 하더니 악몽을 꾸나보군,
으으~

이주일의 화두

태어나서 변하고 쇠하는 것을 슬픔과 탄식이 생긴다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고뇌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죽음이라 한다

- 화엄경 -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3813-4443

심우도 통해 마음의 허상을 흔든다

임순례 감독 새 영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너 진짜 그렇게 괴로운 건지, 있지도 않은 기억을 만들어낸 건지 잘 들여다 봐!" 임순례 감독이 새 영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에서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일약 흥행 감독으로 떠오른 임순례 감독이 '심우도'를 바탕으로 한 신작영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을 들고 관객들을 찾았다. 김도연의 동명 소설인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을 토대로 그린 로드무비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선호(김영필)는 시인이 되기 위해 공모전에 참가하지만 결국 낙선한다. 영화는 선호가 아버지의 소(먹보)를 팔러 나왔다가 소와 여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무작정 소를 팔아 여행을 하겠다고 뛰쳐나온 선호지만, 터무니없는 소 값에 그마저 포기하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7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현수(공효진)에게 자신의 친구이기도 했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선우와 현수, 피터는 서로 친구였지만, 현수가 피터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헤어지고 만다.

선우는 아버지의 신고로 소도둑으로 몰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현수가 파출소에 있는 선호를 찾아오면서 우연히 선호와 소, 현수가 만나 여행을 하게 된다.

'심우도'의 첫 번째 장면인 소를 찾아가는 법은 그렇게 선호의 여행을 통해 그려진다. 소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워낭소리'와 달리 이 영화는 소가 등장할 뿐, 소에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는다. 소와 함께 여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룰 뿐이다.

가령 현수와 헤어진 선호는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서에 갇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수가 닭을 사 들고 찾아오는 장면이 있다. 현수가 선호에게 담담하게 묻는다. "너 진짜 그렇게 괴로워?"

선호는 닭고기를 뜯다 "이제 나타나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냐"라며 화를 낸다. 그런 선호에게 현수는 무심하게 "진짜 그렇게 괴로운 건지, 있지도 않은 기억을 네가 새삼 만들어낸 건지 잘 들여다 봐"라고 말한 뒤, 경찰서를 나선다.

이 장면은 사람이 느끼는 괴로움의 감정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허상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감독의 연출감각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그 장면에서 선우와 관객들은 견성(見性)으로 다가선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의미심장한 대사 외에도 임순례 감독이 연출한 멋진 풍경이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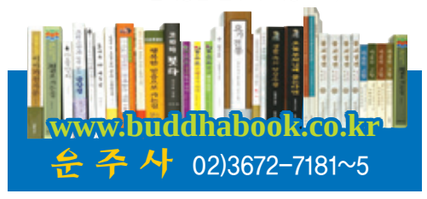
기존의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상업성을 지나치게 배제해 왔다면, 이번 임순례 감독의 신작은 불교의 사상 전달과 상업성 둘 다 충실하고자 했다. 하지만 불교를 모르는 관객들에게 선호와 현수의 로맨스는 자칫 지루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4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솔잎 사이 바람소리	무비 외	불교신문사
6	굿바이 티베트	M. 블루멘크론	하얀연꽃
7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8	붓다 브레인	릭 헨슨	불광출판사
9	불교성지순례(인도 · 네팔)	대연	이스트워드
10	법정 스님 선묵	법정	다래헌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화제의 책

산사에서 배우는 불교



주5일제 정착으로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찾는 장소 중에 하나가 전국의 명산과 산사다. 산사는 불보살님을 모시고 진리를 전하며 깨우침을 향해 정진하는 수행의 공간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산사를 방문하면서도 각종 조형물과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불자들에게도 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이 〈산사에서 배우는 불교〉를 펴냈다. 스님은 전국의 유명 사찰 108곳을 5000여 불자들과 함께 매월 순례를 다니면서 신행문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찰 구석구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신행의 굳건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 선묵 스님의 생각이다.

〈산사에서 배우는 불교〉는 산사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조형물, 장엄물, 의식구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산문 ▷전각 ▷불보살 조형물 ▷불화 ▷외형 장엄물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불교입문 교과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묵 스님은 "불교의 교리나 문화, 부처님 일대기, 경전의 내용을 바로 익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산사의 각종 조형물에 대한 설명과 그 속에 깃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선묵 혜자 지음 | 도서출판 연중 펴냄 | 2만5000원

박기범 기자

윤남진 리뷰

나는 어떨 때 불교인이 아닐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책의 제목이자 저자인 러셀(1872~1970)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저자)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의 독법이 진정 열린 지성의 활동에 기여하려면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적 차원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보편적 판별의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다."

러셀은 이것을 믿는다고 했다. 그 이유를 부연하자면, 최고조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기쁨과 타인의 행복을 비는 두 가지 마음의 결합이며, 이러한 사랑이 지성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방법을 찾아낼 목적으로 지식을 추구하게 이끌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윌슨(1929~). 개미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며, 사회적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생물학'을 주창한 미국의 생물학자이다. 그의 〈통섭〉 제11장에는 윤리와 종교에 관한 사회생물학적 연원들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는 종교가 윤리적 기초 위에서 형성되고 이런저런 '도덕적 코드들'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졌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그는 이타성의 기원을 집단유전학으로 설명하고, 종교적 황홀경 또한 신경생물학적 원천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분석철학자와 사회생물학자. 1930년과 1998년, 그러니까 68년의 시차를 두고 간행된 이 두 권의 책에 공통적으로 인용한 한 구절이 있다.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가 남겼다고 하는 "종교(신)은 두려움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말이다. 러셀은 두려움이 일종의 '안전'에 대한 갈망이라고 분석하면서 종교는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며, 고통은 죄를 씻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종교의 주장은 '자학의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인간은 죽음을 아는 유일한 개체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를 갈망할 수 있다. 윌슨은 삶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종교는 부족의 역사에 대한 신화적 서사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며 우주 속에 신과 영혼이 거주하는 다른 세계를 만들고, 부족주의를 통해 권능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러셀은 '불관용'이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생겨났다고 단언하며, 그 배경으로 유대인의 정의관과 유대신만 존재한다는 배타적인 믿음을 지목한다. 물론 이는 유대인을 이방인에게 흡수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부족을 지키고자하는 반발로서 생겨났을 터이다. 윌슨은 이런 경향을 '이방인 혐오증'이라 부르고, 이는 도덕적 행동에 대한 선천적(유전적) 성향이 가지는 어두운 일면으로 해석한다.

또한 러셀은 어떤 사람의 말 속에 절대적인 진리가 담겨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말을 해석하는 전문가 집단이 생겨나고, 이들이 어김없이 권력을 차지하며, 불변의 진리를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지적, 도덕적 진보의 반대자로 변해버린다고 비판한다. 윌슨은 예찬자 집단은 모든 영장류에서 그러하듯이 '카리스마 넘치는 수컷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들이 남성 형상을 한 신에게 접근할 특권이 부여되면 그들의 권력은 필연적으로 증대되고, 이들 집단이 종교조직으로 진화하면서 그 종교의 창시자들과 후계자들의 권위는 마침내 신성한 경전에 새겨진다고 설명한다.

러셀은 "종교는 죄와 벌이라는 낡고 험악한 교리 대신에 과학이 뒷받침된 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방해한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영생의 관념 따위는 생겨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반면 윌슨은 좀 더 신중하다. 윌슨은 종교가 자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학적 발견과 통합되는 방법, 경험적 지식에 모순되지 않는 도덕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맹목적 신앙은 충분하지 않다고 충고한다. 그러면서도 또한 윌슨은 사람들은 성스러운 이야기를 필요로 하며 지적으로 합리화된 더 큰 목적을 가져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적 절망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인류의 종교성에 대한 열린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이들의 훌륭한 독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러셀이 서문에서 피력하듯이, 우리가 한번쯤 진지하게 '(다른) 증거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증거에 입각해서 확신하는 습관, 증거가 확실히 보장하는 정도까지만 확신하는 습관'에 입각한 열린 지성인의 자세로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러셀의 질문을 거꾸로 해보자. "나는 어떨 때 불교인이 아니라 하게 될까?" 나는 아마도 현실 불교가 과학의 새로운 발견으로 자명해진 사실들의 도전에 합리적인 답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과학적 사실들을 타매하게 될 때, 불교와 불교조직을 세속적 욕망의 실현을 목적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지도자에 의해 변경의 여지없이 지배될 때, 지식과 이를 통한 지성의 계발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그래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 조류로 지속적으로 득세하고 신비주의를 조장함으로써 결국 '무지를 선동'할 때, 나는 현실 불교인이 아님을 선언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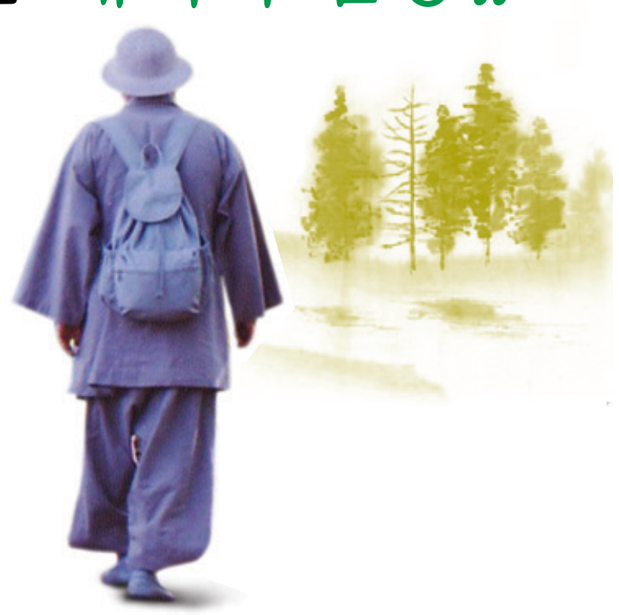
예리한 심리묘사 • 아름다운 문장 • 놓칠 수 없는 재미와 감동!!

스님이 쓴 바로 그 소설!!



길 상 지음

숲속의 문



울창한 숲, 마음으로의 깊고 향기로운 여행

우리 모두는 숲 속에서 문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였노라.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몸으로 감각을 느끼는 지각작용의 숲 속에서 문을 찾아 헤맸던 여행자였노라….' 나는 그 환영(幻影) 속에서 문을 찾아 숲 속에서 느껴지는 많은 풍경들을 모순이라고 느끼며 해결책을 찾아 헤매었다.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허깨비였는데 마치 악몽을 꾸듯 몽환(夢幻)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렸던나그네였노라!'

값 10,000원

길을 찾아 숲으로 떠난 외로운 수행자의 구도소설

사랑 · 자유 ·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길 · 당신의 길 · 우리의 길



출가 후 한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수행과 포교를 실천하고 현재 글을 쓰며 수원에서 도심 포교당을 열고 '삶이 곧 진리'라는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길상스님

도서출판 푸른향기 02-860-5663 www.bluebook.pe.kr

소를 다그쳐야겠는가, 수레를 다그쳐야겠는가?

☞1면에서 계속

하루 종일 좌선만 하는 마조도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남악회양이 기왓장(벽돌)을 갈았다는 바로 그 자리 마경대다. 반석은 2평 남짓한 크기로 10도쯤 경사가 졌다. 반석 끝은 낭떠러지다. 졸다가는 낭떠러지 저편으로 곤두박질칠 것만 같다. 회양은 마조의 고지식한 좌선을 안타깝고 한심하게 보았겠지만 마조의 입장에서는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현장을 보니 젊은 마조의 심정이 단박에 느껴진다. 비구름의 습기와 비안개에 젖은 반석은 미끄럽기조차 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치다.

그때 회양은 반야사(현 복엄사) 방장스님으로 많은 대중을 가르치고 있었고, 마조는 한주(漢州; 사천성 시방현) 나한사(羅漢寺)에서 장강을 타고 내려와 반야사 산내암자인 전법원(傳法院)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반석에는 조원(祖源)이란 글씨가 붉게 음각돼 있다. 조사의 근원, 혹은 조사선의 발원지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형산의 수행승이 새겼을 것이다. 중국의 선승들뿐만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온 순례자들의 눈에도 조원이란 의미는 각별하고 심장하다. 통일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무려 여덟 문이 아래와 같이 마조의 문하에서 흘러와 개창된 까닭이다.

△실상선문; 마조도일-서당지장-흥척(실상사) △동리선문; 마조도일-서당지장-혜철(태안사) △가지선문; 마조도일-서당지장-도의(보림사) △봉림선문; 마조도일-장경회휘-현립(봉림사) △성주선문; 마조도일-마곡보철-무염(성주사) △사자선문; 마조도일-남전보원-도윤(흥녕사) △사굴선문; 마조도일-염관제안-범일(굴산사) △희양선문; 마조도일-창주신감-도헌(봉암사)

더구나 화강암 반석에는 불을 일으키는 흰 빛깔의 부싯돌 두 줄기가 조(祖)자에 선명하게, 또 한 줄기가 원(源)자에 희미하게 드러나 있다. 마치 선풍을 일으키는 빛살이 중생계를 향해 뻗어 있는 느낌이다. 수불스님이 먼저 발견하고 상징 삼아 말씀하신다.

"가장 굵은 줄기는 마조선이 백장 스님에게서 황벽과 임제로 이어진 임제종 같고, 조금 가는 줄기는 서당 스님과 남전 스님으로 뻗어간 법맥 같고, 희미한 줄기는 백장 스님에게서 위산과 앙산으로 이어졌다가 쇠퇴한 위앙종 같습니다."

스님은 마경대로 내려서며 기운이 약동하는 곳이니 좋은 기운을 더 많이 느껴야 한다며 순례자들에게 한동안 머물다 가기를 권유한다. 광산업을 하여 광맥에 일가견이 있는 금천거사도 '규석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뿌리에 큰 규석덩어리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거든다. 마경대로 내려서 표지석 뒷면 비문을 보니 이른바 공안이 된 마전작경(磨?作鏡)의 사연이 새겨져 있다. 〈마조록〉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훗날의 순례자를 위해 우리말로 대략 옮겨본다.

〈상전(相傳: 대대로 전함)에 의하면 당나라 때 촉(蜀; 사천성)의 스님 도일이 남악에서 수행하였다. 그는 하루 종일 이 바위 위에서 좌선하고 경(經)을 외고 있었다. 그때 복엄사에 주석하던 회양이 이 광경을 보고 곧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종일 앉아서 무엇을 하는가."

도일이 말하였다.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회양이 바로 이끼 낀 기왓장 하나를 들고 와서는 좌선을 하고 있는 도일 옆에서 바위에 소리가 나게 간바, 이로써 그를 깨우쳐 주고자 하였다.

도일이 곧 물었다.

"도대체 기왓장을 갈아서 무엇하려하십니까."

회양이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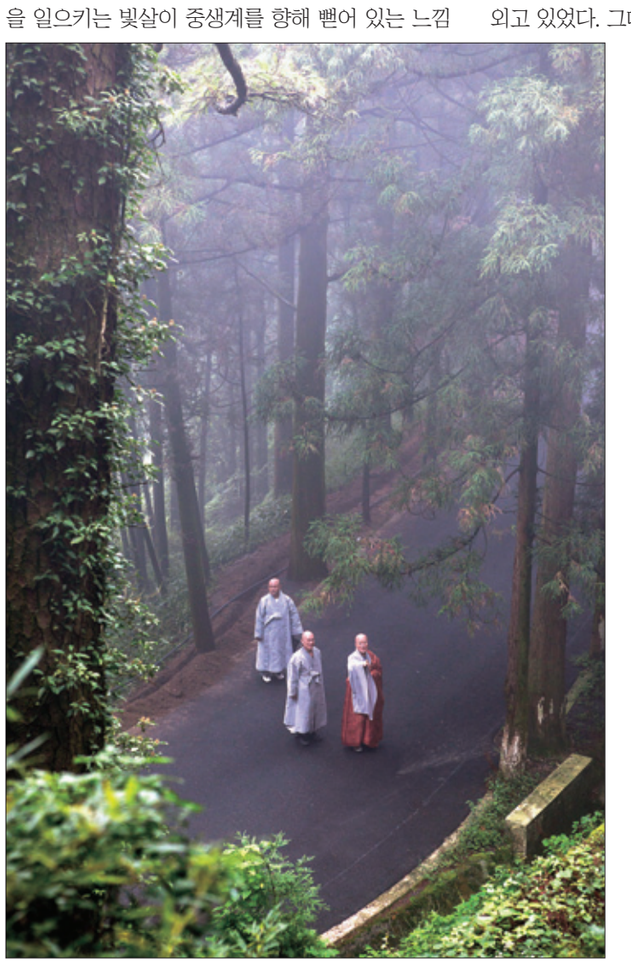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도일이 말하였다.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는데 좌선해서 어떻게 부처가 된다는 것인가?"

도일이 곧 깨닫고는 남악회양께 절하고 스승으로 모셨다. 이로부터 후인들이 이 바위를 가리켜 '마경대(磨鏡臺)'라 부르고, 바위 위쪽에 석두가 '조원(祖源)'이라 새겨서 회양을 기념하게 하였으며, 도일의 불법이 여기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스님들이 복엄사 가는 길에 비구름 속에서 마경대를 올려다보고 있다.

> "도일이 곧 물었다.
> "도대체 기왓장을 갈아서
> 무엇하려하십니까."
> 회양이 대답하였다.
>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 도일이 말하였다.
>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 거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마경대 반석에 조원(祖源)이란 글씨와 흰 부싯돌 줄기가 선명하다.

스님은 석두희천이 '조원'을 새겼다는 것은 신빙성이 약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남악에서 석두 스님의 위치가 어느 정돈데 직접 새기겠어요. 석두 스님은 마조 스님보다 연세도 아홉 살이나 많았어요. 석두 스님의 후손 중 누군가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입장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사선의 발원지라는 마경대가 너무 허술해요.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네요. 성역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국선원에서 일조하고 싶네요."

한편 비문에는 회양이 마조를 깨우치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회광반조의 장면이 빠져 있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소설이라면 앞부분만 있고 뒷부분이 없다. 〈마조록〉에서 뒷부분을 보충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일이 물었다.

"어찌해야 합니까."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만일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를 다그쳐야겠는가, 아니면 수레를 다그쳐야겠는가."

회양이 다시 말했다.

"그대가 지금 좌선을 익히고 있는 것인지, 좌불을 익히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혹시 좌선을 익히고 있는 중이라면, 선(禪)이란 결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며, 혹시 그대가 좌불을 익히고 있는 중이라면, 부처는 원래 정해진 형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머무르지 않는 법을 놓고 취사선택해서는 안 되네. 그대가 혹 좌불을 익히는 중이라면 그것은 곧 부처를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네. 보잘것없는 앉음새에 휘둘리게 되면 정작 깊은 이치에 이를 수가 없는 법이네."

도일은 환희심이 솟구쳤다. 그는 바로 회양에게 큰절을 올리고 나서 다시 물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무상삼매(無相三昧)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대가 지금 심지법문을 익히고 있는 것은 마치 그런데 마경대로 내려선 수불스님이 상상으로 접근할 수 밖에는 없는 〈마조록〉의 행간을 짚는다.

"마조 스님이 전법원에 머무는 동안 산책하면서 여기 바위에서 좌선도 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대중이 많은 데서 맨날 앉아 있어 봐야 방해만 되니까 산비탈 바위를 찾은 거지요. 반면에 회양 스님은 특이하게 생긴 마조 스님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놈이 뭐하는지 뒤따라 가보기도 했을 거구요. 그러다가 한번 방편을 뽑아 썼는데 그대로 꽂혀 가지고 깨달음에 들어간 거지요. 깨닫게 할 적에는 수단이 아주 격렬할 수도 있고, 순하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불지는 눈 밝은 사람이라야 아는 거지 눈 어두운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마조의 특이한 외모는 〈마조록〉에도 '생김이 예사롭지 않았다. 소처럼 느리게 걷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예리하였다. 혀가 코를 덮을 만큼 길었고, 발바닥에는 두 개의 바퀴 무늬가 있었다.'라고 나온다. 그런데 나는 자꾸 회양의 자애로운 성품이 마음에 와 닿는다. 마조를 깨우쳐 주기 위해 헌 기왓장을 들고서 저 바위에 갈아댄 방편이 눈물겨운 것이다. 그 순간 스승과 제자의 마음인 양 부싯돌과 기왓장이 부딪쳐 섬광이 일지 않았을까. 편견과 타성에 젖은 제자를 위해서 고함치거나 몽둥이질했을 법한데도 회양은 젊은 마조가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 없이 기왓장을 갈아댄 것이다. 자비의 화신이 아닐까도 싶다. 부모가 일찍이 온화하고 양보하기를 좋아한다 하여 그의 이름을 양(讓)이라고 지은 사실만 봐도 회양의 자비로움은 타고난 천품(天稟)인 것 같다. 옆에서 걷던 은암 김성부 시인이 〈마경대에서〉라는 즉흥시를 두런두런 읊조린다.

'마경대' 표지석, '조원'이 음각 된 암반 위
천년 세월 같은 안개비가 내리고 있다.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솔잎 날리는 바위를
손으로 쓸며 축융봉 산허리를 감고 청솔가지
흔들며 내리는 조사의 법음을 경건하게 듣는다.
마경대 오르는 길이 높고 험하였지만
옛 선사의 법석에 늦을 새라 서둘러 온 길,
남악회양선사의 묘탑을 참배하며 마음에
담았던 생생한 가르침 긴 세월 그 때 그대로
형산 숲 벼랑 끝 마경대 도량 지키고 있다.
이제 '남악마전의 기연'을 바라지는 말자
남악 형산 오르듯 간절히 선지식 찾아 깨달음
얻으면 '평상심이 도'임을 절로 알리니,
마경대에 무릎 꿇고 미련한 소 몰아칠 채찍
찾지 않아도 솔바람 불어 형산에 쉬 오르려니.

나에게도 기왓장을 갈아주는 내 마음의 스승 회양이 있는지 문득 상념에 잠겨본다. 어느새 마경대는 비구름 속에 멀어지고 있다. 회양이 방장으로 주석했던 복엄사가 바로 눈앞에 있다. 학인이 도를 묻자, 선사가 눈앞에 길이 있다고 일갈했다. (계속)

글 정찬주, 사진 유동영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 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③ 약쑥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④ 약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⑤ 밀납 PC컵 초 5.5ϕ×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ϕ×18cm

⑤

⑥
한밀납 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최연의 산 이야기 <33> 소백산 1



사람을 살린다는 소백산. 풍기쪽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사람을 살리는 소백산이여

소백산(小白山)은 남사고(南師古) 선생이 산을 향해 넙죽 엎드려 절하며 "저 산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라고 찬탄을 금치 못했던 명산으로서, 우리나라 명산 중에서 가장 온화하고 아름다운 기운(氣運)을 가졌다고 평했다.

소백산은 중턱 이상에는 바위가 거의 없는 육산(肉山)이다. 높은 곳에 바위가 없으니 산봉우리들은 생김새가 부드럽고 살기(殺氣)가 없다. 소백산은 양백(兩白)의 하나인 태백산(太白山)보다 100여m나 높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세는 훨씬 장엄하다.

백두대간 상의 소백산의 동북쪽 끝 봉우리인 신선봉에서부터 남서쪽 끝 봉우리인 도솔봉까지 주능선의 길이가 50여 리에 이르며, 갈라져 나온 작은 산줄기 사이로 형성된 골짜기들도 매우 길고 깊어 30여 리가 넘는 계곡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신산(神山)' 또는 '성산(聖山)'으로도 불리며 특별히 신성시 되어온 9신산(神山)이 있는데, 소백산을 비롯하여 묘향산,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치악산, 용문산이다. 이들 9신산은 모두 산봉우리 중에 '비로봉(毘盧峰)'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로(毘盧)는 진리 그 자체인 법신불(法身佛)을 의미하는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홉 개의 신성하고 성스러운 산들은 바로 부처님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듯 국토의 지명(地名)과 산봉우리에 부처님의 사상을 투영하는 불국토 사상(佛國土思想)의 한 단면은 소백산의 산봉우리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소백산의 연봉(連峰)들은 비로봉, 연화봉(蓮花峰), 도솔봉(兜率峰), 원적봉(圓寂峰) 등으로 그 이름부터가 부처님 세계임을 암시하고 있다.

비로봉에는 진리의 본체인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연화봉은 부처님이 앉아 계신 연화대좌(蓮花臺座)이고, 도솔봉은 도솔천 내원궁(內院宮)으로서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다. 원적봉은 삼라만상이 진리와 합일되는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이름이다.

다시 말해서 소백산은 '진리의 본체인 법신불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미래의 부처가 될 수행자들이 진리와 하나 되려고 수행을 하는 곳'인 것이다. 그런 연유인지 몰라도 소백산에는 불도(佛道)와 선도(仙道)의 많은 수행자들이 찾아 들었다.

화엄사상(華嚴思想)을 널리 전파한 의상대사(義湘大師)는 화엄사찰인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고 소백산과 태백산을 오가며 많은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래서인지 소백산 자락에는 유서 깊은 수행도량(修行道場)이 많다.

우리나라의 선도(仙道)는 크게 우도방과 좌도방으로 나누는데, 우도방은 단전호흡을 통해 우주의 참 기운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수련법으로 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좌도방은 특정한 주문을 외어서 정신을 집중시켜 우주의 진기(眞氣)와 합일에 이르고자 하였는데 주로 소백산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불가와 도가를 망라하여 참 삶의 길을 찾아서 완성된 삶에 이르고자 많은 수행자들이 찾아든 소백산은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산'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백산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중간 허리를 서남쪽으로 가로지르는 백두대간은 영남과 호서, 호남을 나누어 놓았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소백산은 삼국시대 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었고 한국전쟁 때도 많은 젊은이들이 스러져간 역사의 현장으로 '화합과 상생'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분수령으로 그 역할을 감내해야만 했던 민족의 한이 서린 비극의 산이기도 했다.

풍수학에서는 청룡과 백호의 양쪽 산줄기가 뾰족하게 뻗어나와 서로 겨누는 형상이면 형제간에 처절하게 싸운다고 하는데 소백산의 산세가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같은 산이라도 수행자들이 머물던 자리는 사뭇 다르다. 그곳에는 뾰족하고 험한 산줄기들은 보이지 않고 후덕하고 부드러운 산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줄기들은 '처절한 고통'과 '지순한 평화'의 두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산은 인간의 신산스러운 삶을 보듬어주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한줄기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에 고난이 닥친 사람들은 '산에 들어(입산)' 산사람이 되어 후일을 기약하는가 보다. 일본 강점기에도 학병을 피해 산에 든 젊은이들과 일제의 경찰에 쫓겨 소백산에 든 사회주의자들도 많았다. 그들은 소백산에 숨어 살면서 스승을 만나 선도의 수련을 했다고 한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그들 중 상당수가 큰 깨달음을 얻어 도력이 꽤나 높았다고 하는데 해방이 되자 대부분 산에서 내려와 월북을 하였다고 한다. 남한에 남은 이가 알려진 바로는 거의 없는데 천태종을 연 상월조사가 뛰어난 도력으로 소백산 아래 구인사를 개창하여 많은 중생들에게 감로의 법을 들려주었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봄을 바라보는 늦가을 풍경 넷

하나.

싹이 나와 땅에 찰싹 달라붙은 냉이를 아내가 캐어 국을 끓였다. 콩고물을 입혀서 된장을 풀어 끓여낸 국을 먹으며 봄을 생각한다. 냉이는 이미 겨울을 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납작 땅에 잎을 붙이고 뿌리는 밑으로 쭉 뻗었다.

어떤 추위가 와도 견딜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냉이의 갈색빛 감도는 푸르름에 담겨 있다. 무엇도 냉이의 저 단단한 각오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냉이의 기운은 겨울보다 차갑다.

둘.

심은 지 십여 일 지났을까? 밀싹이 흙을 뚫고 올라왔다. 뾰족뾰족 가느다란 푸르름이 하늘을 찌르며 발돋움을 시작했다. 밀을 심고 싶은 마음이 싹튼 지도 3, 4년 정도 된다. 바람에 일렁이는 밀을 보고 싶었다. 단 한 줌이라도 수확을 해서 직접 빻아 수제비라도 해먹고 싶었다. 하이얀 밀가루가 아닌 누르죽죽한 밀을 만나 그 맛을 보고 싶었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밀의 푸르름을 바라보면 왠지 더 살고 싶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작년에 밀씨를 얻어 심어 올해 수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심고 싶은데 씨앗 조금만 주지.' 주저없이 얘기한 것이 이 늦은 가을에 새싹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내년에 수확을 하게 된다면 밭 한 뙈기 정도는 밀밭으로 만들 씨앗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빈 밭을 바라보니 밀대의 푸르른 물결이 넘실거린다.

셋.

추위를 피해 방에 들여놓은 차나무에 꽃이 피었다. 머리를 숙여 바라보니 은은한 향내가 코를 간지른다. 여름을 거치면서 허연 꽃망울이 가지마다 방울방울 맺히더니 방에 들여놓은 며칠 뒤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노란 수술들이 고개 숙인 꽃 안에서 활짝 웃고 있지만 벌이나 나비는커녕 파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꽃을 바라보는 내가 허전하다.

3년 전이었던가? 차박물관에 가서 다기 구경도 하고 설명도 듣고 따라주는 차도 한 잔 마신 뒤, 행사를 했을 때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거라며 관장이 손바닥 만한 화분에 심겨진 차나무 한 그루를 건넸다. 좀 더 큰 화분에 옮겨 심고 작년 겨울을 방에서 보낸 뒤 올해 봄부터 쭉쭉 크더니 제법 나무다운 형태를 갖추었다. 갓난아기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됐다고 할까?

꽃은 조용한 가운데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진다. 외롭다고 해야 하나. 쓸쓸하다고 해야 하나. 꽃을 피운 나무에 그 어떤 곤충 한 마리도 날아들지 않으니 처량한 모습이다. 그런 중에도 피었던 꽃은 떨어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난다.

어쩌랴, 푸르뎅뎅한 잎은 냉냉하여 표정을 읽을 수 없고 활기 또한 느껴지지 않는다. 때와 장소를 잘못 만났으니, 꽃이 예쁜들 무슨 소용인가? 피고 또 핀들 무슨 소용인가? 다만, 조용하고 쓸쓸한 가운데 피고 지는 것이 너 뿐만이 아님을 생각할 뿐이다.

넷.

가을밤이 깊어갈수록 고라니의 울음소리가 붉게 다가온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나의 이불 속까지 파고들며 마음까지 흔든다. 어둠을 갈가리 찢는 한편, 더욱 깊은 어둠의 수렁 속으로 밤을 끌어들이며 고라니는 운다. 골짜기 깊은 곳에서 울다가 울다가 내가 사는 집 근처까지 와서 '케엑 캑 캐액' 울다가 집 앞 도로에까지 와서 울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며 울다가 다시 골짜기 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려가며 운다.

어둠까지 붉게 물들이며 온밤 내 울면서 산속을 헤매는 고라니 앞에 쌓이고 쌓인 어둠의 높이는 얼마쯤일까?

이윽고 제 짝을 찾았는지 오늘 밤은 고요하건만, 맞은편 산 어디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또 다른 울음소리가 있어, 가을은 여전히 겨울 너머를 훔쳐보며 머뭇머뭇 발을 옮기질 못한다.침을 맞을 줄 아는 새, 정녕 검다고 말할 수 있는 새.

시인

불교달력·불교용품·불교서적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 금지경전 세트 (3권+주머니) @25,000원(10세트이상)


가 경면주사금지 능엄신주 @7,000원(10권이상)


가 금강반야바라밀경 @1,500원(100권이상)


가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가 바림등(8cm) @3,000원(96개이상)


PVC 집게등표(100매) @20,000원


칼라등표(100매) @6,000원

가 반야심경 한문 탑사경 @150원(500장이상)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경전사경 제26호

가 한지 108사경 (4종) @14,000원(10권이상)


가 금강경 한문사경 @3,500원(50권이상)


가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가 금강경 독송용 @2,400원(50권이상)

※ 불교서적 법보시 기본 100권 인쇄시 20,000원이며 추가인쇄시 100권당 +10,000원 추가됩니다.


가 무연무취향(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


일반밀대(1Box 70개) @105,000원


파라핀양초(1.8ℓ 12병) @53,000원


가 주목 백팔주 @8,000원(20개이상)


가 불자수지독송(칼라) @500원(200부이상)


가 생일카드 @300원(1,000장이상)


가 금강경탑다라니 @150원(600장이상)


가 삼베삼재풀이 @600원(200개이상)

불교용품
- 침향, 주목, 염주, 염주주머니
- 양초, 향, 다포, 악세사리
- 4·8용품, 등표, 전선·전구
- 공단등, 바림등, 만월등, 청사초롱
- 봉축카드, 생일카드, 프린트지
- 예수재용품, 영가옷, 탑다라니
-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불교서적
-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 우리말사경책, 제브라붓펜
- 금지경전세트, 불자수첩, 병풍
- 금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 예불천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 백팔대참회문, 불설아미타경
-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 자비도량참법, 성불합시다

불교달력
- 국6절(大) (30.5×31.0cm)
- 12절 (25.8×26.5cm)
- 차걸이 (9.0×15.5cm)
- 미니 (8.9× 9.5cm)
- 다이어리 (9.5×13.4cm)
- 탁상 (26.2×19.0cm)
- 한지 (30.0×45.5cm)
- 행복으로 가는 길(18.1×20.0cm)

12절 1,000원 (1,000부 이상)


8호 관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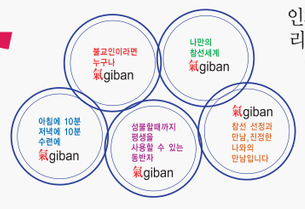

16호 부처님의 꽃


14호 반야동자

동진기획·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051)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범 음 범 패
실제위주 교육도량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 나비무, 명리풍수
각종 불공 행사전문
1학년 무료강의, 학인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예술원)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 분
입종을 환영합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약간의 금액을 시주하고 차후 도량을 물려받아 수행 정진 할
40~50대 스님이나 스님(행자)이 되실 분 모십니다.
010-4028-3622

스님 초빙
부산, 대구에서
열심히 할동하실 분
가정과 회사방문
기도 및 상담
대불정능엄신주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형편이 어려워 부처님을 못 모시는
스님, 불자님께 은행나무 목불,
지장보살님 좌대 포함, 넉자세치
좌측 도명존자, 우측무득 귀왕 세분,
고급 후불탱화 40평.
어려운 불자님께
조금만 받고 드리겠습니다.
010-3650-8481

암자 책임있게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청계산 자락
010-5354-8484
070)7769-84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남 녀 행 자
연락
바랍니다
043)258-328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11-9318-3230

공양주
모십니다
▷충북괴산 천년고찰
043)832-614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6433-6249

각종 불사 상담
(단청, 탱화, 개금, 신축)
불사를 먼저 하시고
대금은 나눠서
지불하세요.
문화재청 화공 기능 보유자
011-9387-1518

소 원 암
영을 확 통하게 하는
부적, 사업성취 소원 부적,
급매매 부적, 남녀 이성문제,
자녀문제, 이름 개명.
010-3754-0023

사찰 사무원,
공양주 구함
051)365-0524
051)365-05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보림사
02) 919-048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일광
011-553-0993

전통범패 배우면서
함께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마산
016-428-6665

공무원 36년 정년퇴직,
운전면허 1종 소지,
사찰근무 경력 3년.
신심으로
근무 하겠습니다.
011-716-5885

신기하고 묘한 인연
병원에 가도 치료는 안되
고 본인도이해가 안되며
고통의 시간만 보내는 분.
운명, 기도상담(오만원) : 주지스님
송파구 귀 보광사
017-337-0204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 40~65세이하, 보시금 최상
거제 사찰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7169-9878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東和임영재선생의 氣.수맥.풍수지리이야기

◆ 수맥. 풍수지리 상담 ◆
음택.양택.재혈.원격감정.
TV 다수출연.이론입증
◆ 공 개 강 좌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5~7시 참가비:10,000원
장소: 교대역 13번출구 뒤 스타벅스건물 7층
상담전화 1644~8457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한의원 사무실 051)802-0661 /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수 행 자 모 집
물질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신의 조화와
안정을 위한 선무도와 무극 봉술,
전통예술 (대금,단소,호적, 학춤 등..)을 연마하고
전통의식 (범패,바라무)을 배우면서
종합심신 수도도량을 같이 가꾸어 나갈 수행자를 모십니다.
동선사 주지 합장
010-9314-095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학력 : 아무 상관없음(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불교의식 및 사주(명리) 수강생 모집 [스님, 교임, 포교사]
11월 30일(화요일) 개강
■ 범패, 의식과정 (6개월)
• 불교의식강의 : 오후 4~6시 (화.토) • 사주강의 : 오후 6시30분~오후 8시30분(화. 토)
• 사물 다루는 것부터 바라, 작법까지
■ 사주(명리)과정 (6개월) - 사주 기초부터 전문분야까지
010-8678-6151 무불선원 일산 서구 대화동 하성프라자 701호

www.kyksb.co.kr
승복·전통복식 30년
김윤경승복·우리옷
● 30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가을 기획상품
면누비, 적삼 바지 ~~150,000원~~ → 80,000원
동 방 ~~105,000원~~ → 8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서울점 점주 1명 / 영업사원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불교대학 개교 기념
퇴마법(최면+기공+요가) 특강
강 사 : 퇴마사 종산스님
스님과 종무직 재가불자님들께는 퇴마법 강좌를 등록 하시면 나머지 강좌는 무료수강의 혜택을 드립니다.
◆ 3개월 수련 (주1회), 월 30만원 / 일시불 80만원 (수강일정은 변경 가능합니다)
◆ 개 강 : 수요반 11월 17일 3시 / 토요반 11월 20일 3시
◆ 장 소 : 을지로4가 국도호텔 맞은편 5층 관음사 덕성불교대학
을지로 4가역 1번출구 : 전철 2,5호선
을지로 3가역 7번출구 : 전철 2,3호선
* 수행공간 문제로 반별로 정원제한 예정입니다.
* 다른 강좌는 본 강좌에 맞추어 순차 개강 예정입니다
◆ 연락처 : 02)2285-3004, 070-8688-7762
011-271-7760
* 기업은행 : 018-117863-04-015 / 예금주 : 관음사 (선착순 접수합니다)

강 의 시 간 표

	오전반 (11~13시)	오후반 (15~17시)	저녁반 (19~21시)
월	주역점(서산스님)	의식초급(혜덕스님)	경전(혜덕스님)
화	육효(서산스님)	명리초급(신준철교수)	기문둔갑(신준철교수)
수	명반,일진법(서산스님)	퇴마(종산스님)	
목	명리초급(혜덕스님)	의식중급(혜덕스님)	사혈요법(혜덕스님)
금	타로(초빙교수)	성명학(교육원장)	전통침(자봉스님)
토	한문(무변스님)	퇴마(종산스님)	
일	타로(서산스님)	명리(서산스님)	육임(서산스님)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saju79.co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향림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168-1
● 법 명 : 보성 (승려번호 01-06)
보각 (승려번호 08-011)

위 사찰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한국미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규격 가로 7cm 70,000 / 규격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500,000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 031)677-995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55평
- 부지 : 8,000평
- 가액 : 9억 3천
  고찰(100년)터에 자리 잡은 전통양식 사찰

- 위치 : 경북(대도시
- 법당 : 60평 외 2동
- 요사 : 12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25억

- 위치 : 경남
- 법당 : 15(목)외 2동
- 요사 : 7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9억(조정가)
  유명관광지내 문화재 보유사 복지사업 뜻있는 분도적합함

※부동산 및 대리상담은 거절하며, 양수 희망자 직접상담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 송정 바다근처 토굴

- 대지 : 56평
- 법당 및 요사, 방3칸
- 해운대 10분거리, 송정바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 산세 최고
-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1억

부산시내 바다전망 좋은 절

- 대지 : 150평
- 법당(전통양식) 30평, 요사채 50평 2동
- 산신각, 용왕당, 아름다운 연못
- 앞: 바다, 뒤: 공원, 전망 최고
- 가액: 6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거창 토굴터, 1017평
- 가액 : 1억 2천만원 (대출 4,500만원)

011-9393-4965

사찰 또는 팬션 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자락
- 주변경관이 수려함
- 대지 : 372평
- ㅁ자 한옥 70평
- 사용할 수 있는 하천부지 350평(주차장부지로 적합)
- 가액: 12억

010-9226-6060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3억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
- 평수 : 323평
- 법당 16평, 요사채 46평, 산신각
- 탑, 전망 좋고 운치있는 곳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1억 6천

010-3500-087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340평
- 법당 목조 30평, 산신당 1동
- 요사 2층 건물 1동 각 30평
- 주차가능. 심야전기, 바다보임
- 보증금 2억. 월 67만원
- 전세가능 3억

010-6862-1250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당진군
- 대지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신도숙소, 창고, 차고
- 가액: 2억 5천만원

016-417-4744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군위
- 토지, 임야 638평
- 바로 등기됨
- 가액: 1800만원

011-9585-4908

포교원안내

- 위치 : 뒷산에 폭포가 있는
- 서울시내 사거리
- 상가 건물 3층중 3층
- 포교원으로 15년 자리한 60평
- 월세 62만원
- 시설비, 보증금 총 7천만원

011-496-6417

절(사찰)요양시설

복 지 시 설

- 경남 산청
- 농장, 약초재배단지 다용도
- 3만 5천평
- 가액:17억 5천만원

02)739-50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영주 제일고등학교 맞은편 산에 있는 금명사
- 방4개 주방.욕실.법당.산신각
- 전세가능 월세1년-백오십만원(1,500,000)

054)632-7513(저녁8시이후)
011-9370-75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이동저수지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삼성각 7평, 호신불 108불
- 주차 30대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215-9749

포교원 안내

-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정문 앞
- 3층상가 건물에 2층 법당
- 평수 50평. 방2,주방1,화장실,욕실
- 최고시설, 도심속에 최고위치좋음
- 가액 :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 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요사채 건물 이전해 가실분

- 목조 한옥건물(홍송)
- 60평
- 10년된 목조건물
- 가액은 답사후 절충결정

010-8731-27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7천 5백만원

011-848-245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평수 2층 40평 •방2, 공양간 별도
- 법당,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모셔져 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큰도로 접함, 지하철 5분거리 바로 앞 , 체육공원 및 버스정류장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36-5557/010-5534-7239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20평, 산신각5평, 요사채 10평,공양실15평
- 연못, 식물, 5층탑, 해태(2마리)
- 가액 : 9,500만원

011-9004-1492

터키산 최고급 카페트 **글 로 리 아**

2010년 신상품으로 정통유럽화실의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불자님의 가정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 고밀도 카페트를 만들기 위해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파일 원사의 두께를 가늘게 제작하여 터치감이 부드럽고, 초고밀도의 카페트로 이물질이나 미세먼지가 끼지 않아 청소가 용이합니다.

· 최고밀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탄력성과 원사 복원력이 뛰어나면 섬유와 섬유사이에 많은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 보온의 효과가 크고 열전도율이 낮아 에너지의 절약과 실내 습도조절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 소재 : 파일 Heatset P.P100%, 뒷면 - 마 100%
· 파일높이 (두께) : 약 9mm · 원산지 : 터키
· 규격 및 가격 : 200 x 290cm / **430,000원**
240 X 330cm / **560,000원**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인수하실분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지하철 3번출구 앞 (바로옆 롯데마트에 무료주차 가능)
- 평수 : 140평 (최상의 교통 및 시설을 자랑합니다)
- 전세 보증금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절충 및 운영방안 협의가능
- 모든시설완벽하며,즉시법회가능합니다
- 포교원 및 불교대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010-9230-3097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 시내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3천(조절가능)

011-595-15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시내
- 법당1(2층), 주방, 방1
- 옥상 사용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512-6368

사 찰 안 내

- 위치: 원주
- 대지 3,500평 • 건평 : 300평
- 법당, 요사채, 황토방
- 사회복지 요양원 가능
- 양도, 전세 가능
- 가액: 상담 후 절충

010-2003-394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50만원(조절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 교 원 운 영 하 실 분

- 부산 해운대신시가지
- 불교회관 2층 200평
- 전세 1억 월 200만원
- 시설은 3억, 시설비는 현장 답사후 의논 결정

011-9025-3234

사찰(급)안내

- 위치: 김해시 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큰스님 직
- 은행대출가능 4억가능 4억에 몽땅 인수

011-869-86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시내인접)
- 대지 약 265평
- 건물 2동, 공양실 별도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3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3-6676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상급 법당 총 7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부처님 5불과 시설완벽
- 현재 살림도 하고 있음
- 도시가스몸만 오시면 됩니다
- 주지스님 건강상 급 양도

010-6272-7842
010-4368-45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A급모든시설완비(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시내
- 법당1(2층), 주방, 방1
- 옥상 사용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512-6368

사 찰 안 내

- 위치: 원주
- 대지 3,500평 • 건평 : 300평
- 법당, 요사채, 황토방
- 사회복지 요양원 가능
- 양도, 전세 가능
- 가액: 상담 후 절충

010-2003-3944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달동 현대아파트 상가 50평
- 시설완벽 현장답사 후 의논결정
- 가액: 2억

011-9025-323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50만원(조절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 교 원 운 영 하 실 분

- 부산 해운대신시가지
- 불교회관 2층 200평
- 전세 1억 월 200만원
- 시설은 3억, 시설비는 현장 답사후 의논 결정

011-9025-3234

사찰(급)안내

- 위치: 김해시 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큰스님 직
- 은행대출가능 4억가능 4억에 몽땅 인수

011-869-86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시내인접)
- 대지 약 265평
- 건물 2동, 공양실 별도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3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3-667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주택 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천호시장 입구
- 6층중 4층 6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흙탱화
- 방3개, 주방, 세면장, 에어컨 2대, 전기보일러
- 시설비 3000만원(조절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함

010-9767-411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화명동 신도시A급
- 8층 중 6층 56평
- 법당 27평, 방2, 공양실1, 창고1, 세면실1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 이전 불사관계로 급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51)361-1868
010-9105-078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상가 주택 2층
- 전철 도보 10분거리
-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 스님, 보살님, 철학인 환영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00만원

010-5757-6306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달동 현대아파트 상가 50평
- 시설완벽 현장답사 후 의논결정
- 가액: 2억

011-9025-323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상가 주택 2층
- 전철 도보 10분거리
-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 스님, 보살님, 철학인 환영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00만원

010-5757-6306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2칸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1천 5백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5535-6487/053)522-6487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
- 대지 105평(텃밭 포함)
- 건평 200평(3층)
- 2층 법당, 주방, 거실, 방2 화장실 3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83-35호
- 평수:54평 (평당 300만원)
- 건물 25평(법당 1, 산신각1, 거실,주방,방2개)
- 시내 중심가에 위치. 깨끗함

011-436-928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 4층건물 중 3층 75평
- 1000/75 시3000 =합 4천만원 버스정류소앞 재래시장30M
- 대명5동 지하철역 30M
- 서울 포교원과도 맞교환원함

053)657-0151
010-2237-7631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 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3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김경현 원장의 **몸·마음 이야기** 장수를 위한 효도선물

생리의 조화 유지해야 무병장수

역(易)에 의하면 하늘이 만물을 낼 때 처음으로 물을 내고, 그 물 속에서 불이 나와서 나머지 오행이 갖춰져서 우주가 형체를 드러내게 됐다고 한다. 사람도 그와 같아서 인체의 원기는 물에 해당하는 신(腎)에서 비롯되고, 그 다음 심장의 불기운(火)에 의해 그 원기가 전신을 순환하여 생명활동이 온전함을 갖추게 된다. 신의 수가 굳건할 때 심의 화를 적절히 제어해 물기운은 위로 오르고 불기운은 아래로 순환하는 수승화강(水昇火降)의 상태 즉 건강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극히 허약해 신수가 부족하게 되면 심화는 아래로 순환하지 못하고 위로 치솟게 돼 온갖 부조화 현상이 초래된다. 물과 불의 부조화(水火未濟)가 만병의 근원인 셈이다. 아래는 차고 위는 뜨거우며, 심장은 무리하게 가동되는데도 전신의 순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맑은 정신과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온갖 화병과 순환기 장애, 그리고 성인병이라 말하는 대사이상과 수많은 기능성 장애와 기질적 질환이 드러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생리의 조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한다. 생리부조화의 단초를 잡기 위해서는 신수와 심화의 상태를 살피고 보강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원초적인 생명력을 더욱 보강해 질병의 치료와 아울러 근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처방된 약들이 역대의 장수를 위한 약들이다. 연령고본단, 경옥고, 공진단 등이 그 대표적인 처방들이다.

연령고본단은 '수명을 늘리고(延齡) 근본을 더욱 굳건히(固本) 하며 생명의 근본을 북돋우는 약'(丹)이란 뜻의 처방으로 이 단이란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아서 불로장생을 추구했던 도가의 처방정신이 담긴 약임을 알 수 있다. 인체의 30여 가지 근본원기를 북돋우고, 전신의 원활한 기의 순환을 돕는 약재로 이뤄진 이 처방은 만성피로와 아울러 골다공증, 면역력저하, 고혈압, 심장병 등의 노인성질환에 탁효를 보인다. 골다공증, 관절염, 신경통 등 뼈가 약해져서 오는 질병들에 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경옥고는 온갖 잡귀를 물리치는데 으뜸인 옥 같이 일체의 나쁜 기운을 쫓아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약이다. 〈동의보감〉에는 '생명의 원천인 정(精)을 채우고, 골수를 보(補)한다. 흰머리를 다시 검게 하며, 빠진 치아를 다시 나게 한다. 만신이 모두 갖춰져 모든 병이 물러나게 한다. 허약하여 일어나는 백 가지 병, 몸이 마르거나 안색이 좋지 않거나 중년에 양기가 떨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일, 부인이 자식이 없거나 몸이 차거나 손발이 떨리는 등 육체적 정신적 모든 병을 다스린다' 고 돼 있다.

연령고본단·경옥고·공진단 대표적 처방

경옥고는 생명의 원천인 수(水)기운을 돕고 피를 보하는 지황, 불순물을 제거하고 심(心)을 보하여 진정 안신시키는 복령, 원기를 채우고 폐를 보하며 기를 보하는 인삼, 비위를 돕고 전신의 기혈을 나게 하는 꿀 등 4가지 약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오장과 기혈을 골고루 보한다. '닭소리,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3일 낮밤 동안 약을 만들어 먼저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복용해야 한다' 는 다소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덧붙여 있다.

경옥고는 예부터 허약한 이들의 강장제로 특히 노인들의 대표적인 보약으로 애용돼 왔다. 보혈강심작용이 있어 빈혈이나 만성소모성질환, 피로 방지, 심장쇠약, 빈혈이 있는 이에게 특히나 추천할 만하다.

공진단(拱辰)은 '북극성이 하늘의 모든 별들을 껴안듯이 모든 약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약' '세월을 내 품안에 안듯이 노화를 방지하는 약' '천자의 덕화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 귀의하듯이 누구에게나 이로운 모든 약중에서 으뜸 되는 약' 이다. 불로장수를 바라며 신선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 최고로 치던 약이다.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타고 난 사람이라도 이 약을 복용하면, 이 약이 하늘이 내린 생명의 원천적인 기운(天元一氣)을 굳건하게 하여, 물을 오르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해(水昇火降) 백병이 생길 수 없게 한다' 는 설명이다. 기를 순환시키는 사향, 원기를 보하는 녹용, 피를 보하는 당귀, 호흡기를 좋게 하는 산수유가 기본 처방이다. 언제나 머리가 맑을 수 있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수승화강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약이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정미화 원장의 **건강한 구강 관리법**

3-3-3 칫솔질… 정기적으로 치석 제거



치주질환의 진행 과정. 왼쪽의 건강한 잇몸이 치은염, 초기 치주염을 거쳐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성인의 90%는 잇몸병 환자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면 진통제를 먹어 그 순간의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 또는 잇몸약을 상시적으로 복용함으로써 본인의 구강건강을 자신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잇몸약 광고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통제와 잇몸약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치주질환은 크게 잇몸, 즉 연조직에만 국한되는 경우인 치은염과 치아를 둘러싼 뼈까지 세균이 침투한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다.

치주질환의 원인으로는 국소적인 원인과 전신적인 원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국소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국소적인 원인은 구강 내 세균이 응집돼 형성되는 치태와 그것이 석회화된 치석으로 인한 경우이다. 전신적인 원인으로는 영양 결핍, 백혈병, 빈혈, 혈액장애, 당뇨, AIDS 등을 들 수 있다.

그럼 국소적인 원인인 치태란 무엇일까? 치태의 의학사전적 정의는 '이에 끼는 세균, 침, 점액물 따위로 이뤄진 젤라틴 모양의 퇴적(堆積)' 이다. 이러한 치태는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입을 행구는 것만으론 제거되지 않는다. 때문에 하루 3번, 밥 먹고 3분 안에, 3분 동안의 칫솔질이 중요하다.

치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치태가 석회화된 치석은 치아 면에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케일링 또는 치주 치료를 통해 제거하고 있다. 따라서 치태가 치석으로 되기 전에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치태와 치석은 상실된 치아가 수복하지 않거나, 입으로 숨을 쉬거나, 치열이 불규칙하거나, 교정 장치를 낀 경우 침착되기 쉽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심한 구취가 나는 경우, 잇몸 통증과 붓고 가라앉음이 자주 반복될 경우, 잇몸이 부어오르고 고름이 나는 경우, 이가 들뜬 느낌이나 혹은 이가 흔들릴 경우 등은 치주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치주질환을 방치할 경우 치아를 상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치주질환은 손쉬운 방법으로 일상적인 예방 활동이 가능하다. 바로 치태 조절과 치석 제거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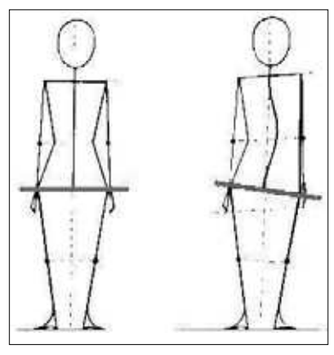
구강질환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진통제와 잇몸약 복용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구강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치과 진료와 병행한 적절한 약 복용이 구강건강의 바른 길이다.

연우치과 (02)733-1033



Dr. 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출산후 체형

이완된 골반 6개월 내 바로잡아야



좌: 정상적인 위치의 골반을 가진 체형, 우: 틀어진 골반으로 다리 길이 차이를 보이는 체형.

출산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호르몬 변화를 역으로 잘 이용하면 출산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아무리 날씬하던 여성이라도 임신을 하게 되면 체중이 15~30kg 늘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출산 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모유수유와 육아에 신경을 쓰느라 체중관리의 시기를 놓쳐, 체중이 회복되지 않고 증가된 상태를 유지하곤 합니다.

출산 당시, 아기가 태어날 때는 반드시 골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태아가 자궁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모체의 골반도 열려 휘어지게 됩니다. 태아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골반은 변형이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궁구가 부드러워져 치골 결합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기는 골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출산이 시작되면 아기는 모체의 등쪽으로 방향을 바꿔 배림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기는 치골에 걸리지 않도록 턱에 힘을 줘 치골을 통과하며, 옆쪽으로 천천히 어깨를 한쪽씩 내밀면서 단번에 빠져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골반은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인해 치골결합이 느슨해지고 골반이 열립니다. 또, 엉덩이뼈가 비뚤어지게 돼 골반 전체가 퍼지는 형태로 변형됩니다.

골반이 열린 상태로 몇 년을 보내면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거나, 골반이 퍼져있어 엉덩이 주위에 지방이 붙기 쉬워집니다. 또한 자세도 나빠짐과 동시에 처진 엉덩이와 굵은 허리의 원인이 됩니다.

출산 후 6개월 이후에는 리라키신 분비량이 저하해 골반이 안정되지만 6개월 전까지는 골반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골반이 비뚤어지면 엉덩이가 커질 뿐 아니라 어깨, 목, 다리 등 전신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골반이 비뚤어진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골반이 고정돼 이런 증상이 만성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퍼진 골반으로 내장 일부가 들어가 아랫배가 볼록 나와 버리거나 'ㅇ' 자형 다리로 변해버려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늘어난 골반으로 인해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골반 축소 프로그램을 권장합니다. 디스크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허리가 불편하고 체형이 비뚤다고 느끼면 대부분 골반이 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뒤뚱거리는 걸음, 변비, 복부비만 등도 골반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골반이 자리를 잡게 될 때 골반 벌어짐으로 인한 팔자걸음이도 고쳐야 합니다. 팔자걸음은 휜 다리, 다리 길이 차이 등 전신체형의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또한 출산 후, 모유수유와 아이를 안아주는 과정에서 머리를 앞으로 내민 자세를 취하게 돼 어깨가 굽게 됩니다. 이 또한 굽은 등, 일자 목, 허리가 휘는 등의 체형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 후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뚤어지게 되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척추를 비롯한 다른 뼈들도 함께 비뚤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갱년기에 뼈마디 곳곳이 쑤시고 저리기 쉬우므로, 산후에는 필히 약해졌던 몸을 체형 교정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1544-9697

불자정보 810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 2000여평
- 법당 :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건물 1동, 1층건물 3동(방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 13억
- 꼭 사실분만 전화 주세요

011-412-2464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북구 호계동 호계신시가지내
- 뒤편 아파트 5천세대 입주 예정인곳, 농서도서관옆
- 3층건물에 2층 • 평수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50만원
- 모든시설완벽, 즉시 법회 가능

010-6553-282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 대지 131평
- 건평 1,2,3(120평)
- 1층 공실, 2층 요사채, 3층 법당
- 심야보일러, 생활하기 편리함
- 가액: 4억 5천만원

055)221-3623
010-3578-53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 32번지
- 2층, 3층 합 60평
- 3층 법당, 2층 요사, 방3개, 식당 거실
- 인테리어-황토방 시설A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는 상담 후 결정

010-2461-1626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 4층건물의 3층, 50평
- 법당, 삼존불, 방2, 공양간
- 모든 시설완비,몸만 오시면 됨
- 시내 도로변 1, 2층 병원
- 유동인구 많음
- 답사 후 절충

010-8315-2100

사찰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포교원 안내
- 위치: 도봉구 쌍문동 경전철 3분 거리 우이천 바로 앞 도로변
- 법당 1, 마루, 화장실 거실 겸 주방
- 보증금 1800만원, 월 20만원
- 수리 깨끗

010-5470-1892

사 찰 안 내
- 양산지하철역 5분거리
- 아파트밀집지역, 뒷산공원
- 대지 84평
- 법당, 요사채, 마당
- 가액: 2억 5천만원(가격절충)

010-4183-2798

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양시내 중심지 안양역,명학역 도보10분
- 2층 50평(법당,주방,침실 등)
- 전세 : 5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3천만(시설비포함)
- 삼존불 외 시설완비

010-5495-467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대 사찰 안 내
- 위치: 부산
- 대웅전 108평, 무량수전 50평 외 강당, 요사
- 부대시설 현대식 완비
- 부지 3800평, 주차 동시 80대
- 가액 : 37억
- 가능자 면담

010-9580-3712

포교원 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 2층 총평수 90평
- 법당 30평, 방 6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시설완벽, 몸만 들어오시면 됨
- 주차완비

010-8837-4843

사 찰 안 내
- 위치: 광양시 다압면 도사 2구, 화개장터 10분거리
- 대지 1120평
- 법당 10평, 천불전12평
- 산신각 2평, 요사채 60평
- 가액: 3억

010-8600-0123

시내사찰안내
- 위치: 인천 동구 박문사거리 근방 전철 제물포역 도보 10분거리
- 대지 약 45평
- 1층 단독건물,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부엌
- 화장실, 도시가스, 거실, 상담실
- 투자가치성 있음 • 융자 6450만원
- 가액: 1억 9천만원

010-4517-3779

친환경 삼베타올 선물 SET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법보시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⑬ 석굴 조상기(造像記)


용문석굴 고양동. 고양동 불상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불감들은 80개에 달하는 조상기를 담고 있다.

511년에서 534년 사이 20여 년 동안 북위시대 용문석굴을 대표하는 굴들이 만들어진다. 북위시대 용문석굴의 발전은 불교문화가 완성되고 불교국가로 자리잡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용화세계 기원 미륵신앙 유행

북위의 집권자들이 초기부터 견지해 온, 도교와 불교를 같이 존중하던 도불병용정책은 낙양천도 이후 거의 무의미해진다. 이 시기에는 북위 상하계층 모두 불교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북위시대 신앙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증거는 조상기(造像記)라고 할 수 있다. 조상기는 석굴 조성의 동기나 공양문, 조성자의 이름, 조성된 년월 등을 담아 불상과 석굴에 기록한 것이다.

용문석굴의 조상기는 200여 종에 달한다. 이 중 고양동에는 80종의 조상기가 기록돼있다. 특히 이 시기 조상기에 나타나는 신분이 다양하다. 귀족에서부터 승려, 속인의 남녀 모두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당시 불교가 북위사회에서 얼마나 성행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황실과 관련된 일족들의 조상기다. 승려와 민간의 조성기도 있으나 왕실의 조상기를 살펴보는 것은 북위 불교를 극명히 알 수 있기 위함이다. 먼저 최초의 조상기로 알려진 장락왕(長樂王丘穆陵亮)의 조상기는 고양동에 위치하고 있다. 굴의 상단에 조성돼 있는데 장락왕과 장락왕의 부인 위지(尉遲)가 죽은 자식을 위해 미륵상을 조성해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생사의 경계를 벗어나 무애자재한 경지에 도달하거나, 삶이 주어진다면 천상의 모든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거나, 세상에 태어난다면 즐거움이 가득한 땅에, 고해에 들어온다면 해탈하여 삼악도를 끊어 모든 중생이 함께 복 받게 하소서'란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미륵상을 조성한 것은 단순한 극락왕생이 아닌 생사의 경계를 끊고, 현실을 바꾸고자 한 북위의 독특한 신앙 형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조상기는 북해왕(北海王)의 조상기다. 북해왕과 관련된 조상기가 많은데 북해왕이 용문석굴 조성 초기에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북해왕은 어머니와 일찍 죽은 아들을 위해 많은 석굴을 조성했다. 북해왕의 어머니인 태비(太妃)도 용문석굴에 죽은 손자를 위해 미륵상을 만들고 조상기를 새겼다. 법생(法生) 스님은 효문제와 북해왕 모자를 위해 석가모니불로 추정되는 불상을 새겼다. 504년 북해왕 사후 용문석굴 개착이 일시 중단된 점도 북해왕이 용문석굴 조성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광천왕(廣川王)과 관련된 조상기도 눈에 띈다. 광천왕의 조모가 죽은 남편을 위해 미륵상을 조성했으며 어린 손자를 위해 미륵상을 조성했다. 이 두 구의 미륵상은 503년과 504년 각각 조성됐다. 광천왕 태비를 위해 조성한 두 구의 석가상은 귀족들의 조상기와 함께 광천왕 태비의 조상기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광천왕 태비의 불상 조성에 귀족들이 함께 동참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다.

안정왕(安定王) 관련 조상기도 중요하다. 그의 죽은 친족을 위해 석가상 1구와 미륵상 1구를 조성하며 용화세계에서 만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특히 석가상을 조성하며 미륵 용화세계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는 것을 통해 당시 미륵왕생 신앙이 유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58

무문관 무금선원 (無今禪院)



"이곳은 대한불교조계종 무문관입니다. 지금 각 방에는 단기 3개월 장기 6년간 묵언으로 방문출입을 하지 않고 하루 일종식으로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그 어떤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으니 물음이 계신 분은 백담사 주지 스님을 찾아가십시오. 〈중략〉 대한불교조계종 무금선원 선원장 합장"

지난 해 11월이었다. 동안거 결제 하루 전날 백담사 무금선원. 법납 20년이 넘는 구참 스님들이 선방 문틈에 문풍지를 바르고 있었고, 선방 흑벽엔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겨울이 되어가는 설악산 골짜기로 산새소리가 날아들고, 방부를 들인 스님들은 문 없는 문을 닫아걸었다. 닫힌 선방 문 위엔 '무금'이라고 쓴 편액이 시계처럼 걸리고, 흐르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0도 정토일체제불상호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아미타불의 명호와 아미타경을 듣는 사람은 현세에서 모든 부처님의 수호를 받고 내세에서는 정토에 왕생해 깨달음에 이르는 불퇴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도상도 제14도에서 시작하여 제19도까지 이어지는 도상들과 비슷하다. 가장 많은 16위의 제불들이 첫째 열, 둘째 열에는 다섯 분의 부처님, 셋째 열에는 여섯 분의 부처님을 3열의 구조로 배치한 도상이다. 이 도상은 12번째 목판 원판의 끝부분에서 13번째의 목판 원판 후반부의 앞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리불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이 경을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경'이라고 하는가? 사리불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지니거나 여러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모두 부처님들이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되어, 아뇩다라삼먁삼보리(無上正等覺)에서 물러서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리불아, 그대들은 모두 내 말과 여러 부처님들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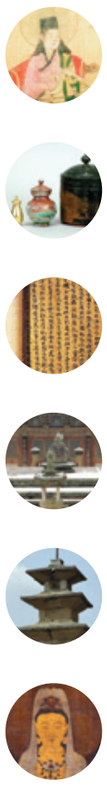
(舍利弗 於汝意云何 何故 名爲一切諸佛所護念經 舍利弗 若有善男子善女人 聞是經 受持者 及聞諸佛名者 是諸善男子善女人 皆爲一切諸佛之所護念 皆得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是故 舍利弗 汝等 皆當信受我語 及諸佛所說)

이제 우리는 자신 앞에 놓인 이득에만 연연해 내세의 문턱에서 한없이 후회하는 중생이 될 것이 아니다.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업연을 가엾이 여겨 한없는 자비로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내세의 문턱에서 아미타부처님의 영접을 받고 극락으로 왕생하는 불자들이 되어야겠다.

명나라 때 중국의 우익대사가 아미타경 요해를 통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면, 생각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항상 진리와 인연을 맺는 씨앗이 된다"고 칭명염불의 공덕을 설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일심으로 염불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고득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염불정진 할 때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0도: 정토일체제불상호장엄(淨土一切諸佛相好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한국불교의 최초를 찾아서

이것이 한국불교 최초!

불상, 불화, 탑 등 한국 불교문화 각각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44가지 이야기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한국불교의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게 한 교양서

우리의 불교문화 유산들 하나하나는 최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연을 품고 우리에게 선보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밝혀낸다.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책장을 넘기며 따라가다 보면 때론 1,70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때론 불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한 듯, 때론 오래된 기록물 더미에 묻힌 듯, 우리 불교문화의 발자취가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이다.





심정섭 저 | 신국판변형 | 392쪽 | 값 1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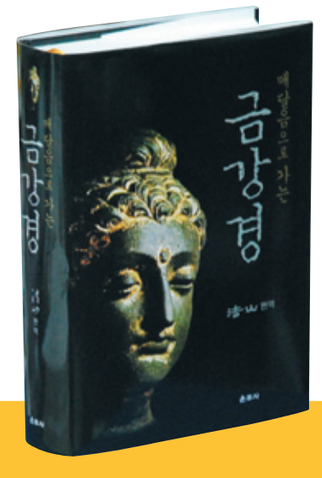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다양한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600여 컷의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올컬러 | 764쪽 | 값 38,000원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 주문 (02) 3672-7181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대행 스님

제 뿌리만이 모든 것을 흡수해서 제 나무를 살립니다

포항 지역의 여러분과 더불어 여기 간부 여러분, 비치호텔 사장님과 모든 분들이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원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애쓴 것이 애쓴 것이 아니라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한마음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장하시며) 감사합니다.

개원을 하고 오늘 점안식을 마쳤습니다. 점안식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지마는 내면의 진정한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큰스님네들께서는 점안식을 하실 때 귀를 뚫고 눈을 뚫어서, 찾아오는 모든 중생들에게 마음과 마음이 모두 통하고 전달이 되게 해서 이롭게 해 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모든 일체를 다 갖춘, 장엄하신 그런 부처님께서 점안을 하셔야지 만약에 내면과 통하지 못한 분들이 점안을 하면 사불(邪佛)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죠?

돌부처라도 그렇고, 예전에 그렇게 설하고 점안식을 한 모든 부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항상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말과 말로 전달을 해서 이익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저 가게에서 만들어 놓은 걸 사다 놓고선 점안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꼭 사불이 돼서 여러분한테 이익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복은 절대로 나한테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세계의 50%만 갖고 산다면 정신세계의 50%가 걸려서 영 여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맥만 있고 정맥이 없다면 돌아가지 않을 거고 정맥만 있고 동맥이 없다면 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살 수가 없죠. 안에서도 그렇듯이 바깥에서도 상대성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모두가 전부, 상대와 서로 말로 통하고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도 거저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잘 행하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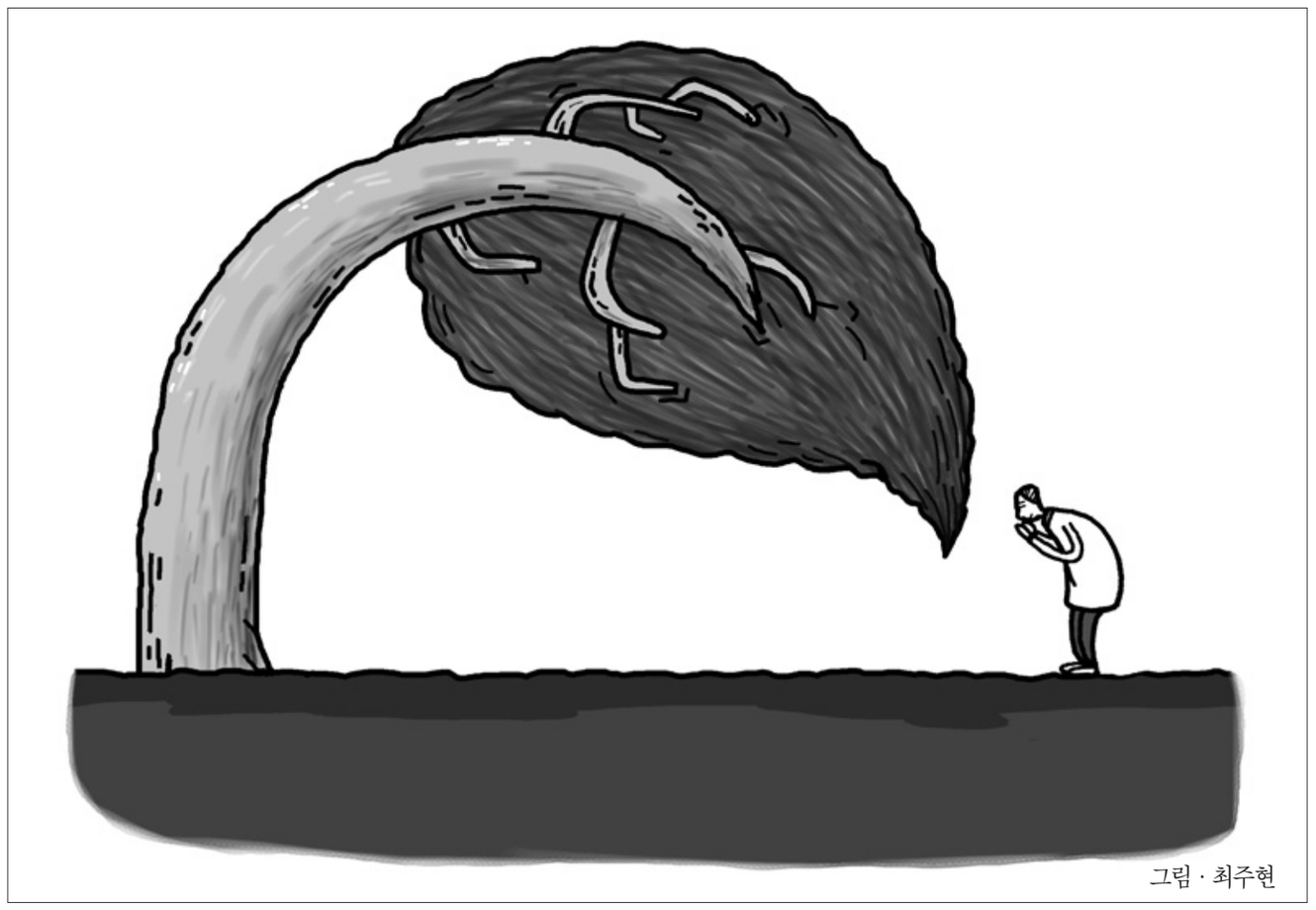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자기 뿌리입니다. 자기 몸은 나무와 같고 자기 뿌리는, 뿌리라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살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딴 뿌리, 딴 나무를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수분과 에너지를 달라고 해도 거기서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뿌리만이 흡수를 해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 아무리 시주를 하고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였다 하더라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양 무제더러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모두가 이 도리를 알고 행해야 나한테 공덕이 있고 이득이 있고 나의 마음이 발전하고 나의 창조력이 길러지고, 그래서 내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어떠한 문제라도 타파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천차만별의 각자 여러분이 모두 뿌리가 있듯이 또 청산에도 다 제각기…, 풀 한 포기라도 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뿌리만이 모든 것을 흡수해서 제 나무를 살립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죠.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몸이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거죠. 지수화풍으로 뭉쳐져서 지금 내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모두, 그 생명이, 모습이, 의식이 있습니다. 딴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 세균성 또는 생사윤회의 모든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고도 애고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자동적인 입력이 돼 가지고 현실에 그 입력이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한테 항상, 네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뿌리에다가 놓고 '네가 하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거기다 직접 직결해서 놔야 통신이 돼서 두뇌로 올라가서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하고 중뇌에서, 즉 결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통신이 되면 통신이 되는 대로 작용을 해 줍니다. 그 작용을 해 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통신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써 내 자생중생들을 다스려라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선장이기 때문에 다스려라 이 소립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별난 게 아닙니다. 좋게 생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고…,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생긴 거니까, 누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끼리끼리 만난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고 내 뿌리에 모든 것을 놓는데 '너한테서 모든 것이 나온 거니까 헌 물도 너만이 새 물로 바꿔 쓰게 할 수 있다.' 하고 돌려놓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멍으로 들고 한 구멍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내면의 한 구멍에다 넣고 한 구멍에서 베풀어진다. 넣고 꺼내는 건 한 구멍이지 두 구멍도 아니다 이런 소립니다.

포항의 여러분한테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은 여기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크면 큰 대로 담겨질 것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담겨질 것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으로 퍼줘 봤던들 자기 그릇이 작다면 담기질 않고 그릇 위로 모두 넘쳐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마디 할 것은, 산과 들과 물이 있습니다. 허공에는 공기가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과 따로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산만 하더라도 그렇고 들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딛고 다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뿌리에서, 즉 말하자면 철분이라든가 화분이라고 할까요? 화약기가 있는 분, 지기, 수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감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뿌리에서 합류화시켜서 모든 것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 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소인에 불과합니다. 대의적으로 원 근본에서 자아내서, 즉 샘물이 나오는 데서 샘물을 퍼 써야지 묵은 물에서 퍼 쓴다면 그거는 썩은 물을 먹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전호흡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 기를 빼내지 못해서 그냥 병이 나고 병

☞ 26면으로 계속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단청분야의 대혁신!!!
옻칠단청
천년보장 옻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옻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폴,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 ·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옻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맏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탱화,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나로부터 모두가 있는 것이니 나부터 알라

☞ 25면에서 계속

신이 되고 이러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물이 들고 나고 들고 나듯이 이렇게 해서 기를 조달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원래 근본 자리에서 나고 들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가 떨어지면 기를 넣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컴컴하면 스위치 올려서 전깃불 켜고 들어가듯이, 또는 꺼야 되겠다 하면 자동적으로 끄고 나가듯이, 끄고 나오고 켜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듯이 자유자재권을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산천초목 풀 한 포기라도, 전체를 총 합해서 에너지라고 한다면, 에너지와 수분 모든 거를 그 뿌리에서 흡수시켜서 나무 위로 올려보낸다 이 소립니다. 나무 위로 올려보내면 나무들은 우리와 똑같이 태양열과 공기를 흡수해서 또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어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집니다. 산천초목의 어떠한 풀 한 포기라도 우리한테 이익 되는 것을 조달하고 우리는 그네들한테 또 이익 되는 것을 조달합니다. 대변과 오줌, 모든 수분, 또는 이산화탄소 이런 거를 전폭적으로 다 줍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준다 안 준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또 공기를 흡수해서 저장했다가 다 우리들한테 또 공급합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벌어먹는 것만 알지 벌어먹기 위해서 어떤 것을 대비하고 어떤 것을 대치해야만이 모든 걸 타파해 나갈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불교라고 하면, 불(佛)은 모든 일체 생명을 말합니다. 교(敎)는 말로 전달이 되고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통신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이 전부 조달이 되는 것을 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느 종교라도 불교 안에 있지 불교가 어떠한 개별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불교라는 것은 천체적인 진리를 이름해서 붙인 겁니다. 이 세상에 불바퀴가 안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 불바퀴가 나한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뿌리 그 자체가 불바퀴니까 모든 걸 불바퀴에다가, 즉 말하자면 애고라든가 병고라든가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고 다시 환원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하고 무우만으로는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를 넣고 요리를 해서 맛있게 해서 먹습니다. 그와 같이 천차만별의 음식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듯이 관하는 법을 잘 알아 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라 이겁니다. 여직껏 요리를 해 보지 못해서 맛있게 먹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여기 스님네들한테도 물어봐서 요리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에서는 또 안 그렇습니까? 물에서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우리한테 공급을 합니까? 모습의 고기, 기름, 영양분, 약, 뭐 헤아릴 수 없이 우리한테 공급을 합니다. 우린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모두를 흡수해서 먹고 대변과 소변을, 또는 정신력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다가 바다에서는 태양열이 반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게도 바람이 일고 태풍이 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못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고자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밑에서 사는 고기들도 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까지 다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그렇게 물을 순환시켜야 살 수 있는 거죠. 태양열과 공기와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서로 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거는 어떠한 관계상 그렇게 되느냐.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달이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생물들 중에서도 곤충이나 벌레들은 촉각이 아주 잘 열려서 폭풍우가 올 것도 미리 알고 금방 금방 대처를 하는데, 그러는 것도 그 앞을 내다보고 생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인간은 촉각이 발달된 게 아니고 내다보고 가는 그런 예감과 모든, 즉 말하자면 촉각이니 시각이니 하는 여섯 가지 감각을 다 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로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주 깊게, 촉각보다도 더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내 뿌리를 믿는 데서, 거기에서 조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다 알고 앞날도, 현재 요 시간 너머도 거기서는 스스로 알게 하고 스스로 가게 하고 스스로 완화시키고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 몸과 정신이 둘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또 생각을 해내지 못한다면 목석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몸이 없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 **나의 마음의 안테나부터 세워 놔야 오고 가는 것을 다 통신할 수 있다**

그러니 머리 깎은 스님네들만 공부하는 불교가 아니라 전체가 다 불교죠. 여러분이 계시니까 불교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무슨 불교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 모셔 놓은 부처님의 형상을 믿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라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나로부터 모두가 있는 거니까 나부터 알아라. 나의 마음의 안테나부터 세워 놔야 오고 가는 것을 다 통신할 수 있다. 통해야 뭐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나로부터다. 내 주처는 나한테 있다. 나의 뿌리는 나한테 있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과 물과 산이 전부, 허공의 생명까지도 모두 한 손으로 그물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가 그물 하나 드는 거와 같다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지경에 빠져도 대치하는 것은 스스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손 없는 손이, 발 없는 발이, 즉 말하자면 내 마음의 주장자 없는 주장자가 다 하늘을 받치고 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이나 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상대를 믿고, 상대의 뿌리 이름을 찾고, 상대의 나무 이름을 찾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온통 야단들이니 뭐가 전달이 되고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공덕이 될 겁니까?

공덕이란 뭔가. 모두 한데 뭉쳐서 서로가 너 나가 없이 해 주는, 아픔을 서로가 알고 내 아픔도 둘이 아니게 위해 주는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공덕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시주를 했는데도 나한테 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복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덕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아주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덕하고 공덕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복덕은 잠시잠깐 그저 불 반짝 켜 주다가 꺼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공덕은 세세생생입니다.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세생생의 밝음을 언제라도…, '꺼진다 켜진다' 이런 도리가 아닌 밝음의 세계로 우리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돼야지 복덕을 찾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복이 복덕이죠.

즉 말하자면 내면의 자기 자성을 믿는 데에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자성으로 인해서 내 몸뚱이 나무가 살고 있구나! 자성의 뿌리로서 내 모든 것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먹는 게 혼자 먹는 건가? 내 몸뚱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나! 내가 일한 것도 혼자 했나?'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말하는 건 좋게 말하죠.

'내가 죽도록 애를 써서 벌었다.' 그러거든요. 아이, 참 내! 아니, 혼자 번 게 어디 있어요? 수십만의 생명들, 의식들, 모습들이 한데 작용을 해 줘서 자기 몸뚱이 하나가 움죽거려서 번 거지 혼자 번 게 어딨어요? 혼자 먹는 게 어딨고 혼자 듣는 게 어딨고, 혼자 만나는 게 어딨고 혼자 걸어가는 게 어딨습니까? 말씀들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내세울 건덕지가 있을까요? 내가 했다고 세워서 '아,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잘했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업이 많아.'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얼마나 과거에 잘못했으면 업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것도 없어요. 모두가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 반야심경 읽어서 아시죠? 반야심경이 천체, 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 팔만대장경이에요. 그것을 함축해서 거기다가 모두 한데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화엄경이니 금강경이니 반야경이니 어떤 경이든 막론해 놓고 무슨 공덕이라도 들어올 줄 알고 아침저녁으로 달달달달 글자로다가 그냥 외우죠? 그렇게 염불을 하지 않나 염(念)을 하지 않나 절을 하지 않나, 별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단시일 내의 복이지 세세생생에 벗어나는 공덕은 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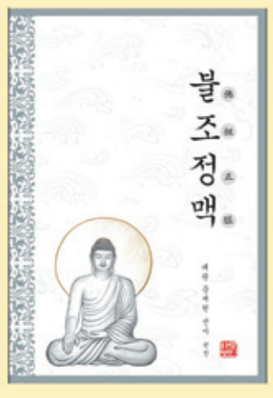
이 한 생을 살아나가는데 한 철 왔다가 가는 겁니다. 모습은 한 철이요 마음은 영원한 겁니다. 마음의 차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서 그 도리를 안다면 살고 죽는 것도 없고 그대로 영원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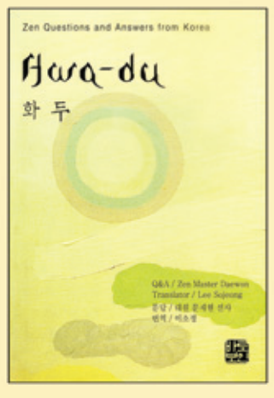
질문자1(남): 부산에서 왔습니다. 먼젓번에 안양에서 저의 집사람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마음 한번 내어 주십사 했는데, 1주일 전만 해도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만에 여기 포항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것 보세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조달이 돼 가지고 안에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 주게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전체 연결을 시켜서 하지는 못하거든요. 병고는 똑같지마는 병고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계의 50%를 모르고 현실 물질계의 50%만 알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게 많다 이런 문제가 되죠. 난 병 고치는 의사는 아니에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佛 불광승복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복 주문하시면 사찰로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1)승복일체
(2)손 누 비
(3)틀 누 비
(4)수 련 복
(5)소품일체 [향,모자,가방 등]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착복 구입하시면 착복가방을 무료로 드립니다
할인 티켓을 가져오시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틀 누 비
손 누 비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1-29 103호 한빛아크빌
02)383-3681 / 010-3879-3681 윤병대 합장
10% DC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4년분할상환
고객만족 초절전형 기능 맞춤형
농작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저온냉장 · 냉동고!!

▲1~20평 까지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주)한진산업 HP 011-673-262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종교의 본질 되살필 때

지도 사이트에 사찰정보가 누락된 건이나 조계종 총무원장을 검문하여 종교편향의 불씨를 당긴 것도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데도 G20 정상회의 장소 안내지도에 조계종의 핵심 사찰인 서울 봉은사가 누락되고, 사찰은 최근까지 일부 기독교 신자들의 예배를 하는 동영상으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봉은사 땅밟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있다. 자신들을 '찬양인도자학교' 소속이라고 밝힌 신자들은 봉은사 대웅전에서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은사 곳곳의 전경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기독교식 예배를 한 뒤에 "우리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보냈다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봉은사에 이어 동화사 등 에서도 땅밟기가 계속되고 KTX 울산역에서는 통도사 명칭 부기를 반대한 울산지역에서도 조직적인 사찰 땅밟기를 했다고 한다. 울산 한 교회의 블로그에는 울산지역 대표사찰인 조계종 정토사와 천태종 정광사, 신선산 보현사, 대현동 극락사의 '땅밟기 예배 사진'과 함께 사찰과 불자들을 '흑암세력'으로 비방하고, 자신들을 '영적군사'로 부르는 글이 올라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구시가 추진하던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도 사실상 백지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내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믿고 싶지 않은 여러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우리 문화의 보고인 사찰을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취지로 진행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역사문화공원조성 사업은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초조대장경 조성 사찰인 팔공산 부인사 인근에 조성키로 했다. 현존하는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외면하고 싶은지, 불교계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그간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표면과 이면이 있는 사회의 무수한 밸런스들은 여러 집적에 의해 유지된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갈등과 충돌이 파생되게 마련이다. 어쩌면 종교 갈등도 그 무수한 충돌의 파편에 불과한 것이다. 흔히들 소통이 막혔다고 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말이 막힌 것이 아니라 종교편향이라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이며, 그에 따라 불교계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 얼키고 설킨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 문제점이 종교 갈등으로 표면화된 것이 아닐까.

논란과 관련하여 기독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어느 목사는 '신자들이 땅을 밟으면 기독교 땅이 되는가'라며 한국 기독교는 80년대 중반 이후 정치권력과 접목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한다. 종교의 본질은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을 통해 타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사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가치 역시 존중되어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닌가. 이번 봉은사 땅 밟기 동영상으로 비롯된 일부 개신교 신도들의 그릇된 행동의 자제를 촉구한다. 불교계 내부도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대화와 종교적 담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종교편향과 차별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대책도 절실한 시점이다.

불교폄훼는 독단의 탓
내 것 중하면 남 것도 중해
달라도 다양성 존중하는
대화와 종교적 담론 절실



사부대중 칼럼

신병훤
대전 보문중 교법사

가을은 '버림'의 계절

주말에 시골에 다녀오다 길 옆의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감들을 보다가 무더운 여름을 틈타 무성하게 자란 가을 열매가 가까이 보고 싶어 차에서 내려 곁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 근처에는 수많은 이름 모를 풀들이 작은 알갱이 크기의 열매를 품고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새삼 자연의 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자연의 작은 변화는 인간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열려야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올까요? 가을에 풍성하게 열린 과일나무 아니면 길가에 이름없는 풀한포기의 알갱이 일까요?

우리 같은 세속의 인간들은 풍성한 과일 열매처럼 보다 큰 집, 돈 많이 주는 직장, 큰 돈, 주식 폭등, 좋은 대학 입학 등 모두들 풍성하고 화려한 과일이 열리기 만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못하거나 썩거나 태풍으로 떨어지면 대단히 실망하고 분개하여 나무를 잘라버리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도 안분지족을 모른 채 노력한 만큼의 대가나 희망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해 인생을 포기하거나 지나친 탐욕과 집착에 얽매어 문제가 됩니다.

〈처처경(處處經)〉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스님이 그 스승과 함께 길을 가다가 땅에 금덩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자 말없이 이를 주워 가졌다. 그리고 스승에게 '빨리 가십시다. 여기는 무인지경이라 매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니, 스승은 즉각 답하기를 '네가 금덩이를 가졌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이니 그 금덩이를 버려라. 그러면 다시는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스승의 말씀을 들은 사미는 금덩이를 버리고 나서 스승에게 절을 하고 '제가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금덩이를 버렸더니 정말로 무서운 생각이 안납니다'라고 말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 결국 지혜로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자신의 욕심대로 안 되면 스스로 화가 치밀어 얼굴부터 빨갛게 되어 주변의 친구 뿐만 아니라 선생님, 부모님에게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곤 합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은 안분지족을 모르고, 무조건 취하고 소유하려는 망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은 지나친 자기 욕심 때문 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지, 긍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풀 한포기의 작은 알갱이가 먹음직스런 과일 만큼 훌륭하듯이 말입니다.

갖고 싶은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은 욕심 내지 말고 그 즉시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사회마저도 부패시켜버립니다.

가을이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버림의 계절임도 알아야 합니다. 탐욕의 집착을 버리면 고통의 윤회를 벗어날 수 있고, 탐욕을 버리면 곧 도(道)를 얻고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가장 큰 적은 자신의 탐욕
갖고 싶은 것 노력해서
정당하게 취하고
버릴 것 욕심말아야

사 설

G20종교지도자대회가 주는 의미

11월 11~12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환율 등 경제 문제에 세계 각 나라들이 이합집산하며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보여준 G20정상회의의 한편에서는 세계종교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지구촌 평화를 위한 G20 세계종교지도자회의'를 열었다.

본대회에 앞선 10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힌두교 등 세계종교지도자들은 철원 DMZ를 방문해 이념으로 갈라진 분단 한국의 치유와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11일에는 동국대 정각원에서, 12일에는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영적 포럼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틀에 걸친 포럼을 마친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더 포괄적인 정책으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 평등한 혜택을 주는 것 △경제발전을 이끌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 △"한정된 지구 안에서 무한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단호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질과 영혼의 성장에 균형을 맞추고, 안과 밖이 고루 발전하는 것이 인류의 올바른 진화라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참다운 삶의 길은 물질과 영혼, 겉과 속, 나와 너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종교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으뜸의 가르침이며, 독실한 종교인들은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한 간곡한 삶을 살고 있다. 가르침이 부족해서 종교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들 삶을 성찰하고 공동선언문을 나아갈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선원청규는 불교 바로세우는 시작이다

청규란 대중생활을 화합으로 영위하며 불도를 이루기 위한 몸과 마음가짐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규칙이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말로 널리 알려진 백장청규는 청규의 근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6년여의 작업을 거쳐 〈선원청규〉를 발간했다. 11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법전 대종사는 봉정법회에 법어를 내려, "정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고 악을 막는 묘리"라며 청규의 의미를 강조하고 "선원청규는 서래의(西來意)의 당간(幢竿)을 영원토록 펄럭이게 할 지남이 될지니 수행대중은 이에 수순하며 위법망구할지어다"고 당부했다.

예나 지금이나 청규가 없지 않았다. 규율이 없어 승풍이 흐트러진 것이 분명 아니다. 소임에 주어진 권한을 수행과 포교를 위해 뒷바라지하기보다는 권세를 부리는 일에 쓰인 풍토가 고질화됐고, 이해관계에 얽혀 끼리끼리 무리지어 안하무인하는 풍조와 이를 바라보는 무력감이 합쳐져 청정가풍은 무너졌다는 한탄이 있은 지 오래다.

선원청규를 펴냄으로써 한국불교는 일상생활을 일대 쇄신할 절호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는 대작불사의 시작을 알린 범종소리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선원청규〉의 정착을 위해 '전국선원 선원청규 실천협의회'를 만들기로 하는 등 실천방안도 마련했다. 새 조계종의 모습으로 회향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않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 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성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현오스님"이나 "성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성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안타는 제품입니다.

옻가네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혈액순환 장애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절대! 옻이 타지않는 (오르지 않는) 토종참옻으로 건강을 지키자!

'흰쌀밥에 쇠고깃국'을 최고의 밥상으로 생각했던 보릿고개 시절, 그때는 지금처럼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병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부족, 공해 등으로 혈액순환의 장애를 가져와 여러가지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꾸준히 순환하며 몸에 필요한 물질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몸밖으로 배출하는 대사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혈액이 나빠지면 대사기능이 떨어져 세포조직에 영양공급이 잘 안되고, 몸안에 나쁜 독성물질이 쌓여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신지식인대상
산림청 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참옻 국내 최초개발자 池 龍 禹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 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혈액순환장애가 일어난다. 혈액순환의 원활하게 잘 되면 우리 몸은 암이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옻닭" 무더위로 지친 여름이면 즐겨 찾는 우리들의 전통보양식품

옻닭요리는 우리의 전통요리로서 중년이상이 즐겨 애용하는 식품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옻요리가 몸에 좋은 것은 알고 있으나 옻 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은 국내 연구진이 3년동안 연구개발하여 식약청에서 안정성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증명되었고,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정 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옻닭요리**입니다.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특허청 2단발효특허 제 10-0484853 호 옻안타는 참옻제조방법 10-2008-0040013 참옻을 이용한 숙취해소음료 10-2008-0040014 무독화 옻나무 추출발효물 10-2009-0133912

KFDA 식품의약품 안전청

FDA 미국식품의약청 FCE/SID 제조업체 등록, 공정과정 등록

대한기능식품학회

산림청신지식인 선정

대한민국신지식인 대상수상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출품작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순자 1949년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5월 26일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위치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일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2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그이튿날 아침에 숙변이 엄청나게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사라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이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정상화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먹던 수면제도 먹지않고 잠을 잘자고 있고 이제는 고기나 일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얼굴도 환 해졌어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와 좋은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만성피로 십이지장궤양

자영업을 하는 53세 남성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날은 술과 담배를 자주 하다보니 몸도 망가지고 그로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소화도 안되고 피로하였습니다.
가슴이 꽉막힌듯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위염 및 십이지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병원에 1년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였지만 잘 낫지않아 스트레스만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는사람으로부터 참옻이 좋다는 말에 옻가네 참옻을 구입하여 1달정도 복용하게 되었으며 서서히 소화도 잘되고 속도 편안하여 아픈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약을 먹지 않고서 참옻을 몇개월 복용하니 이제는 예전처럼 술도 가끔 마실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위장약을 장복하면 남성의 정력이 약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위장약을 완전히 끊게 되어 다행입니다. 참옻을 만드신 옻가네에 감사드립니다.

간경화 (경기도 분당 60대 / 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은 진정이 없어 5개월 후 2주마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진정이 없었습니다. 8월경 TV 방송을 보고 제품을 신문을 하였지만 항상조차 실망하지 않았지만 선물해 준 분의 성의로 복용하기 시작했지 10일정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엄청나게 놀라웠다. 2주마다 가던 병원을 3개월에 1번오라는 말을 들게 되었으며 현재의 간 수치는 55/22로 돌아왔으며 혈당도 4에서 3.5로 수정됨. 다음에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지속 복용했던 바톤우종이 왔지 되었으며 면역력이 약화됨에도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 사라졌다.

언론보도자료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 6. 19
2) "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 4. 20
KBS 싱싱 일요일 – "계절의 보석" 2006. 8. 20
KBS 무한지대 큐 –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 10. 31
KBS 환경 스페셜 – "약이 되는 독" 2006. 11. 22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 8. 6
한국경제 –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동아일보 –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 10. 27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을 고침.

어혈제거, 혈액순환
-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 함.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골연화 예방치료.

피부 질환, 아토피
- 療咳楸(료해수) : 가래, 기침병.
-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가 저리고 쑤시는데 쓰임.

동의보감(허준)

옻은 성질이 따뜻하고 어혈(瘀血)을 없애며 여인의 생리불순. 생리통과 산가(疝瘕)를 낫게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회충을 죽이고, 몸속의 오래 묵은 병 덩어리(적)을 없애고 여성의 하혈을 그치게 하고 , 삼충을 없애고, 폐결핵을 치료한다. 옻은 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뼈로 간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골수를 채워 줄 수 있는 명약으로 뼛속, 머리 골을 채워 주며 골다공증, 골연화, 예방치료와 골수염, 관절염에 좋고, 심장병, 결핵, 신경통, 간경화, 늑막염, 담낭, 신장, 허리통증과 중풍, 방광결석을 치료하고, 남성의 정력을 보하는데 좋아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잔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잔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 할수 없는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옻은 독성이 약성이므로 독성을 제거하면 약성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옻의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성은 제거하면서 약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은 독성을 제거되면서도 약성은 그대로 보존됨이 입증된 국내 유일한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무과당, 100%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드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x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x 60포)
2개월분 260,000원
사은품 토종참옻환 300명 한정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